현대불교신문·아름다운동행 공동 캠페인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후원계좌 농협 301-0316-6816-71
(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27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2월 24일)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3월 9일 쿠시나가르 열반당에서 열반지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회주 자승 스님은 직접 '한국불교 중흥발원'을 직접 쓴 금관 가사를 부처님 열반상에 공양 올렸다. 사진은 열반상 앞에서 정근하는 순례단의 모습. 사진=노덕현 기자

열반지서 '불교중흥' 발원 공양 올리다

인도순례단 3월 9일 쿠시나가르 열반당서 법회 봉행

회주 자승 스님이 직접 휘호한
'한국불교 중흥발원' 가사 공양
부처님 유훈 합송하며 재발원

눈물과 다짐 '환희 법석' 봉행
순례단서 '전법행' 발언 이어져

인도 쿠시나가르=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에 오른 쿠시나가르에서 순례단은 다시 한번 불제자로 불교중흥의 발원을 하며 의지를 다졌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회주 자승)은 3월 9일 쿠시나가르 열반당에서 열반지 대법회를 봉행했다.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인도순례길에 오른 지 29일차, 누적거리 총 689km, 인도 현지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순례단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환희로움으로 가득찼다.

인간붓다로서 육신의 죽음 앞에 불제자들인 순례단은 부처님의 인간으로서의 마지막을 떠올리며 눈물도 흘렸지만, 그보다 이후 부처님 열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한번 전법 포교의 마음을 다잡았다.

이날 법회는 부처님께 그 마음을 담은 가사를 올리는 열반당 참배로 시작됐다. 회주 자승 스님은 '한국불교 중흥발원'을 직접 쓴 가사를 부처님 열반상에 공양 올렸다.

정근 후 열반당 앞으로 자리를 옮긴 순례단은 부처님께서 남기신 유훈을 함께 낭독하며 부처님께 불교중흥의 대장정을 다시 시작함을 고했다.

'여래는 육신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다. 육신은 여기서 죽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진리와 깨달음의 길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내가 열반한 후에는 그동안 설한 가르침이 곧 스승이 되어줄 것이다. 이 진리를 지켜 무슨 일에나 진리대로 행동하라. 수행자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함께 내 교법을 지키고 함께 배우며 함께 수행하고 부지런히 힘써 도의 기쁨을 함께 누려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순례단은 2500여 년 전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유훈을 읊으며 각오를 다졌다. 이어 진오 스님의 대표낭독으로 발원문을 함께 낭독하며 부처님에게 불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올렸다.

순례단은 "부처님의 인간적인, 부모님 같은 유훈을 가슴깊이 새긴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온 순례단과 불자들은 먼 곳에 있더라도 부처님과 함께 심장 뛰기를 발원한다"며 "이 순례공덕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전환점이 되길 발원한다. 수행하고, 봉사하며, 생활불교, 자립불교, 세상에 이익을 주는 한국불교가 되길 발원한다"고 다짐했다.

순례단은 열반당을 비롯해 아난존자 스투파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부처님 열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대변인 종호 스님의 설명을 들었다. 부처님께서 당시 번성한 바이샬리나 왕국의 수도가 아닌 작은 곳이었던 쿠시나가르에서 열반에 드신 이유가 왕족 등 고위층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부처님 열반의 가르침을 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부분에서 순례단의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종호 스님은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으로 보이신 것은 법신은 상주한다는 것과 모든 중생들에게도 불성이 있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것"이라며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통해 부처님의 말씀 행동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열반의 의미"라고 했다.

순례단에서는 이런 마음을 전법 포교로 잇자는 말이 이어졌다. 4조 조장 설암 스님은 "회주 스님과 서울에서의 공양시간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 '타종교인이나 무종교인들에게 얼마나 불교와 인연을 맺게 해봤냐'는 질문에 당시 답을 못했다"며 "보드가야에서 회주 스님의 '참담한 현실에 보았다'는 말을 경책으로 삼고 정진하겠다. 먹물 옷이나 가사를 입어서 불자들에게 마음 아프게 한 일은 없는지 되새겨보고, 한국불교가 인도의 화석화된 불교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을 드신 곳에서 다시 한번 전법과 포교의 의지를 다진다"며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에 따라 끊임없이 정진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이런 순례단에 대해 지난 카쿠타강에서 마중나온 미얀마 가네시아로 스님은 부처님 사리와 가사 등을 순례단에 전했으며, 이에 회주 자승 스님은 순례단 장군죽비와 팔만대장경판을 선물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한국 불자들도 대거 참여하여 마음을 모았다. 고운사 회주 호성 스님과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 개운사 주지 보림 스님을 비롯한 각 사찰 신도들이 열반당 입구부터 순례단을 환영했다. 또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 및 관계자들과 동국대 일산병원 지도법사 능지 스님 및 의료진도 함께 했다.

순례단은 이날 법회에 이어 모든 생명의 존귀한 가치를 알린 부처님 탄생 의미가 서린 룸비니와 인간으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향취가 남은 카필라바스투 등을 참배하고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신 기원정사를 향해 행선을 이어간다.

〈관련특집 4·5면〉

조계종 '아미타 요양병원' 오는 5월 3일 개원한다

진우 스님, 3월 7일 현장 점검
노후 시설 개보수 등 직접 살펴



요양병원 리모델링 현장 점검 중인 진우 스님.

조계종 직영 스님 전용 아미타 불교요양병원이 5월 개원을 앞둔 가운데,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병원을 방문, 정비 상황을 점검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3월 7일 안성 아미타불교요양병원에서 시설 브리핑과 라운딩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병원 개보수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기반시설은 안전한지, 이용자들에게 부족한 점은 없는지 등을 세심히 챙겼다. 꼼꼼한 눈으로 병원 구석구석을 직접 살핀 진우 스님은 관계자들에게 "스님들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시설 정비에 완벽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종단 직영 요양병원은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핵심공약 중 하나다. 스님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제도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점에서 교계 안팎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아미타 불교요양병원은 2008년 7월 故각현 스님의 원력으로 개원한 파라미타 요양병원을 조계종이 승계하면서 재탄생할 수 있었다.

안성시 죽산면에 위치한 아미타 불교요양병원은 토지 2만6363m² (7975평), 건물 8492m² (2569평)로 지하 1층, 지하 6층 규모다.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노후화된 일부 시설을 대폭 수리함은 물론 스님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고자 여유공간을 1인실로 변경하는 등 각종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중이다. 정비가 완료되면 198개까지 병상이 확대된다. 이밖에도 야외 휴식공간 마련을 비롯해 차차 장례식장을 보수하고 다비장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을 증축할 계획도 갖고 있다. 추후 80병실 이상의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제2병동을 신축, 스님들의 노후 복지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진우 스님은 "종단 첫 번째 사업 성취로서 상징성을 위해서라도 완벽하게 준비, 아미타 불교요양병원이 다른 사업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나머지 핵심종책 사업들도 빠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성 아미타 불교요양병원은 5월 3일 오후 2시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안성=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불교의 현대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일 정 2023년 9월 6일(수) ~ 8일(금), 2박 3일
장 소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연수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1일차 (9월 6일,수)	2일차 (9월 7일, 목)	3일차 (9월 8일, 금)
09:00~12:00		지혜를 밝히는 법회 '기획부터 시연까지'	마음불사 도량불사 스님들의 고민 톡!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한마음과학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수행 법회 사찰 운영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지혜를 밝히는 법회 기획부터 실습
▶ 한마음과학 특강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K-spirit 선도 명상 전문가 양성 학당 문 연다

한국명상지도자협, '명상아카데미 대강좌' 개강

3월 22일부터 기초반·심화반 10강
실시간 화상강의…명상 전문가 지도
수료 시 전문지도사 자격증 취득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참선과 마음챙김, 위빠사나, 화두선 등 명상 수행법을 배워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강좌가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이사장 혜거)는 '제13기 명상아카데미 대강좌'를 개강한다. '지혜와 평화의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총 10강으로 구성됐으며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3월 22일~5월 31일 진행되는 기초반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5시 30분, 3월 25일~6월 3일 열리는 심화반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30분 진행된다. 두개 반 모두 실시간 화상강의(Zoom)을 통해 참여가능하다.

명상아카데미 대강좌를 수강하면 다양한 수행법을 전문가들에게 지도받을 수 있다. 기초반은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장 혜거 스님의 '초심자를 위한 참선 입문'을 시작으로 인경 스님의 '고집멸도 명상상담', 월호 스님의 '아바타명상', 명법 스님의 '능엄경의 반문자성', 무애 스님의 '참선의 원리와 활용', 선업 스님의 'MTV통합명상과 표현명상', 현암 스님의 '순수 위빠사나', 지운 스님의 '자비다선 차명상',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적경 스님의 '가피명상' 등으로 구성된다.

심화반은 혜거 스님의 '선종의 유래와 간화선 참구', 지운 스님의 '자비선명상', 김재성 교수의 '자아통찰명상', 김병전 교수의 '하트스마일명상의 이론과 실제', 장효산 원장의 '내려놓음명상', 안희영 교수의 'MBSR 프로그램의 이해', 박희승 교수의 '화두참선의 원리와 효능', 김열권 원장의 '마하 사마타 위빠사나명상법' 등이 진행된다.

강좌를 이수한 수강생들은 명상전문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강좌 수료 후 금강선원 등 명상지도자협회 소속 19개 단체에서 100시간 이상 실습을 완료하면 2급 자격증 심사조건을 갖추게 된다.

1급은 단체 교육과정 200시간 이수와 심화반 강좌를 수료해야 하며, 전문 자격은 1급 자격을 갖춘 후 단체 교육 100시간 이상을 추가 이수해야 한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상임이사 적경 스님은 "명상아카데미 대강좌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직무스트레스, 이혼율 증가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된 현대인에게 용기와 희망, 치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됐다"면서 "명상을 통해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찾고 고통의 원인과 본질에 대해 성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교육을 통해 명상전문지도자를 양성, 우리사회에 지혜와 평화의 명상을 널리 전하고자 한다"면서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명상의 세계화를 위한 K-spirit을 체계적으로 정리, 발전시키고 시대가 요구하는 명상지도 전문 인력 양성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명상대중화를 통한 지혜와 평화가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명상아카데미 대강좌는 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교육 인증 과정이다. 이수 시 연수점수 30점이 인정된다.

접수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 홈페이지(www.kamto.net)에서 가능하다.

(02)953-5307

"승가결사체는 종단 발전 동력입니다"

조계종 교육원, 승가결사체
3월 2~8일 인증단체 간담회

24개 단체 4차례 걸쳐 진행
단체 활동, 정보 교류 나눠
출가 진흥 위한 의견 교환도
향후 '출가 장려' 분야 추가



조계종 교육원은 3월 2일부터 8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2023년도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인증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8일 열린 4회차 간담회의 인증서 수여 후 기념촬영 모습.

조계종 승가결사체 인증과 상호 소통을 위한 간담회가 처음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직무대행 지우)은 3월 2일부터 8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2023년도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인증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승가결사체 인증은 인증서를 전달하는 형식으로만 진행돼 왔으나 올해부터는 교육원과 결사체 간 원할한 소통과 의견 청취를 위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올해에는 총 28개 단체가 승가결사체로 인증을 받았으며 네 차례 간담회를 통해 24개 단체에 인증서가 전달됐다. 4개 단체는 개별일정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3월 8일 열린 4차 간담회에서 교육원장 직무대행 지우 스님은 승가결사체가 종단 전법포교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많은 활동을 당부했다. 지우 스님은 "승가결사체는 각 분야와 지역에서 뜻 있는 스님들이 활동하는 모임으로 한국불교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간담회를 하며 여러 스님들을 만나보니 활동 내용도 좋고, 유능한 인재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포교, 사회실천 역량들은 결집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승가결사체가 맡아줘야 한다"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 선행 사례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단체 간 활동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EM지구사랑실천 대표 혜솔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혜눌 스님은 "쌀뜨물 1리터를 정화하는데 깨끗한 물 440리터가 필요하다. 아무리 정화해도 한계가 있고, 결국 모든 오염물질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면서 "우리 결사체는 안전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한 EM스마트 발효기를 제작·보급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포교와 출가 진흥을 위한 다양한 논의도 이어졌다. 3월 7일 간담회에서는 천진불어린이합창단 대표 도진 스님과 자비나눔 대표 해동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포교를 위해 계층별 전국 연합 템플스테이를 종단 차원에 열것을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교육원은 활동 보고,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승가결사체 활동 분야로 '출가장려'가 추가될 예정이다. 출가장려 활동 프로그램 진행 단체에 대해선 차년도 재인증, 보조금 우대 지원이 이뤄지며 활동프로그램에 따라 단체와 사전에 협의해 홍보, 기타 지원도 진행된다.

승가결사체에 대한 심사기준도 강화된다. 운영규정 보조금 지원 평가표를 근거로 평가기준이 되는 점수제를 도입하며, 인증취소 기준 인원을 '실제 활동 기준을 충족한 4인 미만'으로 변경·강화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찬송가 시무식' 숲 공수처장 사퇴하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들 사퇴까지 릴레이 시위

3월 8일 우봉·탄웅 스님 시작
매주 월·수·금 1인 시위 진행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불러 종교편향 논란이 불거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 우봉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탄웅 스님은 3월 8일 오후 2시 과천 정부 청사 앞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김 공수처장은 올해 1월 2일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불러 종교편향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평화위원회 등은 잇달아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사퇴를 촉구했으며,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에 김 공수처장의 종교편향 행위를 신고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공직자 종교차별예방위원회 결정으로 김 공수처장의 종교차별 행위는 인정했으나 재발 방지 마련 및 종교차별예방교육 실시를 권고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날 우봉 스님은 "누구보다 정치적 종교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수처장이 공식 행사인 시무식에서 자신이 믿는 종교를 내세우며 찬송가를 불렀다는 것은 공직자이자 사정기관장으로서 명백한 종교편향이며 범법 행위"라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차별예방교육 실시 권고와 재발 방지 마련 등의 지극히 형식적인 조치만을 시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직자 윤리법과 공수처법 등에 여러 징계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도 등을 이유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제2, 3의 공수처장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는 이날 시위를 시작으로 매주 월·수·금 오후 2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키로 했다. 시위는 김 공수처장이 사퇴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 우봉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탄웅 스님은 3월 8일 과천 정부 청사 앞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튀르키예·마애불 입불 불사 기금 잇달아 답지

수덕사, 비구니회 등 동행에 전달



수덕사 주지로 임명된 도신 스님이 기금 33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튀르키예 강진을 위한 구호기금과 열암곡 마애불 바로모시기 불사 기금이 잇달아 답지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도신 스님은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및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 기금 3300만원을 전달했다.

도신 스님은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고 대중과 화합하며 교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종단 발전과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은 3월 9일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동행에 튀르키예 지진피해 구호금과 자비나눔 기금으로 2600만 원을 기탁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이번 기금 마련을 위해 본사뿐만 아니라 화엄사에 소속된 말사들도 함께 십시일반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어려울 때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곧 불교 정신"이라며 "형제의 나라인 튀르키예를 돕는데 동참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3월 8일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튀르키예 구호 기금으로 1000만 원,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기금으로 1000만 원이 기탁된다. 비구니회 회장 본각 스님은 예방 자리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 초청장을 전달했다.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회장 동언)도 3월 8일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총동문회 회장 동언 스님은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2100여 명의 동문스님들이 마음을 모아 마련했다"면서 "튀르키예 구호 기금과 경주 남산의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는 불사에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오윤겸 수습기자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학생 새내기 불자 여기 모두 모여라”

3월 6일, 서울 성균관대 ‘성불회’ 신입 회원 모집 현장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목탁소리에 이끌려 온 새내기들
선배 안내 듣고 템플스테이 관심
대불련, 3월 한 달 20여 대학서
홍보 나서…각종 물품 적극 지원


성불회 회원들이 신입생들에게 목탁시범을 보이고 있다.

“공부와 취업 고민으로 쌓인 스트레스, 성불회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로 날려버리세요.”

따듯한 봄 햇살이 내려앉은 서울 성균관대 잔디밭.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한 새내기들 사이로 불교 동아리를 알리는 선배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새학기를 맞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유정현, 이하 대불련)가 젊음의 활기가 넘치고 있는 대학 캠퍼스에서 새내기 모집에 한창이다. 서울 성균관대 불교학생회 성불회(회장 고남욱)도 3월 6~7일 이틀에 걸쳐 교내에서 신입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새내기 불자 만들기에 대학생 불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대거 등장했다. 동자승 탈을 쓰고 동아리 홍보물을 전달하는가 하면 홍보부스에서는 연꽃 만들기, 목탁 체험 활동이 펼쳐졌다.

성불회 선배들은 생경한 목탁소리에 이끌려 부스를 찾은 새내기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부터 템플스테이, 봉사활동, 정기법회, 전국 연합활동 등 청년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친절하게 설명했다.

홍보부스를 찾은 신입생들은 안내를 꼼꼼히 듣고 특히 템플스테이에 큰 관심을 보였다.

조흔이 학생(경영 23)은 “평소 고요한 산사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도 알고 힐링도 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면서 “성불회를 통해 명상과 사찰음식, 부처님 가르침도 알아가고 싶다”고 큰 관심을 표현했다.

이날 홍보부스에는 다른 동아리처럼 요란한 퍼포먼스는 없었지만 입회 희망을 밝힌 학생이 줄을 이었다. 대면 모집이 3년 만에 이뤄진 상황에서 매우 성공적이라는 게 불교학생회의 설명이다.

고남욱 성불회장은 “학생들이 마음편히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동아리로 운영하고 있다”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열리는 정기법회뿐 아니라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템플스테이, 명상 등 다채로운 활동을 꾸준히 계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남욱 회장은 성불회의 강점으로 OB선배들과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꼽았다. 고 회장은 “성불회는 사회에서 탄탄하게 자리잡은 선배들의 지원이 있는 동아리”면서 “불황으로 취업이 어렵다 보니 전국적으로 불교 동아리가 침체됐다고는 하지만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과 선후배 활동 등으로 적극 어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보부스에는 올해부터 성불회를 지도하게된 지도법사 청빈 스님도 동참, 신입생들을 맞아 눈길을 끌었다. 청빈 스님은 “고민 걱정이 많은 요즘 대학생들에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다양한 명상법과 마음공부 등을 자연스럽게 알려줄 것”이라면서 “많은 대학생 법우들이 불교와 함께하는 대학생활로 부처님과 인연을 맺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불련은 3월 한 달간 동국대, 서울대, 중앙대, 경희대, 전남대, 대전대, 부산대 등 전국 20여개 학교에서 불교 동아리 홍보에 나선다. 스카이댄스와 팝콘 기계, 동자승 인형탈 등 다양한 포교 굿즈를 적극 지원한다.

“학내 소통 최선…자기 역할 다해야”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3월 3일 개강법회서 첫 법문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웅대하고 거룩하고 존엄한 가치로 맡겨진 소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출발하고 나 자신으로 인해서 동국의 만유만사가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갑시다.”

학교법인 동국대 제4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돈관 스님의 일성이다. 돈관 스님은 3월 3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봉행된 2023학년도 1학기 개강법회에서 법사로 나서 학내 구성원들에게 자기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사장 취임 후 첫 공식일정이기도 했던 이날 법회에서 돈관 스님은 ‘소통’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특히 돈관 스님은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이 건학위원회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강조한 말씀을 정리하면 〈화엄경〉 법성게의 ‘일중일체다중일(一中一切多中一), 일즉일체다즉일(一卽一切多卽一)’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하며 “‘하나 가운데 모두가 있고 모두가 하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고문 자승 스님의 말씀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국’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학내 구성원 개개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건학위원장 소임을 통해 제가 동국 발전을 위해 세운 화두는 ‘소통’”이라면서 “학내 구성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필요한지에 대해 역점을 두고 소통하는 이사장이 되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돈관 스님은 동국대 발전을 위해 학내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위기를 기회로 삼지 않으면 종립학교 교육도 퇴보할 수 밖에 없다”면서 “새로운 동국호가 출발하는 만큼 모든 구성원이 맡은 바 역할 다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3월 7일 동국대 WISE캠퍼스 정각원에서 열린 개강법회에서도 돈관 스님은 동국 발전을 위한 학내 소통을 제언했다.

“한국불교의 미래는 포교와 교육에 있다”고 강조한 스님은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신뢰하며 진정한 동국인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사노위, 성평등 사회 발원

3월 6일, 서울시청광장 시민들에 보라색 리본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3·8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열린 한국여성대회에 동참, 성평등 사회를 염원했다.

사노위는 3월 6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제38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 성평등 가치를 알렸다.〈사진〉 이번 동참은 행사 주최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사노위는 부스를 열고 시민들에게 성평등 뜻이 담긴 보라색 리본을 나눴다. 또 여성해방을 염원하는 스님의 법고 시연과 범종, 목탁치기 등의 체험행사도 진행했다.

사노위는 또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는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을 진행하기도 했다. 임은호 기자

‘의료위기’ 스리랑카에 필수의료기기 지원

마하위하라 사원·(사)인간의대지 5천만 원 상당 수액세트 2500개


마하위하라 사원과 인간의대지는 3월 8일 서울 주한스리랑카대사관에 5000만원 상당 의료기기를 전달했다.

국가부도 사태 이후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에 직면한 스리랑카에 한국 불교계가 의료기기를 지원했다. 특히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 실시한 의약품 지원에 이은 두 번째로, 한국 불자들의 자비온정이 함께한 결실이라 훈훈함을 더한다.

마하위하라 사원(주지 담마끼띠)과 인간의대지(이사장 곽병태)는 3월 8일 서울 주한스리랑카대사관에서 ‘생명을 위한 필수의료기기 전달식’을 진행했다. 의료기기는 총 5000만 원 상당 규모로 스리랑카 국적기를 통해 전달된다.

이번 의료기기 지원은 마하위하라 사원이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한 ‘스리랑카 국민을 위한 필수의약품 지원 캠페인’에 따른 2차 결실이다.

이번에 전달될 후원품은 의료기기인 수액세트 2만500여 개다. ㈜메디라인액티브코리아는 차광 수액 세트에 봉투까지 포함, 비타민 및 항암제 등 일부 약물들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지원인만큼 대사관 측은 본국 복지부와 국적항공회사 등 관계부처와의 행정적 절차를 최소화하고 의료기기들이 즉각 본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비트리 인드라차파 파나보크 주한 스리랑카 대사는 “스리랑카를 위해 지속적인 의료지원에 나서겠다는 지난해 약속을 잊지 않고 올해도 아주 귀한 선물을 기부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인간의대지 곽병태 이사장은 “지원된 물품들이 힘든 분들에게 골고루 쓰여지길 바란다”면서 “인간의대지는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수범 메디라인액티브코리아 이사는 이날 식약처 허가까지 취득한 차광 수액세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의약품 후원을 주도한 사원 담마끼띠 스님은 의료지원에 이어 교육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도 밝혔다. 학용품 부족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학용품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나 혼자 한다는 착각서 벗어났어요”

한마음과학원, 제7기 한마음공생실천 심화과정 회향

현대적 참선프로그램인 제7기 한마음공생실천 심화과정이 회향됐다.

한마음과학원은 “1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6주간 제7기 한마음공생실천 심화과정을 진행했다”고 3월 3일 밝혔다.〈사진〉



한마음과학원이 운영하는 한마음공생실천 심화과정은 3년 전부터 자체 제작한 수업 교재를 활용해 법문 사경과 ‘예화로 보는 마음공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특히 이번 제7기부터는 팀원 간 문제를 공유하고 마음을 내는 ‘공생관(共生觀)’을 통해 자신과 타인이 한마음으로 연결돼 있고, 함께 공생하는 생명임을 알아차리는 시간을 가져 참가자의 호응을 높였다.

교육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은 “매주 과정을 들으며 마음을 집중할 수 있었고, 매일 ‘수행일지 관노트’로 나의 습과 의식의 흐름을 보고 바꾸어 가려고 노력할 수 있었다”면서 “‘둘이 아니고, 나 혼자 한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됐다. 도반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잠재돼 있는 생각과 감정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도반들이 나를 이끌었고, 앞서 공생실천과정에서 스님과의 질의응답은 마음공부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현대적 참선 교육 프로그램인 한마음공생실천과정 심화과정은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을 이수해야 수강할 수 있다.

한편, 제38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오후 1시 30분 매주 토요일 9주간 진행된다. 장소는 한마음과학원 3층 강의실이다. 수강료는 20만원이며, 선착순 50명 모집한다. (031)470-3200/3198(월요일 휴무)

신성민 기자

法華經專門講說
법화경전문강설
불경(佛經)은 한문(漢文)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불경의 한자(漢字)와 한문의 뜻을 비유하면 음악의 악보와 같습니다.
경전의 한자원리와 한문구성문법도 모르면서 불교를 말하는 것은 악보도 볼 줄 모르면서 음악을 지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을 해서 성불하셨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법화경전문강설”을 검색하세요.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최광영연구실

완전한 열반에 이른 부처님 길을 걷다



노덕현 기자의
'상월결사, 붓다의 길을 걷다'
④ 바이샬리에서 쿠시나가르까지

인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순례단이 부처님께 올릴 지화를 들고 부처님 다비장에 세워진 라마바르 스투파를 참배하고 있다.

'가자, 쿠시나가르로!' 카쿠타 강에서 목욕을 하고, 춘다를 위로한 부처님은 쿠시나가르로 향하며 이렇게 말하셨다. 늙고 병든 몸이지만 대중의 앞에 서서 당당히 걸어가신 모습으로 부처님은 그렇게 걸으셨다. 낡은 수레와 같았다, 혹은 사자와 같이 당당했다는 인간 붓다 그 자체, 부처님을 닮아가는 순례단도 그와 같이 걸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회주 자승)의 순례 중후반부 4주차는 부처님 열반길을 따라 걷는 길이었다. 부처님의 마지막 안거처였던 바이샬리부터 열반처인 쿠시나가르까지 부처님께서 열반을 향해 걸은 마지막 길을 따라 걸었다. 약 4주간 쌓인 피로도, 아픈 몸도 순례단의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카쿠타 강서 손 씻자 상서로운 법비가

순례 28일차 3월 8일 순례단은 행선을 시작한 지 4km만에 부처님의 마지막 공양이 이뤄진 춘다마을, 파질나바르에 도착했다. 인도에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일출시간 전 유적지 참배가 금지돼 있다. 이 관계로 순례단은 춘다 스투파가 조성된 파질나바르를 지나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공양보다 더 중요한 상락아정(常樂我淨)이 남아 있기에 순례단의 발걸음에는 걸림이 없었다.

인간붓다로서 육신의 목마름으로 표현됐지만, 번뇌와 갈애를 여읜 경지를 나타낸 500대의 마차가 지난 깨끗한 개울, 그리고 열반에서 탐친치(貪瞋癡)에 대해 한번 더 가르침을 주신 카쿠타 강까지 순례단에게는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자연스럽게 행선은 빨라졌고, 해가 뜨기 전인 새벽 5시 경, 순례단은 출발부터 13km, 춘다마을부터 8km를 더 걸어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목욕하신 카쿠타 강에 도착했다. 순례단을 맞아 미얀마 출신인 인도 스님과 신도들이 나와 꽃을 공양하며 환영했다.

여느 때보다도 이른 시각, 해조차 뜨지 않은 카쿠타 강은 부처님의 유훈을 간직한 채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목욕으로 세속의 인간으로 남은 티끌을 털어버리셨듯이, 순례단은 저마다 마음 속 불교 중흥의 원을 세우며 티끌을 지우는 의미로 강물에 손을 적셨다.

그 간절함이 닿아서 일까. 회주 자승 스님이 카쿠타 강에 손을 적시자 순례 시작 이후 처음으로 비가 내렸다. 인도 건기에는 비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것이다. 인도 현지인들조차 상서롭게 생각하는 비는 순례단에 묻은 먼지를 모두 지웠다. 순례단이 이운하는 큰 부처님도, 작은 부처님도 마치 마지막 목욕을 마친 인간 붓다처럼 밝게 빛났다.

현지인들조차 이 비가 부처님의 가피라고 여겼다. 현지안내를 맡고 있는 라지 야다부 씨(40)는 "인도 건기에는 정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은 의미로 생각한다"며 "특히 부처님이 씻으신 강물에 스님이 손을 씻자 내린 비는 부처님이 회주 스님과 순례단에 보내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순례단은 환희심으로 행선을 이어가 부처님 다비장인 라마바르 스투파에서 회향했다. 부처님의 열반 후 말라족에 의해 화장 후 나온 사리 등은 다시 불탑신앙으로 이어지고, 가르침은 마하가섭 등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어져, 지금까지도 많은 중생들의 의지처가 됐다. 기나긴 세월, 끝없는 고난을 딛고 뭇 중생에게 가르침을 전한 인간 붓다. 열반 후 2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 숭고한 길 위에서 순례단은 슬픔과 함께 불제자로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새로운 원을 세웠다.

힌두교도들에게도 부처님은 존귀한 존재로 귀의처가 되고 있다. 열반지에서 기도한다는 그들은 순례단 행렬에 자연스럽게 합장하고 귀의했다. 총도감 호산 스님의 대표 발원으로 순례단은 마음을 가다듬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마하가섭에 단 밖으로 두 발을 보이신 도리를, 저희 상월결사 순례단에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목욕한 강가서
회주 스님이 손 씻고 의미 다지자
건기 중 비가 오는 상서로움 내려
현지인 "부처님께서 아끼는 마음"

'한국불교 중흥' 가사 공양 올려

순례단은 3월 9일 쿠시나가르 열반당에서 열반지 대법회를 봉행했다.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인도순례길에 오른지 29일차, 누적거리 총 689km, 인도 현지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순례단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환희로움으로 가득 찼다. 이날 법회는 부처님께 그 마음을 담은 가사를 올리는 열반당 참배로 시작됐다. 회주 자승 스님은 직접 '한국불교 중흥발원'을 쓴 금란가사를 부처님 열반상에 공양 올렸다.

정근 후 열반당 앞으로 자리를 옮긴 순례단은 부처님께서 남기신 유훈을 함께 낭독하며 부처님께 불교중흥의 대장정을 다시 시작함을 고했다.

순례단은 2500여 년 전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유훈을 읊으며 각오를 다졌다. 이어 진오 스님의 대표낭독으로 발원문을 함께 낭독하며 부처님에게 불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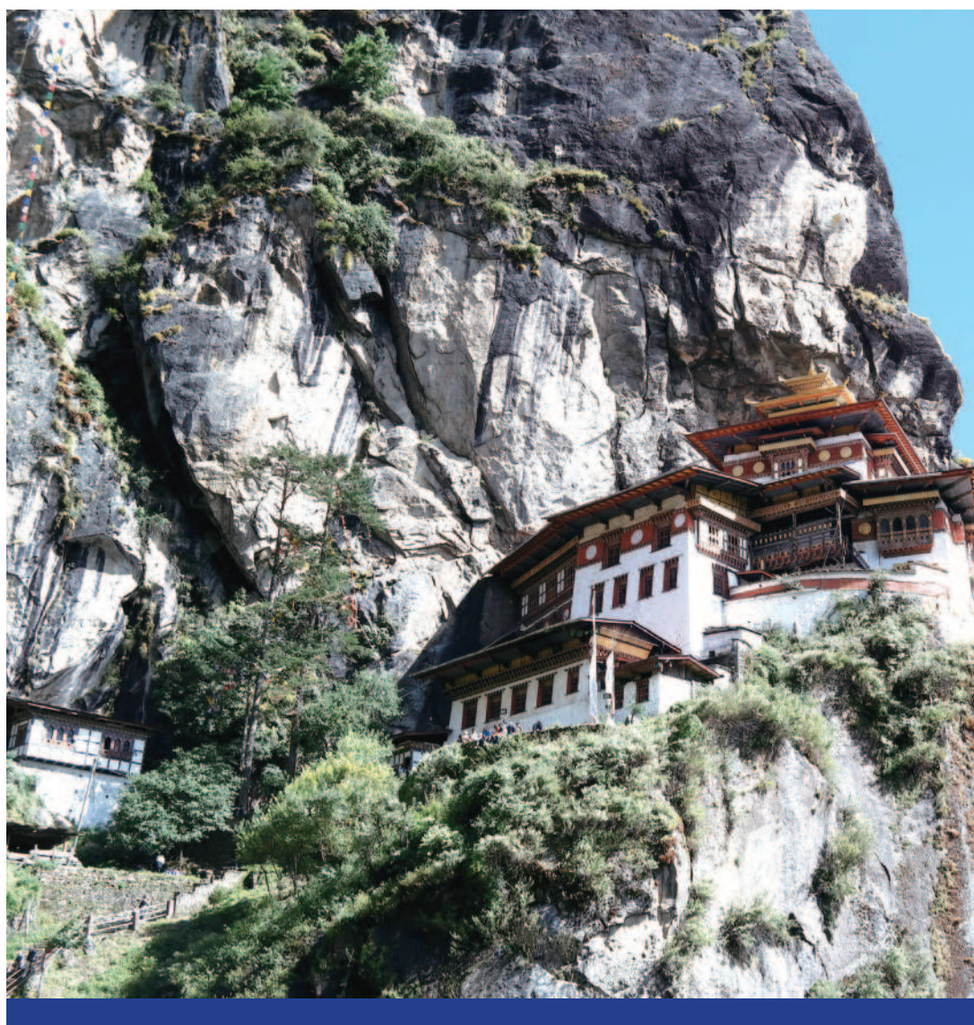
회주 자승 스님이 카쿠타 강에서 손을 씻고 있다. 스님이 카쿠타 강에 손을 씻자 약 20분 가량 비가 내렸다. 건기인 인도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상서로운 징조로 여겨진다. 회주 자승 스님은 순례단에게 부처님 가피니 그대로 비를 맞으라고 했고, 순례단은 탐진치 먼지 티끌을 지운 이 비에 환희심이 나서 더욱 정진했다.

순례단은 "부처님의 인간적인, 부모님 같은 유훈을 가슴깊이 새긴다"며 "이 순례공덕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전환점이 되길 발원한다. 수행하고, 봉사하며, 생활불교, 자립불교, 세상에 이익을 주는 한국불교가 되길 발원한다"고 다짐했다.

고통 이기며 초심으로 열반길 걷다

앞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부처님이 열반을 향해 걸은 길을 초심으로 걸었다. 누적된 피로와 병마로 고통스러웠지만 수구초심(首丘初心)으로 길을 걸었다.

25일차였던 3월 5일 그동안 토사곽란으로 행선에 부분적으로만 참여했던 총도감 호산 스님(서울 수국사 주지)이 행선 전체 과정을 소화했다.



행복지수가 높은
히 말 라 야
부탄 순례 7일

일 정 : 인천–방콕–파로–팀푸–푸나카–방콕–인천

순례기간 : 2023년 4월 9일~15일 동참금 : ₩4,390,000



특전
- 파드마삼바바수행동굴 탁상사원참배
- 3대쫑(파로,팀푸,푸나카) 방문
- 민속공연관람
- 링포체친견

문의 : 현대불교문화사업단 02)2004-8213, 730-4008 순례진행 : (주)케이투어 아제여행 불교성지순례&특수지역전문 http://www.ajetour.co.kr/

“세상에 이익 주는 불교가 되길” 발원

쿠시나가르 열반당서 법회 봉행하고
‘한국불교 중흥발원’ 금란 가사 공양
육신 고통 이기고 당당한 걸음 보인
부처님 모습 떠올리며 정진 또 정진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쿠시나가르 열반상에 ‘한국불교 중흥발원’을 위한 금란가사 공양을 올리고 있다. 발원 문구는 회주 자승 스님이 직접 썼다.


인도 홀리 축제로 얼굴에 염료 등을 서로 묻히고 나온 인도주민들은 ‘나모 붓다야’를 외치며 순례단을 환영했다.


부처님 열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는 순례단.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매일 행선한다.


열반지서 기도하는 힌두교도들은 순례단 행렬에 자연스럽게 합장 귀의했다.

‘얼굴이 반쪽이 됐다’는 말이 저절로 떠오를 정도로 스님은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순례단 선두 앞에서 정진했다.

이날 행선 이후 호산 스님은 “이런 역경이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다. 정신적으로는 더 단단해지고 맑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호산 스님은 천막결사부터 지금까지 3년 넘게 쭉 정진을 이어왔다. 하지만 스님도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어서 화장실에 갈 정도’라고 표현할 정도로 육체적으로는 매우 힘든 과정이었다. 그만큼 정신적으로는 단단해졌다.

스님은 힘든 상황에서도 영축산에 올랐고 대림정사에서는 유주무주 고혼을 천도하기 위해 아픈 상황에서도 천도재를 집전했다. 스님은 “영축산에는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꼭 올라서 법회에 참여하고 싶었다. 그 것이 계기가 됐다”며 “대림정사에서 천도재를 지낼 때도 죽을 힘을 다했다. 상월결사 전체 대중에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때문”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아직 회복은 다 안됐지만 견딜만 하다. 느끼는 바가 색다르다”며 미소지었다.

다리가 불편한 현조 스님은 행선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도량석 후 대중들을 깨우는 종송을 맡으며 대중을 돕고 있다.

발원문을 낭독하는 새벽예불 때나 마지막 구간에서는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회향 자리에는 꼭 대중들과 함께 참여한다.

현조 스님은 “대중의 일원으로서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며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려고 한다. 이 대중을 바라만 보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현조 스님은 공주 태화산에서 진행된 상월결사 예비순례부터 동참했다.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 걸었고, 이후 삼보사찰 천리순례에서는 수술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 수술 휴유증이 부담됨에도 이번 순례에 참석하여 정진하고 있다. 스님은 “공부하려고 온거지 놀러 온 것은 아니니”라며 담담하게 미소지었다.

5조 법본 스님(울산 무룡사 주지)은 “통도사 창원포교당 불사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이후 순례에 동참하게 됐다. 몸 건강히 두 발로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걸음씩 부처님의 전법 포교를 생각하며 정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인들 종교 넘어 순례단 환영

순례단이 향하는 길마다 많은 인도주민들이 나와 환영했다. 3월 7일 27일차에 순례단은 삐빠라까낙에 도착했다. 이곳은 춘다의 공양이 이뤄진 파질나가르까지 4km남짓 떨어진 곳으로 순례단은 마지막 공양의 의미를 화두로 정진했다.

유피주 접경에 들어서자 마을주민들이 나와 북과 트럼펫을 불고, 꽃공양을 올리며 순례단을 환영했다. 공양의 의미로 순례단 숙영지 텐트촌에 순례기간 최초로 그늘천막을 쳤으며, 먼지가 일지 않도록 카페트를 깔았다. 휴식장소마다 간이 화장실을 준비하고, 플래카드를 걸어놓는 등 인도순례단에 대한 마음을 보였다. 주 경계부터 숙영지 삐빠라까낙까지 약 10km를 힌두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여당 지역위원장 등 유력인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이들이 함께 걸었다.

라지기르 영취산에서 부처님은 날란다를 거쳐 파트나에서 가르침을 베푼 후 바이샬리를 출발하여 열반의 여정을 이어간다. 여러 마을을 거쳐 파질나바르에 도착한 부처님은 대장장이 춘다가 소유한 망고동산에서 쉬셨다.

춘다의 공양 중 ‘스카라 맛다바’를 맛본 부처님은 피가 나오는 설사병을 앓으셨다. 춘다는 스스로 귀한 음식이라하여 공양을 올렸지만 상한 음식이었다. 이를 지탄하는 이들이 많자 부처님은 열반하시기 전 춘다의 공양이 다른 모든 탁발 음식을 능가하는 공양이라고 찬탄하시고 그 공양의 공덕에 대해 법문하여 춘다가 자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대의 공양에는 똑같은 결과가 있고, 똑같은 과보가 있으며, 다른 공양보다 훌륭한 큰 결과보다 큰 이익이 있다.’

융숭한 환대를 받았지만 순례단에게는 순례 매 순간 순간이 감사의 시간이었다.

그늘 등을 제공한 마을주민들을 대표해 람부 정신 쿠시나가르 힌두교 대표는 “한국불교 순례단의 방문에 힌두교도들도 환영하는 바이다. 순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나왔다”고 했다.

라자니 칸트 마니 트리파시 쿠시나가르 전 여당 지역위원장도 “부처님께서 바이샬리에서 쿠시니가르로 향하시며 설법하신 곳마다 유피주에서 표시를 해놨다. 이제 발굴과정만 남아있다”며 “힌두교도지만 부처님 열반지에 가서 기도하고 스님들을 만난다. 이번 순례로 많은 이들이 행복해졌으면 한다”고 순례단을 응원했다.

이들의 공양은 재가불자들에게도 크게 다가왔다. 대림정사에서 천도재 후 스님들을 비롯해 스텝들에게 공양을 올린 7조 조장 이태경 불자는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처럼 스님들을 비롯한 대중에게 공양을 올린 것”이라며 “저는 불교를 잘 모르고 이제야 알게 됐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의 공덕에 대해 한번 더 느끼게 됐다”고 미소 지었다.

이날 저녁예불 이후에는 라메스 란잔 지역 치안판사를 비롯해 저나르던 야다부 파질나가르 지역발전위원장 등 지역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순례단에 공양을 올렸다.

이에 감사의 의미로 회주 자승 스님은 이들에게 장군죽비와 팔만대장경판, 염주 등을 선물했다.

라메스 란잔 지역 치안판사는 “우리는 순례단의 스님들이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오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했다. 순례단의 방문으로 지역의 많은 이들이 불교와 한국에 대해 알게 됐다”며 “모디 총리도 한국을 매우 좋아한다. 이번 순례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하라고 전했다.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불교를 고리로 양국 교류가 더욱 단단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춘다의 공양이 이뤄진 파질나가르의 저나르던 야다부 지역발전위원장도 “인도사람들은 항상 손님을 신으로 생각한다. 더욱 많은 한국불자들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길인 이곳을 찾으셨으면 한다.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다”고 환영했다.

순례 종반부, 순례단은 모든 생명의 존귀한 가치를 알린 부처님 탄생 의미가 서린 룸비니와 인간으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향취가 남은 카필라바스투 등을 참배하고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신 쉬라바스티 기원정사를 향해 행선을 이어간다.

제38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모집안내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생활 속 관법 실천과
마음공부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 긍정적으로 재입력하는
연습을 통해 나와 내 주변을
바꾸어 가는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입니다.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기 간 : 4월 1일(토)~5월 27일(토)
9주 매주(토)
시 간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장 소 :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함께하는 전화
edu.hansi.org
수 강 료 : 이십만원
(국민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전화문의 : (031) 470-3200, 3198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부산연등축제 본격 시동 걸다

3월 7일, 실무자 회의 개최

부산연등문화제 4월 28일 점등식
제등행렬 5월 13일 부산시민공원
전통문화 계승 위한 다채로운 행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연합회가 불기2567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부산연등축제 준비를 본격화했다. 사진은 부산연등축제 실무자 회의. 2018년 점등식 사진.

불기2567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부산연등축제가 시작된다. 부산불교연합회는 3월 7일 부산불교연합회 전법관에서 '불기2567 부산연등축제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범수 스님과 주재형 부산불교연합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부산불교연합회 관계자, 부산 전 지역 사찰에서 활동하는 실무자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무총장 범수 스님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것은 부처님오신날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신심과 관심을 이어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부산연등축제 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이며 행사기간 동안 △전통등강습회 △부산연등축제 특별전(전통등, 불교사진, 지화) △부산연등문화제 △부산연등회(연등행렬) △봉축자비나눔 △실무자 간담회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등이 이어진다. 주요사업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17일간 진행되며 주요사업은 부산연등문화제와 부산연등회(제등행렬)이다.

△부산연등문화제

부산연등문화제는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부산 송상현 광장에서 진행된다. 부산연등문화제 개막식은 4월 28일 오후 6시이며 점등식과 호기놀이, 느티떡 나눔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개막점등식에서는 시민들에게 축제 시작을 알리며 간이 연등행렬이 진행된다. 간이 연등행렬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담당한다. 부산연등문화제에서 시민들은 불교와 민속, 만화 캐릭터 등 다채로운 대형 장엄등과 테마등을 관람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참가 시민들은 소원등을 달거나 각종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소원등 달기 체험비는 1000원이며 수익금은 자비나눔 행사로 소외 이웃을 위해 회향된다. 전통문화체험 한마당은 가족들과 함께 찾는 시민들을 위해 5월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맛볼 수 있는 비빔밥 나누기 '무차만발공양'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분과에서 주관하며 비빔밥 3000인 분을 무료로 나눈다. 무차만발공양은 5월 7일 오후 4시에 시작되며 소진 시까지 이어진다.

△부산연등회(제등행렬)

부산연등회는 5월 13일 오후 6시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진행된다. 부산연등회 1부는 육법공양과 호국영령위령재, 관불의식이 이어진다. 육법공양의 미(米) 공양에서는 느티떡을 올려 부처님오신날 느티떡과 콩찐이를 만들어 부터님께 공양올린 전통 문화를 강조한다. 2부는 봉축연합대회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국태민안과 부산발전을 기원한다. 3부는 연등행렬이며 재현행렬단과 승재가 내빈, 연희단, 악대 등으로 구성된 화려한 연등행렬단이 어둠을 밝히고 시민의 행복을 기원한다. 연등행렬은 오후 7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며 행렬구간은 부산시민공원에서 하마정교차로, 양정교차로에 이어 송상현 광장에서 회향한다.

△기타행사

전통등강습회(2월 22일~23일)와 부산연등축제 특별전(3월 24일~4월 9일, 부산미로전시관)은 전통방식의 재료와 방법으로 제작한 전통등을 시민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통등강습과 특별전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다양한 불교전통문화 및 공예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선재동자문화전승단은 불교전통문화 계승과 미래세대 전수를 위해 부산불교연합회에서 구성한 어린이 불자단체이다. 선재동자문화전승단은 연등행렬에서 사용할 등을 직접 제작하며 호기놀이 동참, 연등행렬 연희단 등 다양한 문화행사에서 활동한다.

한국명상진흥원, '명상학교' 개원

4월 6일~6월 29일, 총 13강 진행


한국명상진흥원이 4월 6일부터 6월29일까지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어서와! 명상은 처음이지! 심(心) 봤다!'를 진행한다. 사진은 마가 스님이 옥천사 템플스테이에서 명상을 지도하는 모습.

한국명상진흥원(이사장 마가)이 4월 6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어서와! 명상은 처음이지! 심(心) 봤다!'를 진행한다.

명상학교 '어서와! 명상은 처음이지! 심(心) 봤다!' 프로그램은 한국명상진흥원이 개원 후 처음으로 전국 재가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명상 안내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명상 각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 11명과 명상음악가 김무한 및 붓다라마 최진규 등을 초청하고 명상과 음악을 통해 쉼을 선사한다.

4월 6일 개강에서는 한국명상진흥원 이사장 마가 스님이 명상학교 교장으로 첫 강의를 담당하며, 김무한 가수도 함께 진행한다. 이어 △명상, 생각으로부터 자유, 참본성과 함께(4월 13일, 세첸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 △명상의 이해와 실천법(4월 20일, 해인사 상임포교사 광우 스님) △틱낫한 스님 명상(4월 27일, 석태사 주지 만초 스님) △불교명상, 놓아버림의 길(5월 4일, 보디야나 선원장 혜안 스님) △참된 명상이란(5월 11일, 목탁소리 운영자 법상 스님) △동아시아 명상의 특징과 선불교(5월 18일,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명상(5월 25일, 서울불교대학원대 초빙교수 효록 스님) △스마트 시대의 명상(6월 1일/ 붓다라마 최진규) △다라니 집중명상(6월 8일/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참사람의 향기(6월 15일/前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아바타 명상(6월 22일/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이며 회향 강의는 마가 스님이 6월 29일에 진행한다.

마가 스님은 "이번 프로그램은 첫 시작으로 강의를 통해 명상 안내와 실참을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후 심도 깊은 프로그램으로 명상 수행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안내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상학교 '어서와! 명상은 처음이지! 심(心) 봤다!'는 온라인을 병행하며 오프라인에는 100명 온라인에서는 1000명이 신청 할 수 있다. 수강 신청은 이메일(puremind-ms@daum.net)로 가능하며 수강료는 집중명상을 포함해 총 45만원이다. 수강 기간 동안 신청자들은 밴드를 통해 교수진 스님들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참가자들에 한 해 집중프로그램 참석이 가능하다. 집중명상은 6월 중에 2박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부산聯, 승려연수교육 입재

'선으로 본 대승기신론' 용학 스님 강의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가 3월 7일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승려연수교육 강좌 입재식을 봉행했다.

이번 승려연수교육은 '선으로 본 대승기신론(下)'를 주제로 진행되며 강의는 前 범어사 승가대학 강주인 용학 스님이 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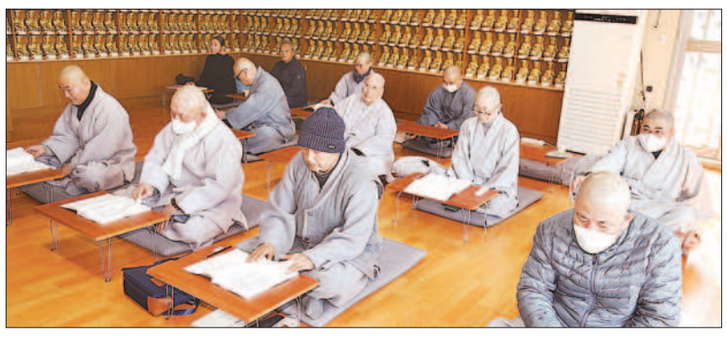
승려연수교육에는 조계종 스님 34명이 접수했으며 4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총 5회 진행된다. 교육을 이수한 스님에게는 연수인증점수 30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정관 스님은 "도심 포교와 불법 홍포로 바쁘시고 노력하는 주지 스님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며 이번 연수교육은 지난 교육에 이어 대승기신론 하편을 강의한다"며 "대승기신론 공부를 통해 보살의 마음을 배우길 바란다. 대승의 마음은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방편 수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한불교불음원 제17기 영남범패 개강

함안 달전사에서 첫 강의 진행



대한불교불음원(원장 원명, 달전사 주지)이 코로나로 중단됐던 제17기 영남범패교육과정 개강식을 갖고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3월 2일 함안 달전사 관음전에서 열린 개강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강의일정 소개 및 안내, 자기소개 및 인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한불교불음원 영남범패 교육과정은 천도의식과 수륙재의식 전승 및 보존에 대한 내용이 담긴 천도법음집을 교재로 사십구재의식 이론과 실기, 작법무(바라무, 착복무), 수륙재의식으로 구성됐다.

원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됐던 강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빠짐없이 수강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범패의 전승과 보존을 위해 개강된 대한불교불음원 영남범패 교육과정은 49재 의례를 중심으로 목요일마다 진행되고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수륙재강의를 추가 수강할 수 있다. 수강 자격은 삭발염의한 출가승려로 제한되지만 특별히 불교예술원, 불교무용 대학원생 각 1명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영남 지역의 영재범패는 경남북지방의 전승되고 있는 범패로 피리, 나팔 등을 사용하지 않고 태평소만 사용한다. 경기도 경재범패, 서울지역의 서울재범패, 전라도 완재범패, 충청도 중재범패와는 확연하게 구분돼 있다.

영남범패는 통도사와 범어사 중심의 통범범패, 통영 고성지역의 통고범패, 동화사 중심의 팔공산범패로 전승되었는데 팔공산범패는 통범범패에 귀속 소멸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억불정책으로 범패가 축소되어 수륙재만 존재하다가 조선 중기 이후 왕실위주의 수륙재가 사찰위주로 되면서 규모 및 행사가 축소되어 명맥을 이어 내려오고 있다. 현재 영남범패는 용운 스님, 대산 스님, 한파 스님, 원명 스님 계보로 이어오고 있다.

대한불교불음원은 2007년부터 매년 현충일에 조국을 위해 산화한 호국 영령에 대한 수륙재를 봉행해 오고 있다.

대한불교불음원은 이날 개강한 6개월의 교육과정 이후에는 영산재, 예수재, 점안의식, 기타 불교의례에 관한 강의도 개설할 계획이다. 영남범패에 대한 문의는 사)대한불교불음원, 함안 달전사(010-3867-8419)로 하면 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옥천사 · (사)자연의벗연구소 업무협약

3월 5일, 독수리 먹이주기 환경살리기



경남 고성 옥천사(주지 마가)가 3월 5일 옥천사 경내 자방루에서 사단법인 자연의벗연구소와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을 통해 옥천사와 (사)자연의벗연구소는 템플스테이에서 독수리 먹이주기와 환경을 위한 생태활동교육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옥천사 주지 마가 스님,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해 양 기관 실무자와 신도들이 동참했다. 업무 협약식 후 참석자들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사찰문화를 체험하고 생명존중사상을 배웠으며 독수리생태관을 방문해 독수리 먹이 주기와 환경 교육을 체험했다.

주지 마가 스님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고성 지역을 대표하는 천년고찰 옥천사가 자연생태환경 보존에 앞장설 수 있는 기획을 얻었다"며 "템플스테이를 통해 명상을 배우고 쉼을 얻고 또 자연을 사랑하는 시간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사는 고성 탈 박물관과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가올 3월 25일 신도회장 취임식도 개최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해동고, 관세음보살 · 관음탱화 점안식

3월 2일, 교내 법당서



학교법인 영축학원(이사장 현문) 산하 부산 해동고등학교(교장 이수길)는 3월 2일 교내 법당에서 '관음보살 및 관음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의 증명과 통도사 염불대학원 원장 영산 스님의 법주로 점안식이 진행됐으며 이수길 해동고 교장, 안정수 법사 및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석했다.

교내 법당에 새롭게 모셔진 관음탱화는 진주 백운사 주지이자 영축학원 감사인 성구 스님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보시했으며, 관음탱화는 조계현 불화장의 작품이다.

현문 스님은 "관세음보살은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원하는 중생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복을 주고 가정에 평안을 주는 보살님이시다"며 "불상이나 탱화가 점안식을 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작품이지만 오늘 점안식을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게 됐다. 오늘부터 교직원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들이 관음보살님 앞에서 열심히 정진해 관세음보살님의 신력으로 소원을 성취하시고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매일매일 행복한 날들이 되시길 바란다"며 열심히 정진하길 당부했다.

이수길 해동고 교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2023학년도를 영축학원 이사장이신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을 모시고 관세음보살님과 관음탱화 점안식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인연에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인연을 바탕으로 우리 교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고자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지혜를 바탕으로 관세음보살의 마음과 자비를 실천하면서 학업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신흥사, 제7회 전국 학생 사생실기대회

3월 5일, 700여 명 참석



양산 신흥사(주지 호법)가 3월 5일 신흥사 경내에서 '제7회 전국 학생 사생실기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개회 및 인사말과 사생실기대회 주제 발표 등으로 이어졌으며, 양산 신흥사 주지 호법 스님, 이경희 한국미술협회 양산지부장, 노경희 전국유치원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참여한 초 · 중 · 고 학생 700여 명과 가족들이 참석했다.

주지 호법 스님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했던 사생대회가 오늘 개최해 감회가 남다르다"며 "학생들의 밝은 마음을 담는 사생대회로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가족들의 즐거운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학생 사생실기대회는 코로나 이전에 1200여 명이 동참하는 지역 대표 사생대회였으며 양산 원동의 매화축제를 장식하는 행사였다. 코로나 방역 해제 후 다시 시작을 알렸으며 참가 학생들은 신흥사를 배경으로 풍경화와 자유화 등을 그렸다. 시상 내역은 교육감상, 시장상, 국회의원상, 시의장상, 특별상이며 시상은 각 학교서 진행한다. 수상작품은 3월 11일 원동 매화축제 광장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 불곡사 취봉 스님 21주기 추모재

청소년 6명에 장학금 50만 원씩



불곡사는 3월 6일 불곡사 관음전에서 '취봉 스님 21주기 추모재 및 취봉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취봉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창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4학년 유주연 학생 등 6명의 학생에게 각각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장학회 대표 묵암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나눔을 좋아하는 불자들의 십시일반 모금에 감사하며 대표로서 책임감이 무겁다"며 "장학금은 스님과 사부대중의 마음으로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는 이웃이 되고 서로 동반 성장하고 소통하여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생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강원 취봉장학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취봉장학회 장학금 전달은 우리 이웃의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자비의 온정을 함께 나누는 행사"라며 "우리 지역의 사부대중 모두의 관심과 후원으로 불국정토가 이루어지도록 십시일반의 정성으로 계속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불교계 봄을 맞아 다양한 강좌개최

빛고을포교원 제2기 빛고을불교대학 경전반
증심사, '2023 빛고을불교아카데미' 강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아카데미'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코로나19 이후 광주지역 불교대학 등에서 다양한 불교강좌가 열리기 시작했다. 사진은 빛고을불교대학 입학식 장면.

코로나19 이후 광주지역 불교대학 등에서 다양한 불교강좌가 열리기 시작했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화엄사 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은 지난 3월 7일 제2기 빛고을불교대학과 경전반 입학식을 봉행하고 올 한 해 진행할 교육강좌 등을 시작했다.

총 70명이 등록해 이날 진행한 입학식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연성 스님, 이동배 정광고등학교 교장 등이 참여해 축하했다.

덕문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교는 자비의 종교이다. 자비심이 없는 믿음과 이해는 부처님의 정법이 아니다"며 "불교대학을 통해 올바른 정법을 배우고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는 아는 만큼 믿는 종교이다. 불교대학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입학한 신입생은 앞으로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기초교리, 경전 등 불교교리와 문화답사, 템플스테이 참여와 심화과정인 〈한글아함경〉 등을 공부한다.

△무등산 증심사(주지 중현)도 자비신행회와 공동으로 3월 14일부터 16주 동안 '2023 빛고을불교아카데미' 강좌를 개최한다.

'불교를 안다는 것, 한다는 것' 이란 주제로 진행하는 강좌는 주지 중현 스님의 불교와 종교, 역사, 불교와 힐링, 교리, 윤리에 대한 자세한 강의와 도인수의 불교문화강좌 등을 6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자비신행회 지혜홀에서 진행한다.

조영훈 증심사 기획실장은 "강좌는 교리와 더불어 요가, 참선, 문화답사 등 이론과 실습 위주로 진행하며, 누구나 궁금해 하는 불교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으며,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강좌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강좌는 불교입문 교양강좌를 겸해 일반인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강좌를 진행한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해청)도 4월 6일부터 '제3기 녹색불교아카데미' 를 개설해 환경과 불교교육을 진행한다. 강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불교기본교리, 호남불교사, 부처님의 생애, 대승보살의 삶 등 불교교육과 5번의 환경특강, 불교신행에 대한 다양한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심화과정으로 '제1기 녹색불교경전학교' 를 4월 5일 개강해 12월까지 니까야 합송, 금강경, 보리도차제론, 선시로 읽는 부처님 말씀, 예불대참회문, 환경특강 등을 진행한다.

이해모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은 "개설 목적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반한 불교환경운동을 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더불어 환경문제를 실천하는 고민을 넓혀내고자 진행한다"며 "앞으로 불교환경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의개설의 의미를 설명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침체되었던 지역불교계가 다양한 강좌를 통해 지역불교 포교에 나선다.

금산사 출가열반주간 특별정진 회향

미륵십선 천일기도 입재



금산사(주지 일원)가 출가열반주간 특별정진 회향법회와 미륵십선 천일기도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금산사는 3월 6일 열반재일을 맞아 금산사 방등계단에서 열반재일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보현사 주지 응묵 스님, 대전 죽림정사 주지 청암 스님, 금산사 재무국장 제환 스님을 비롯한 금산사 대중스님들과 불자들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금산사 방등계단에서 공양을 올리고 탑돌이를 하며 석가모니 부처님 출가의 의미와 열반의 의미를 되새겼다.

일원 스님은 "오늘은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열반재일이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방등계단에서 그동안 출가열반주간의 특별정진 회향법회를 봉행하게 됐다"며 "해마다 열반재일이면 이곳에서 탑돌이를 하며 부처님의 출가에서 열반까지 생애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열반재일 법회 후에는 미륵전에서는 '세계평화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한 미륵성지 천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은 법문을 통해 "요즘 세계는 전쟁과 지진, 살인, 방화 등의 뉴스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고, 환경파괴와 기후위기가 전 인류의 화두가 되고 있다"며 "금산사 조실로서 세계평화, 국태민안이 간절하여 오늘 미륵성지 천일기도 입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금산사에 미륵부처님을 처음 모신 5월 1일에는 미륵강탄재를 올리고 미륵십선계 수계법회를 할 예정"이라며 "미륵십선 운동을 통해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도록 세계평화와 기후위기 극복에 노력해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이취임식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해청)는 지난 3월 8일 나무숲센터 그린담 마홀에서 상임대표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원효사 주지 해청 스님은 제4대 상임대표로 취임했다.

해청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지금까지 해온 많은 사업들은 무등 스님을 비롯해 역대 상임대표 스님들과 구성원 모두의 노고가 많이 담겨있다"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무등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불교환경활동을 시작한 지 15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며 "뒤돌아보니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는 많은 회원들의 참여와 노력이 담겨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날 이임하는 무등 스님과 공동대표 수월 스님에게는 공로패가 전달됐다.

행사에 앞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제16회 광주공익활동가 자비의 쌀 나누기' 를 진행했다. 행사는 광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108명에게 각 백미 40kg씩 총 4320kg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자비의 쌀은 광주지역 사찰과 개인 후원자 들이 십시일반 기부한 쌀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쌍계사, 고산당 혜원 대선사 열반 2주기 추모재

3월 2일 진영 공개도


쌍계사가 3월 2일 팔영루에서 고산 혜원 대선사 열반 2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쌍계총림 쌍계사(주지 영담)가 고산당 혜원 대선사 열반 2주기를 맞아 추모재를 봉행하고 진영을 공개했다.

3월 2일 쌍계사 팔영루에서 봉행된 고산 혜원 대선사 추모재에는 주지 영담 스님, 전계제자 덕민 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들과 쌍계사 본말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추모재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고산 스님의 생전 가르침인 '잠시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 는 '불식촌음(不息寸陰)' 영상을 시청하며 생전 스님의 유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겼다.

고산문도회 문장 영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스님의 진영을 마주하고 보니 스님께서 항상 이 지리산 자락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우리 문도들은 물론 스님하고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한국불교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후학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쌍계사 영모전에 조성된 '고산혜원대선사 진영' 은 '전신정면의자상' 의 형식으로 경허 스님 초상화, 만해 스님 초상화, 법정 스님 초상화, 지관 스님 초상화 등을 조성한 김현철 작가가 1년간 작업했다. 김 작가는 "이번 초상화 조성에는 고산 대선사의 수행 정신과 신념, 불교계에 남긴 가르침 등이 잘 표출될 수 있도록 임했다"고 밝혔다.

쌍계사는 내년 3주기에는 고산당 혜원 스님께서 쓰셨던 방장실을 기념관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선양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1933년 경상남도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에서 출생한 고산 스님은 1945년 범어사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48년 사미계와 1956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5년부터 쌍계사에 주석하며 쌍계사를 일신하고 선, 교, 율, 차(茶)와 범패(梵唄)를 일상으로 실천하며 '불식촌음(不息寸陰)'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는 고산 가풍을 세웠다. 1999년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을 역임했으며 2006년 조계종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와 원로의원, 2008년에는 전계대화상, 2013년 9월13일에는 쌍계총림 초대방장으로 추대됐다. 스님은 2021년 3월 23일 법납 74년, 세수 88세로 원적에 들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백양사 前 방장 수산 스님 11주기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는 지난 3월 6일 대웅전과 조사전에서 前 방장 수산 스님 원적 11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고불총림 백양사 제3대 방장을 역임한 수산 스님(1922~2012)은 19세에 백양사에서 출가해 1941년 법안 스님을 위패상좌로 만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42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1944년 백양사 강원을 졸업한 후 백양사 운문암, 정혜사, 다보사 등에서 정진했다. 특히 대중포교를 위해 완도 신흥사, 불갑사, 개암사, 태백 흥복사 등 낙후된 사찰의 주지를 맡아 중창과 포교에 매진했다. 3번의 백양사 주지를 역임하며 근검절약과 공심으로 교구본사로서의 사격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후 불갑사에 주석하며 백제불교초전성지로서의 수행도량을 일구었고, 불교종립 정광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2012년 세납 91세 법랍 73세로 입적했다.

이날 추모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성오 스님, 백양사 무공 스님, 문도대표 진각 스님을 비롯해 본말사 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석했다.

주지 무공 스님은 "큰스님께서는 한결같은 청빈한 마음으로 수행과 포교, 도량을 가꾸시는 데 진력하셨다"며 "후학들의 모범이 되는 큰스님의 모습이 아직도 아련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불교대학 36기 입학식 봉행

불교학과 58명, 법사과 18명 입학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이 3월 5일 큰법당에서 '제36기 불교학과 및 제31기 법사과 입학식' 을 봉행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김석철 학인을 비롯한 불교학과 58명과 안수란 학인을 비롯한 법사과 18명 총 76명의 신입생이 입학허가를 받았다.

불교학과 이태곤 학인은 입학선서를 통해 "영예의 입학을 허가해 주심에 신입생 일동은 재학 중 학칙을 준수하고 참신한 학풍을 진작하며 불자로서 자질을 함양할 것"을 선서했다.

이창구 학장은 "불교대학의 공부는 콩나물에 물 주기와 같이 꾸준한 공부를 통해 자신을 키워나가는 것"이라며 "저와 함께 공부하며 자신을 키워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고 마음에는 평화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운사 동효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불교대학에서는 나를 바르게 알고 자신을 찾는 공부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공부는 혼자 하는 것보다 도반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잘 되니 많은 사람들을 입학시켜 함께 공부하자"고 강조했다.

김인석 총동문회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따뜻한 봄날에 불교대학에 입학하시는 여러분들을 축하한다"며 "새로운 도반으로 맺어지는 대학의 동문에게 전북불교대학에서는 부처님의 법향으로 환희로움을 줄 것"이라고 축하했다.

전북불교대학은 동효 스님(선운사), 법승 스님(정혜사) 법밀 스님(호암사), 법중 스님(통명사) 등 스님들과 이창구 학장, 백준기(전북불교대), 신용표(전북불교대), 이지복(전북불교대) 교수 등이 강사로 참여해 불교입문, 부처님의 생애, 근본불교, 대승불교, 불교문화, 불교인문학, 현대사회와 불교, 초발심자격문, 반야심경, 금강경, 불교의례 및 의식실수, 선의역사와 문화, 화엄사상과 법성게 등 다양한 교과과정과 템플스테이, 수계법회, 성지순례, 체육대회, 문화재답사 등의 강의가 예정돼 있다.

이날 입학식에는 선운사 동효 스님, 금곡사 가법 스님, 혜정 스님과 (사)부처님세상 백준기 이사장, 전북불교대학 이창구 학장, 신용표·이지복 부학장, 김인석 전북불교대학총동문회장, 장순금 전법사회장, 1회 김명심 졸업생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광사 명상상담大, 67명 수료·41명 입학

2월 26일, 2023년도 수료식
총무원장상·학장상 등 시상도



천태종 분당 대광사 부설 명상상담대학이 67명의 명상 전문가를 배출했다.

분광 대광사 명상상담대학(학장 월장 스님·대광사 주지)은 2월 26일 오후 3시 경내 지관전 3층에서 '2023년도 명상상담대학 수료식 및 입학식' 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문과정(1급) 41명, 심화과정(2급) 26명 등 총 67명이 3년 6학기 과정을 마치고 수료했다.

이 자리에서 학장 월장 스님은 치사를 통해 "수료생들은 오늘 취득한 자격증을 활용해 현대인이 겪는 스트레스와 자기소외 등을 심리 상담과 명상을 통해 치유해 주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나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과 주변 이웃이 행복해 질 수 있게 부처님 가르침과 상담대학서 배운 지식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전문과정 고규 수료생 등 40명, 심화과정 앙명석 수료생 등 25명에게 수료증서와 자격증서가 각각 전달됐다. 이어 월장 스님은 고규·양명석 수료생에게 총무원장상(신행상)과 이규남·성시락 수료생에게 학장상(정진상)을 수여했다. 이외에도 신재석 수료생 등 9명에게 우수상을, 김은희 수료생 등 9명에게 성실상을, 민홍동 수료생 등 9명에게 공로상을, 박윤정 수료생 등 9명에게 모범상이 각각 수여했다. 시상 후 졸업생들은 학장 월장 스님에게 명상상담대학 발전기금 2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수료식이 끝난 후 입학식도 진행됐다. 41명의 신입생들은 3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 명상·상담·불교 과목을 배운다.

김영환 총동문회장은 축사를 통해 "명상상담대학서 명상을 배우면 사소한 고민과 고뇌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입생 대표로 선서한 조내현 씨는 "평소 명상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서 대광사 명상상담대학에 입학하게 됐다"며 "앞으로 교수님들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따라 배우겠다"고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분당 대광사 명상대학은 3년에 걸쳐 6학기 과정으로 운영되며 불교교리를 비롯해 심리상담, 명상 등을 교과목으로 강의한다. 강의 수료후에는 명상상담지도사 1, 2급 자격증도 부여한다.

김주일 기자

군산 성흥사 소외계층위한 자비나눔

군산 교도소, 쪽방에 컵 라면 기탁



군산 성흥사(회주 송월. 주지 보위)가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계층을 위해 컵라면 250상자를 기탁했다.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과 김승수 성흥사 신도회장, 정동기 거사회장 등 신도회임원들은 3월 3일 군산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컵 라면 112박스를 기탁했다. 또 군산시 중앙동 주민지원센터에 100박스, 장애인 복지시설에 38박스를 기탁했다.

송월 스님은 "종교인들이 항상 소외된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사회의 목탁이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남구 군산교도소장은 "불교가 특히 재소자들 마음에 위안을 주는 듯하다"며 "재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에 복귀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성흥사에서 중앙동에 기탁된 컵라면 100박스는 쪽방촌의 독거어르신들과 장애인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티베트 대장경 논장, 첫 영어 완역본 출판

'8만4천 불전번역'2009년 작업돌입
16만1800페이지 완역은 사상 처음
100년 장기 프로젝트…25% 번역
"불자들 불교이해에 큰 도움 줄 것"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 대장경이 새겨진 목판을 확인하는 84000 불전번역의 연구원.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티베트 대장경을 번역, 보존 및 공유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비영리단체인 '84000 불전번역' 은 최근 티베트 대장경 가운데 논장의 첫 번째 텍스트를 영어로 완역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1일 국제 불교뉴스 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은 84000 불전번역의 공식발표와 함께 성과과정에 대해 보도했다.

티베트 대장경은 경율론 삼장을 둘로 나누어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장과 율장을 '깐규르(佛說部)', 논장을 '땐규르(論疏部)' 라고 칭한다. 이중 84000측이 번역작업에 들어간 논장인 땐규르는 총 16만 1800페이지에 달하며 그 동안 부분적인 번역들이 진행됐을 뿐 이번과 같이 체계적인 완역작업에 돌입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84000측은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을 통해 전한 발표에서 "우리가 이번에 완역한 땐규르는 〈성스러운 반야바라밀다: 10만송 · 2만5천송 · 1만8천송의 광대한 주석〉이다. 땐규르의 첫 번째 번역판의 출판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번역물은 우리 번역팀의 많은 구성원들이 헌신한 작업의 정수이자, 이 조직에 중요한 이정표다. 더 많은 이들의 정신적인 이익을 위해 티베트 대장경을 영어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비전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이번 주석서의 번역은 캐나다의 불교학자인 개러스 스페험 박사와 인도 대뿡사원의 방장인 게셰 롭상갤첸 스님, 다람살라 불교 변증법 연구소장인 게셰 깰상담될 스님의 공동작업으로 진행됐다.

84000 불전번역은 100년을 계획하고 진해중인 장기 프로젝트다. 84000측은 "티베트 대장경의 5%미만이 지금까지 현대어로 번역되었으며, 고전 티베트어에 대한 지식과 자격을 갖춘 학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귀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저 문화유산으로만 지킬 위기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지난 2009년부터 번역작업에 돌입한 불전번역은 현재 깐규르의 25%를 번역했으며 번역을 위해 옥스퍼드, 비엔나,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같은 해외 명문대들을 비롯해 인도와 네팔에서 전통강원 교육을 받은 스님들의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84000은 "깐규르가 광범위한 불교적 견해, 믿음, 수행의 원료라면, 땐규르는 이를 구성하고 체계화하는 탐구의 결과다. 이러한 주석서들은 어쨌든 그 근원이 되는 경전 번역작업의 일부이므로 장차 독자가 불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번역작업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논장의 번역작업은 독자의 이해에 가장 큰 도움이 될 단어별 주석에 집중하여 진행중이다. 프로젝트 번역팀은 "세 개의 광대한 〈반야경〉의 주석서를 내는 것은 큰 도전이었다. 현재진행 중인 다른 논장의 번역의 대부분은 밀교부에의 주석이며, 또 다른 〈반야경〉들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 논장들도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불자 색소폰 거장' 웨인 쇼터 별세

3월 2일, LA서…향년 89세
불교 철학가 · 평화운동가


사진출처=jazzradio.fr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미국의 전설적인 색소폰 연주자 겸 작곡가 웨인 쇼터가 향년 89세 나이로 별세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웨인 쇼터(Wayne Shorter · 사진)는 지난 3월 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별세했다.

쇼터의 홍보 담당자 알리세 킹슬리는 이날 "웨인 쇼터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눈을 감았다"고 언론에 알렸다. 사망 원인은 공개하지 않았다.

킹슬리는 성명을 통해 "선구자적인 작곡가 겸 색소폰 연주자, 시각 예술가, 독실한 불교 신자, 헌신적인 남편 · 아버지 · 할아버지였던 쇼터는 삶의 특별한 일부로서 또 다른 여행을 시작했다"며 "창조적인 가능성을 찾아 떠났다. 그는 호기심이 많고 끊임없이 탐구한 '온화한 영혼' 이었다"라고 추모했다.

1933년 뉴저지주 뉴어크에서 출생한 웨인 쇼터는 고교 시절부터 색소폰과 클라리넷 등을 시작했다. 그러다 1959년 정식 데뷔한 후 1950년대 하드 밥을 대표하는 밴드 '아트 블레이키의 재즈 메신저' (Art Blakey' s Jazz Messengers)와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 의 창립 멤버로 활약했다.

쇼터는 역대 최대 판매된 재즈 음반 중 하나인 '헤비 웨더' 를 비롯해 25장 이상의 앨범을 발매했다. 특히 2015년 '제57회 그래미어워즈' 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총 12개의 그래미상을 받았다.

특히 쇼터는 독실한 불교 신자로 유명했다. 불교 철학자이자 국제 평화운동가로서 활동하며 세계 54개국을 방문했고, 미국 전설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허비 행콕과 이케다 다이사쿠 SGI 회장과 재즈 · 불교를 주제로 나눈 대담집 '재즈와 불교, 그리고 환희 찬 인생' 을 펴내기도 했다. 해당 저서는 국내에도 번역 출간됐다. AP 통신 등 외신은 "쇼터가 남긴 노래들은 현대 재즈의 표준이 됐다"며 "그는 서정적이면서도 복잡한 선율의 재즈 작곡과 선구적인 색소폰 연주로 미국 음악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부탄, 현대 교육과정 접목 강원서 새 강사 탄생

강사스님 30명 2년 학위과정 마쳐
논문집 정식 출간…무문관도 입재


현대식 교육과정을 통해 강사 학위를 받은 부탄스님들. 사진출처=BBS 뉴스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에서 현대식 교육과정을 통해 30명의 새로운 강사스님들이 탄생했다. 3월 4일, 부탄의 'BBS 뉴스', '부탄 라이브' 등의 현지 언론들은 부탄 불교계의 새로운 발전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3월 3일 팀푸의 따시최종 사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30명의 스님들이 부탄불교의 지도자인 제 켄포 스님으로부터 강사 지위와 학위를 인정받았다. 이 스님들은 지난 2020년 부탄에 최초로 설립된 현대식 강원인 땁고 도르댄 불교대학의 고급 금강승 연구소에서 2년간의 학위과정을 마쳤다. 수여식에서 제 켄포 스님은 "이번에 졸업한 강사스님들의 연구 논문들이 실린 논문집을 정식으로 출판한다"고 밝혔으며 "책의 제목은 〈성취한 금강지(金剛持)의 정수〉로 명명한다"고 전했다.

땁고 도르댄 불교대학장인 툴쿠 땐진 왕뽀 스님은 "금강승 불교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다양한 선택권이 있다. 한 가지 수행법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면 다양한 수행법을 통하여 자신의 근기에 맞는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금강승 수행은 수행자로 하여금 일생 동안 깨달음을 얻게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에 목적이 있다. 또한 금강승 전통에서 수행과 함께 하는 의례의식을 봉행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기 위해 올바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급 금강승 연구소가 설립취지와 강사들을 육성하는 목적을 설명했다.

강사로 탄생한 졸업생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푸르빠 남갤 스님와 예쎄 도르제 스님은 아직 30대 초반의 나이로 두 스님 모두 "성공적으로 인증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불보살의 가피로 생각한다. 불법의 전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아 전했다.

남갤스님은 "왕실인사와 교계 큰스님들이 모두 자리하신 가운데 제 켄포 스님께 인증서를 받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이라 생각한다. 처음 과정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삼보의 가피와 교사진과 학생들의 합심 덕분에 모든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우리를 선례로 뒤따르는 후배스님들도 어려운 없이 학업을 이루길 바란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도르제 스님은 "금강승의 가르침을 많이 전수받고서 이 중요한 수행법들을 배운 후에 가능한 한 많은 지식과 지혜를 전파하고 싶다"면서 "다른 곳을 여행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러한 연구에 대해 공유할 수 있다면, 금강승 전통의 중요성을 널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를 졸업한 강사스님들은 대부분 3년 동안 무문관 수행에 입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학식과 수행을 함께 겸비하기 위한 일환이며, 일부 스님들은 다른 불교교육기관과 졸업한 불교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할 계획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서 대형 화재

1만2천여 이재민 발생…"화재 원인 파악 중"


사진출처=AP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지역의 로힝야 난민 캠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난 3월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께 11호 난민 캠프에서 큰불이 났다.

화재 직후 9개 소방대가 출동해 진화 작업에 나섰으나 불길은 약 2시간 가량 지속됐다. 결국 11호 난민 캠프에서 발생한 불은 인근 10번과 12번 캠프로까지 번졌다. 약 2000채의 집들이 소실돼 1만 2000명에 달하는 이들이 거처를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슬람 사원 35곳과 교육 시설 21곳도 화재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경찰은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집들이 대나무와 방수포 등 임시 거처 형태로 만들어져 화재 피해가 더욱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유관 기관들이 화재 복구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는 미얀마 라카인주에 모여 살았으나 미얀마 극우 불교단체의 탄압으로 대거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상태다.

방글라데시 남부 미얀마 접경 지역인 콕스 바자르에는 100만 명에 가까운 로힝야족 난민이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9월에는 미얀마에서 발사된 박격포탄이 이곳에 떨어져 로힝야족 10대 소년이 사망하는 등 미얀마 군부와 극우 불교단체의 탄압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방글라데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로힝야 난민 거주 지역에서 모두 222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60건은 방화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국보와 보물 불상, 불복장 유물 등 한자리에

2023 불교중앙박물관 기획전
'만월의 빛 정토의 빛'
3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관련 복장유물 28건 33점 전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성보 불상과 불복장 유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미등)은 3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2023 불교중앙박물관 기획전 '만월의 빛 정토의 빛' 을 개최한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에서 2022년 6월 23일 국보로 승격된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국보, 고려 1346년)과 2010년 4월 23일 보물로 지정된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보물, 고려 1274년 중수) 그리고 그와 함께 불복장 유물 28건 33점을 함께 전시한다.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을 조성하는데 동참한 1078명의 이름이 기록된 1058cm 길이의 발원문을 시작으로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을 수리하면서 천정과 혜홍 두 스님이 발원한 10개의 대원을 적은 중수 발원문, 비단 오색번, 사경, 변상도 등이 전시된다.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국보, 고려 1346년)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보물, 고려 1274년 중수)

복장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보는 불상과 복장유물이 별도 공간에서 소개되었던 기존의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불상과 해당 불상에 봉안되어 있던 복장유물을 한자리에서 함께 선보이는 특별한 전시라고 할 수 있다.

△1부 '만월의 빛' 에서는 국보인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을 주제로 장곡사 하대웅전에서 이운한 금동약사여래좌상을 비롯하여 1958년 처음 발견되어 2022년 국보로 승격된 1058cm 길이의 발원문(국보, 고려 1346년)과 비단 오색번(국보, 고려 1346년), 비단 주머니(국보, 고려 1346년)를 포함한 불복장 유물 13건 18점을 선보인다. 또한 불상 조성을 발원한 백운 화상의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금속활자본 영인본과 재현본을 함께 선보인다.

△2부 '정토의 빛' 에서는 서울 개운사 미타전에서 이운한 목조아미타불좌상을 비롯해 2010년 보물로 지정된 불복장 유물 중 9~12세기에 간행된 〈화엄경〉과 3점의 중수 발원문을 포함한 15건 15점을 선보인다. 특히 국내 최고 목판 변상도인 〈대방광불화엄경〉의 권제28 십회향품제이십오지육의 변상도(보물, 고려 11~12세기 추정)를 함께 선보인다.

불복장이란 '불상 안에 봉안한 물건' 을 말한다. 이는 고대 인도에서 불사리를 탑과 부처님 형상 안에 봉안하는 의식에서부터 시작했다. 이후 사리의 한계로 인해 법신사리를 모시는 형식으로 변화됐고,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전해지면서 그 형식이 좀 더 복잡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복장물의 종류도 달라지게 됐다. 한국불교의 불복장은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할 때 복장물의 종류와 양식 등에서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는 복장물을 통해 한국불교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 불복장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이나 일본이 사람의 장기모양을 만들어 복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오보병, 오륜존자, 입실지, 출실지, 사리함, 무고심주함 등 시공의 상징인 무량수와 무량광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복장물과 의식을 거친다는 것이다. 그것은 부처님이 언제 어디서나 중생들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상징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미등 스님은 "부처님을 형상화한 불상은 문화재적 관점에서 볼 때 성보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신앙의 대상이다. 신앙의 대상으로서 법당에 모신 불상을 법당 밖으로 옮긴다는 게 굉장히 힘든 문제다. 그래서 그동안 복장물은 전시가 가능했으나 불상과 함께 전시되는 일은 쉽지 않았던 것"이라며 "복장의식을 통해 비로소 예배의 대상이 신앙의 대상으로 전화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복장의식 안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의미의 전환이 가능한 것일까. 그런 것들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복장과 전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전시는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성보를 불복장 유물과 함께 공개하여 불성의 화현이자 예경의 대상인 부처님과 함께 그 안에 봉안되어 있던 발원문과 경문, 다라니 등을 통해 불복장의 가치와 의미, 한국 불복장의 특징 등을 새롭게 조명한다.

"향긋한 봄나물 활용 사찰음식 맛보세요"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
2023년 봄 신 메뉴 출시

조계종이 운영하는 사찰음식 전문점이 봄나물을 활용한 신메뉴를 3월 5일부터 선보였다.

발우공양은 매년 사계절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매번 다른 구성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봄 메뉴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보듬어 주는 향긋하고 다양한 봄나물을 활용하여 구성했다.

발우공양은 선식(禪食), 원식(願食), 마음식(念食), 희식(喜食), 법식(法食) 총 5가지 코스메뉴를 선보이며, 코스별로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게 했다.


발우공양 신메뉴 모습.

선식(禪食), 원식(願食), 마음식(念食)에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땅의 영양분을 가득 담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봄나물을 활용하여 '봄나물 설기' 와 '봄나물 두부들깨찜' 으로 겨울 동안 사라진 입맛을 돋우며, 봄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사찰음식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희식(喜食)과 법식(法食)에 더욱 다양한 메뉴 구성으로 봄의 시작을 알렸다.

희식(喜食)은 땅의 기운과 봄의 향을 머금고 있는 더덕을 활용해 '연근죽' 과 '봄 물김치' 그리고 '봄나물 튀김' 과 '봄나물 완자전' 으로 근기를 보충하게 한다. 법식(法食)은 어린 소나무 솔잎을 15년 동안 숙성한 '송차' 로 입맛을 깨우며 '봄순데침' '봄나물 겨자채' 로 쌉싸름하지만 계속해서 입맛을 돋군다.

발우공양의 모든 코스 마지막에는 봄에 즐겨먹는 '화전' 또는 '금귤정과' 그리고 '쑥차' 를 입가심(디저트)으로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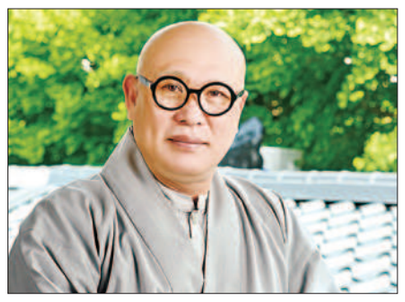
발우공양은 한국 사찰음식 식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대한불교조계종이 직접 운영하는 사찰음식 전문점이며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 원스타를 획득한 바 있다. (02-733-2081)

신성민 기자

제15회 불교문예작품상 승한 스님 수상

'천치의 저녁' 외 4편 선정

계간 〈불교문예〉가 수여하는 제15회 불교문예작품상에 승한 스님(한국불교신문 주필 · 사진)의 시 '천치의 저녁' 외 4편이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심사평에서 "승한 스님의 시는 환경파괴로 인한 각종 재해로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한다"며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성찰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고 평했다.

불교문예작품상은 문인들이 근년에 발표한 시, 시조, 소설, 수필, 동시, 동화, 평론 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불교문학계의 상이다.

작품상을 수상한 승한 스님은 198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및 200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각각 시와 동시가 당선됐다. 저서로는 〈수렵도〉, 〈퍽 환한 하늘〉, 〈아무도 너의 깊이를 모른다〉, 〈그리운 173〉 등의 시집과 〈나를 치유하는 산사기행〉 등의 산문집이 있다.

불교문예작가상에는 우정연 시인이 선정됐으며, 2023년 상반기 불교문예 신인상에는 신서영 시인과 김영성 작가가 선정됐다.

박재완 기자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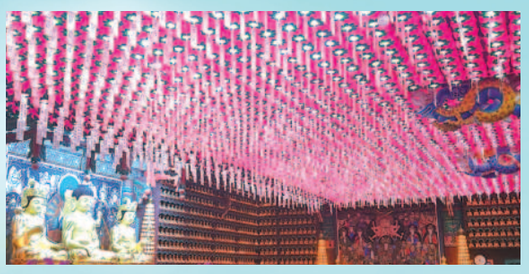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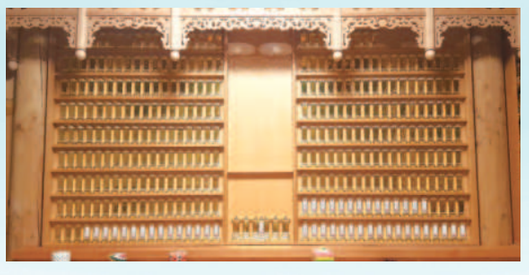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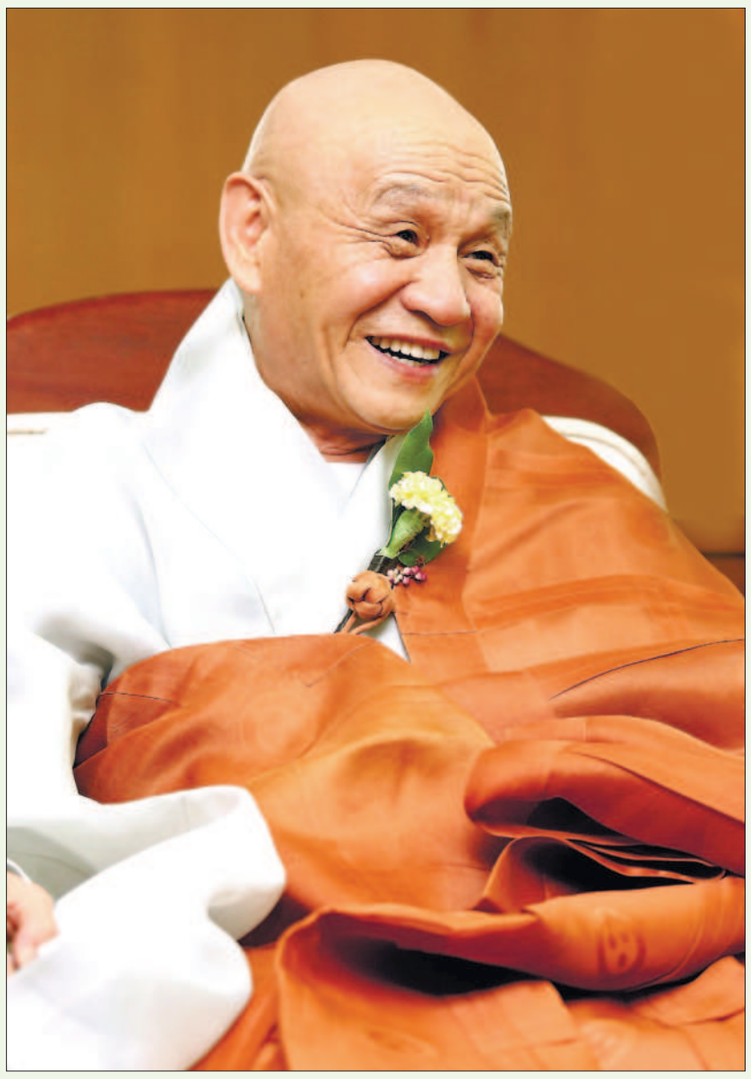
인 등


위 패


“수행은 더 나누고, 더 낮추고, 더 버리는 일”



설악무산의 방할
김병무 홍사성 지음
인북스 펴냄/2만2천원



사진=박재완 기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조오현(曺五鉉)으로 알려진 설악무산(1932~2018) 스님은 경남 밀양 출생으로 젊은 시절 금오산 토굴서 6년 고행 후 설악산 신흥사에서 성준 화상을 법사로 건당했다. 뒷날 신흥사 조실이 되어 설악 산문을 재건했으며, 조계종 기본선원 조실,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추대되었다. 만년에는 백담사 무문관서 4년 동안 폐관정진하다 입적했다. 저술로는 〈벽암록 역해〉 〈무문관 역해〉 〈백유경 선해〉 〈선문선답〉 등이 있다.

일찍이 시조시인으로 등단한 스님은 한글 선시조를 개척해 현대 한국문학사에 큰 자취를 남겼으며, 시집으로 〈심우도〉 〈절간 이야기〉 〈아득한 성자〉 〈적멸을 위하여〉 등이 있다. 이 책은 그가 백담사 무금선원, 신흥사 향성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하는 수좌들에게 설한 결제, 해제 법어들과 여러 다양한 법회서 대중들을 상대로 설한 말씀 등을 육성 그대로 집록하고, 각종 저서에 남긴 서문, 기고문, 서한,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수록한 법어집이다.

깨달음의 사회적 실천 강조한 선승의 방과 할

탐진치(貪瞋痴)에 빠지려는 자신을 경계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일상화한 스님에게 수행이란 고매한 무엇이 아니라 일상에서 ‘더 나누고, 더 낮추고, 더 버리는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 책의 제 1장 상당법어(上堂法語)와 제 2장 향상일로(向上一路)에서는 수행 목적이 단순한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깨달은 내용대로 살아가는 깨달음의 실천이 중요함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특히 화두 참선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수좌들에게, 옛 선사들의 화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세월호 유족들과 아픔을 함께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본받아 당면한 사회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일갈한 내용이나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대 졸업식서 행한 연설처럼 항상 지식을 갈구하고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세를 견지할 것을 질타한 법어는 세간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설악무산 스님이 남긴 ‘월인천강’의 가르침 조명
생전 상당법어와 설법 기고 서발문 대담 등 총집
시대와 고락 함께하며 세인의 존경을 받은 선승
“욕망 크기 줄여야 행복해진다며 동체대비 솔선”

촌철살인 독창적인 언구의 대문장가 체취

이 책의 제 3장 본지풍광(本地風光)과 제 4장 간담상조(肝膽相照)는 돌올한 문학인으로 한국 선시조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 스님이 자신이 저술한 저서의 서문과 기고문, 이영희 교수 등과 주고받은 편지글, 여러 문학인의 작품을 읽고 남긴 평설과 독후감, 지인들의 요청에 부응한 추천사 등이 망라돼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식당서 허드렛일을 하며 한국의 시조를 미국인들에게 소개해 찬사 받던 일화를 공개하는 글이나, 자신이 해제한 〈벽암록〉의 서문 ‘사족에 대한 변명’은 뛰어난 명문으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바 있다. 또한 생생하게 살아 있는 언구를 활용해 선후배 문인들의 서책에 남긴 촌철살인 문장들은 수준 높은 문학적 성취와 통찰력을 지닌 대문장가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엿볼 수 있다.

탁월한 안목과 거침없는 견해가 드러난 인터뷰

평소 국가지도자로부터 시골 촌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과 허물없이 교유했던 스님이지만, 신문과의 인터뷰는 극구 사양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만년에는 “부처니 깨달음이니 하는 것도 내버려야 하는 처지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상도 받고 신문에 나오니 머리에 뿔 돋은 짐승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자들을 꺼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스님의 명성을 듣고 끈질기게 대담을 요청해 마련된 인터뷰 자리에서는 대방무외한 거침없는 언행으로 무애자재한 모습을 과시했다. 스스로 낙승(落僧)이라고 자신을 낮추며 불교계와 세상을 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우리 시대 큰 스승의 모습이 실린 제 5장 산중문답(山中問答)은 그래서 소중한 자료이다. 5장 말미에는 미국 버클리대에서 교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교관과 문학세계를 펼쳐 보인 ‘영혼의 울림’이라는 대담이 실려 있다.

깨달음의 사회적 실천, 한국불교 나아갈 길

평소 스님은 깨달은 선승들이 많은데 깨달음의 삶을 사는 선승은 만나기 어렵다고 한국불교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욕망의 크기를 줄여야 행복해진다고 강조하며 동체대비를 솔선수범하며 살다 간 스님의 삶은 승속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동안 〈설악무산 그 흔적과 기억〉 〈설악무산의 문학 그 깊이와 넓이〉 〈설악무산의 불교 그 깊이와 넓이〉 등이 출간되어 설악당 무산 스님이 남긴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책에 실린 법문들로 앎과 삶의 일치를 추구한 그의 삶과 사상을 사무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절간에 진리 없고, 명산대찰에 선지식 없다”는 스님의 방(棒)과 할(喝)을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궁구하는데 좋은 법장(法藏)으로 삼자는 것이 열반 5주기를 맞아 이 책을 펴낸 엮은이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편역자

– **김병무**는?

시인으로 강원도 삼척서 출생했다. 2006년 〈유심〉으로 등단. 도서출판 불교시대사 대표, 성준장학재단 이사장 역임. 현재 만해사상실천선양회 감사를 역임했다.

– **홍사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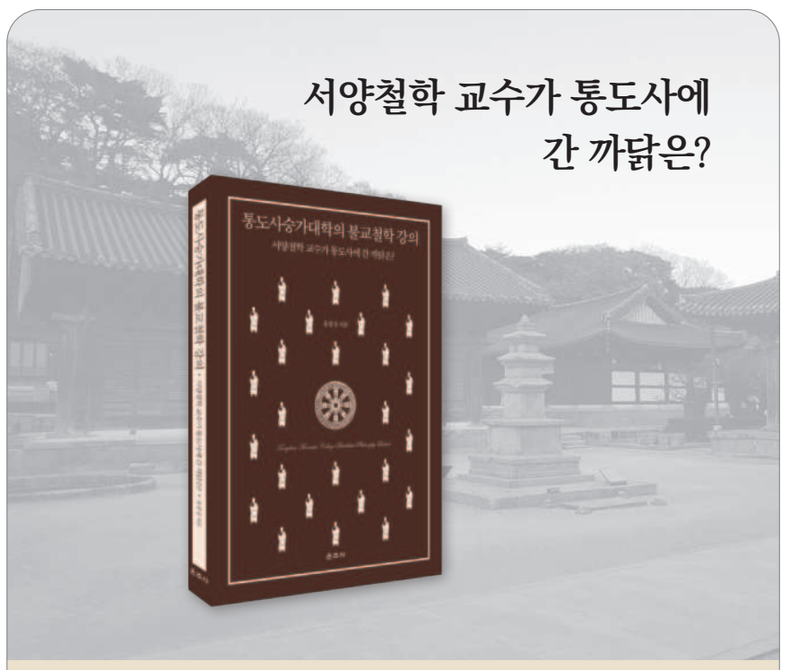
시인으로 강원도 강릉 출생이다. 2007년 〈시와 시학〉으로 등단했으며, 불교신문 주필과 불교방송 방송본부장을 역임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한국에는 깨달은 선승들이 많은데 깨달음의 삶을 사는 선승은 만나기 어렵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화두를 타파하면 부처가 된다고 합니다. 부처가 왜 존재합니까? 중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심의 근원은 중생입니다.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필요 없습니다. 중생이 없는데 부처가 왜 필요합니까? 프란치스코 교황 이분이 세월호 유족들과 고통을 같이하듯이 중생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승들의 화두도 오늘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우리 시대의 아픔들 그 우비고뇌(憂悲苦惱)가 화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p.31

오늘의 고통 중생의 아픔을 화두로 삼아야 합니다.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생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면, 몸에 힘을 다 빼고 중생을 바라보면, 손발톱이 흐물흐물 다 물러 빠지면 중생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됩니다. 중생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중생과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되어 사무치고 사무쳐야, 사무침이 다 해야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삼악도를 벗어나고 내 모습을 보는 이는 해탈”을 하는 것입니다. p.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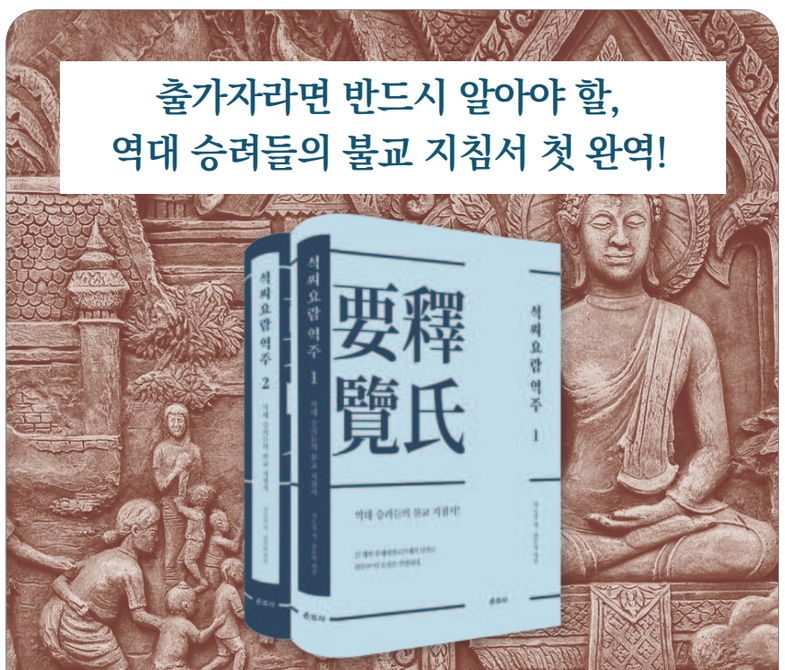
돌이켜보면 사내로 태어나 평생을 그렇게 허송했으니 중이라고 할 수도 없다. 오늘 망북촌(望北村)의 영마루에 올라 내가 나를 바라보니 어느덧 몸은 뉘엿뉘엿한 해가 되었고, 생각은 구부러진 등골뼈로 다 드러나고 말았다. 생각하면 조금은 슬프다. 누구는 약관에 ‘앉아서 천하 사람의 혀끝을 끊어 버렸다(坐斷天下人舌頭)’고 하는데 장발(杖鉢)을 지닌 덕에 산수간(山水間)에서 공양까지 받고도 불은(佛恩)에 답하지 못했으니 남은 것은 백랑도천(白浪滔天)의 비탄뿐이다. p.191



통도사승가대학의 불교철학 강의

불교의 전통적 가르침이 전승되는 한복판에서 서양철학적 사유와 비판적 시각으로 불교철학을 논하고 그 진리성을 증명하는, 진중하면서도 깊은 철학적 사유와 유쾌 발랄한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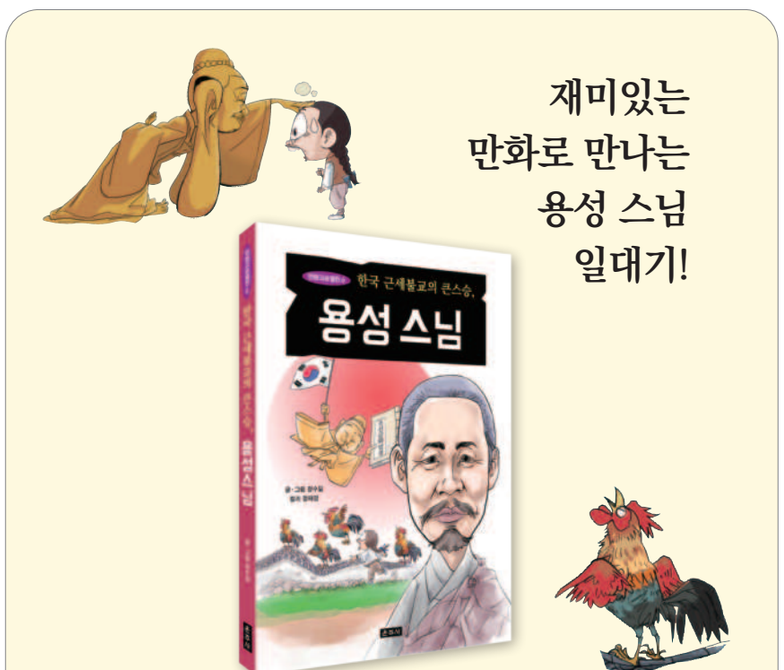
홍창성 지음/국판/248쪽/값 15,000원



석씨요람 역주 1·2

불교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불교 입문서이자 개론서! 출가자들이 불문에 들어와 생활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망라한 불교백과사전!

석도성 저, 김순미 역주/신국판/1권 448쪽/값 27,000원
2권 478쪽/값 27,000원



한국 근세불교의 큰스승, 용성 스님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로 참여한 독립운동가이자 불교의 근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선 한국 근세불교의 중흥조 용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그려냈다.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200쪽/값 16,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8~3/1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예수님은법받은미륵존여래불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2	부처님의생애(무선=보급판)2판	조계종교육원	조계종출판사	7	빠알리경전에의거하여엮은붓다의일생	비구 나아나몰리 편역	고요한소리
3	언제행복할예정인가요(자아와명상워크북1)	자목	모과나무	8	불교입문:불교로들어가는문	고영섭	씨아이알
4	금강경핵심강의	좋은인연	우학스님	9	부적의비밀:기원과상징의문화	자현/김재일 그림	모과나무
5	정혜결사문:선정과지혜로세상을밝혀야	보조지눌/원순 역해	법공양	10	무비스님신금강경강의(어플경전강의01)	무비 스님	불광출판사

책세상

이뭐꼬 화두 답은?…"결국 모든 존재는 아바타"



이 뭐꼬? 이것뿐!
월호 지음
불광 펴냄/1만 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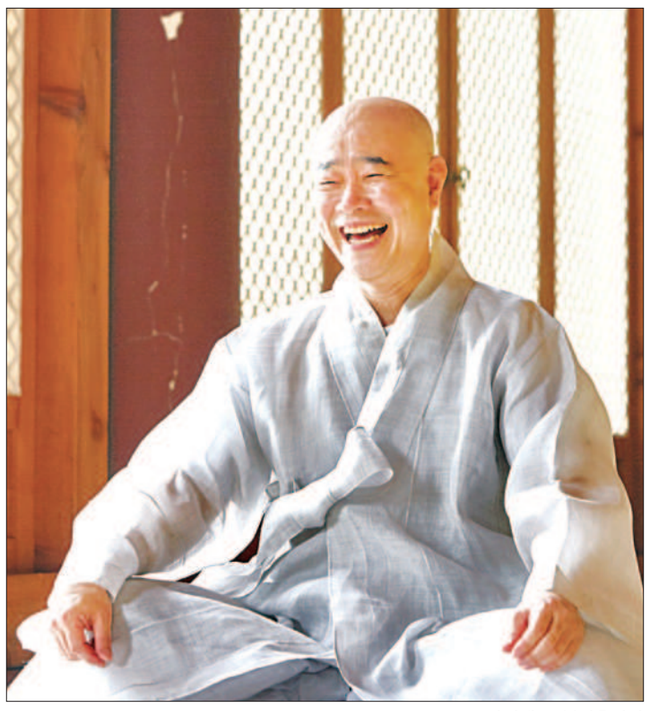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고통의 원인 중 하나는 우리가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는 몸과 마음, 그리고 눈앞의 현실을 '고정된 실체'라고 믿는 데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를 '꿈', '허깨비'와 같다고 이야기한다. 시시각각 늙고 병들고 죽거나, 생기고 머물다 소멸하는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집착을 거듭함으로써 고통스러워지는 것이다. 그동안 일반 대중에 맞춤한 참선법을 활발히 전해온 월호 스님〈오른쪽 사진〉은, 몸과 마음을 '아바타'에, 그리고 이 세계(우주)를 '메타버스(가상현실)'에 비유한다. 우리는 가상의 현실 속에서 배회하고 고통받는 하나의 아바타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월호 스님의 신간 〈이 뭐꼬? 이것뿐!〉에는 허깨비 같은 현실서 벗어나 고통으로부터 해탈하는 세 가지 처방을 권한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아바타 명상', 자존감 회복에 특화된 '바라밀 명상', 일생의 평화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행불 명상'이 그것이다. 이들 명상법의 핵심은 불안한 몸과 마음을 객관화해 대면 관찰하고(아바타 명상),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크고 밝고 충만한 성품을 발견하며(바라밀 명상), 부처의 몸가짐 · 마음가짐을 연습하는 것(행불 명상)이다. 그러면 어떠한 '나'도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무엇을 선택해도 좋다. 단계를 삼아 나아가도 좋다.

저자의 처방을 실천하기가 영 어렵다면 특유의 유쾌하고 명쾌한 문체로 풀어낸 이 명상 법문 안에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선택해 삶의 방향으로 삼아도 좋다. 그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나아가든 '월호 스님 표 명상'엔 메타버스 같은 세상 속에서 한바탕 아바타 게임에 몰두하는 '나'를 일깨우는 묘책이 담겨 있다. 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금강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꿈과 같고, 허깨비 같으며,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갯불과 같으므로 응당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토록 소중한 나의 몸과 마음은 물론, 보이고 느껴지는 내 눈앞의 현실과 세계 모두가 환상이라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인가? 바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모든 존재에 우리가 믿는 '고정된 실체'란 없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일반 대중에 맞춤한 참선법을 활발히 전해온 행불선원 선원장 월호 스님은, 그러한 이유로 나의 몸과 마음을 '아바타'에, 그리고 이 세계(우주)를 '메타버스(가상현실)'에 비유한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 펼쳐진 세계처럼, 우리는 가상현실 속을 배회하며 고통받는 하나의 아바타라는 것이다. 그럼 '진짜 나'는 무엇인가? 바로 고통스러운 현실(메타버스) 속에 존재하는 아바타를 관찰하는 자로서, 이미 크고 밝고 충만한 성품을 지닌 존재이다. 이로써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번뇌는 '진짜 나'의 것이 아니라 '아바타'의 몫이 된다. 이것이 월호 스님 표 명상 수행의 핵심 전제이다.



사진제공=불광출판사

우리는 가상 현실서 배회하고 고통받는 또 하나의 아바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 없어 그 어떤 '나' 만들 수 있어"
무한 가능성 지닌 존재로 거듭나게 한 '세 가지 명상' 소개

월호 스님이 권하는 세 가지 처방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에서 모피어스는 주인공 네오(Neo)에게 두 가지 알약 중 하나를 삼킬 것을 권한다. 파란색 약은 '매트릭스의 세계'에 그대로 머무는 약, 붉은색 약은 '진짜 세계'에서 눈을 뜨게 하는 약이다. 네오는 붉은색 알약을 삼키고 진짜 세계의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 완전한 존재(the ONE)로 추앙된다. 월호 스님도 이 책에서 '세 가지 알약'을 우리 앞에 꺼내 놓는다. 이 세 약이 〈매트릭스〉의 두 약과 다른 점은 무엇을 선택하든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고, 같은 점은 이를 통해 우리도 마음에 걸림이 없는 (본래의) 완전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처방 '아바타 명상'은 근심 걱정을 벗어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고 번뇌에 고통스러워하는 몸과 마음에 닉네임을 붙여(아바타) 관찰하는 것이다. 이때 '진짜 나'는 관찰자가 되어 객관적인 시각으로 생로병사와 탐진치에 점철된 '아바타의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객관화를 통하여 고통으로부터의 해탈로 나아가는 지혜를 얻게 된다. 두 번째 처방 '바라밀 명상'은 스스로를 결핍된 존재라 여기는 습관을 버리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자는 달의 비유를 사용한다. 어느 날은 초승달로, 어느 날은 그믐달로 보이는 달이 본래 보름달인 것처럼 관찰자인 '진짜 나'는 잠시 무명의 그림자에 가려 있을 뿐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함을 깨닫는 것이다. 저자는 그 방법으로 최상의 진언인 '마하반야바라밀'을 입으로 염(念)하고 마음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세 번째 처방은 '행불 명상'이다. 이는 부처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연습함으로써 일생의 평화를 도모한다. 예컨대 달은 항상 보름달이므로 초승달이나 그믐달이 굳이 보름달이 되려 애쓸 필요가 없다. 그때그때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 그뿐, 부처가 따로 있어 부처의 행(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행을 하는 자가 곧 부처인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여기'에서 평화로울 수 있다. 나아가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어 모두 해탈하도록 이끄는 것, 그것이 행불 명상이자 진정한 참선이다.

불교 명상의 새로운 패러다임

월호 스님 표 명상의 세 가지 처방은 일반의 대중화된 명상과 차별된다. 첫째, 일반 명상은 몸과 마음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해 그것의 실체 없음을 확인한다. 아바타 명상은 이에 더 나아가 실체 없는 몸과 마음을 아바타의 현상으로 분리해 대면 관찰함으로써 아바타가 겪는 고통과 번뇌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둘째, 일반 명상은 몸 보기, 마음 보기 등에 집중한다. 하지만 바라밀 명상은 처음부터 몸이나 마음 대신 본래 '보름달'인 '본마음 참 나'의 공(空)한 성품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일반 명상은 수행을 통해 깨달은 이, 즉 부처가 되고자 한다. 그러나 행불 명상은 부처의 행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래 부처에 입각해 닦는 수행이다. '우리는 본래 부처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그렇다.' 이를 굳게 믿고 '지금 부처'로 현성해 나아가는 것이다.

깨지지 않는 마음공부 바른길, 그릇 이론

하지만 초보 수행자에게 'the ONE'으로 거듭나는 길은 결코 만만치 않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초보자의 발심(發心)은 무쇠와 같아서 깨지기 쉽고 성취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그 발심을 강철로 거듭나게 하는 '용광로의 불'과 '대장장이의 단련'이 필요한데, 그것이 마음공부의 다섯 단계로서 저자가 고안한 '그릇 이론'이다. 불교에는 다양한 수행법이 공존한다. 그런데 서로가 부딪히기도 하고, 입문자들에게는 수행의 문턱에서 갈피를 잡기 힘든 경우도 있다. 그 주요한 원인은 수행상의 체계가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저자는 마음을 하나의 그릇에 비유하여 불교의 다양한 수행법을 하나의 체계로 구성한다.

① **그릇 비우기**
- 참회(懺悔)를 통한 자기 정화

② **그릇 채우기**
- 발원(發願)을 통한 자기 전환

③ **그릇 키우기**
- 기도(祈禱)를 통한 자기 확장

④ **그릇 없애기**
- 참선(參禪)을 통한 자기 확인

⑤ **그릇 만들기**
- 행불(行佛)을 통한 자기 창조

이 다섯 단계는 본격적인 마음공부를 위한 준비 단계(①, ②)로 시작해 일념(一念)과 무념(無念)의 성취를 이루고(③, ④), 마침내 자신의 삶의 창조자는 자신임을 깨닫는 단계(⑤)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 바른길로 하여금 우리는 마음의 주인으로서 매사에 감사하고, 지나간 과거나 다가올 미래에 연연하지 않는다. 오직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갈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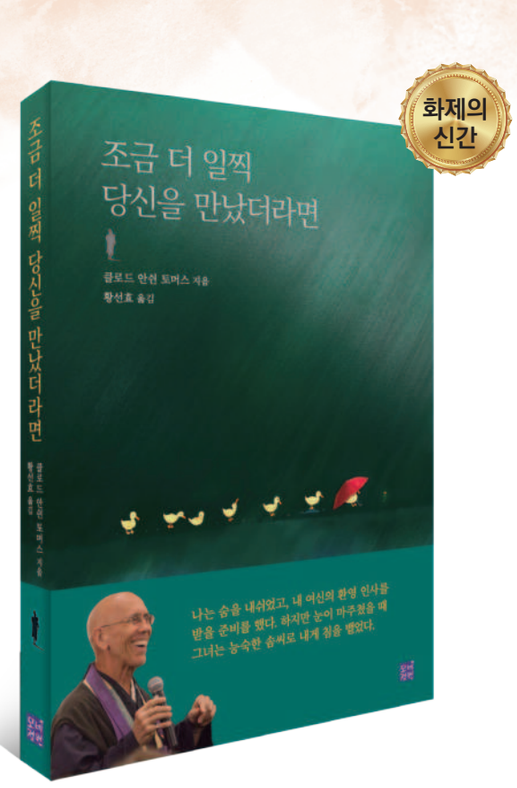
나아가 일체가 곧 '부처'임을 깨닫게 되므로 중생과 더불어 생동하는 삶을 살게 된다. 깨어 있는 삶을 살되 시비분별하는 입장이 아니라 관찰자의 입장에서 일체중생을 자비의 눈길로 지켜보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은 불교 명상 수행의 가이드이자, 명상 에세이이다.

저자 특유의 유쾌하고 명쾌한 문체 속에 행불사문으로서의 지난 공부 결과를 아낌없이 녹여냄으로써 '참 나'로 사는 길을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깨닫도록 하였다. 무엇을 선택해도 좋다. 단계를 삼아 나아가도 좋다. 저자가 제시한 처방의 퍼즐 조각을 맞춰나가기가 영 어렵다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선택해 삶의 방향으로 삼아도 좋다. 그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나아가든 '월호 스님 표 명상'엔 가상의 현실을 진짜 현실로 착각하게 하는 헤드셋을 벗고,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묘책이 담겨 있다.

▲저자 **월호 스님**은?

동국대서 묵조선과 간화선을 전공해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쌍계 총림 방장 고산 큰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전수받았다. 동국대 선학과 겸임교수, 해인사승가대학 교수, 쌍계사승가대학 학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행불선원 선원장으로서 한국참선지도자협회와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로 있다. BBS불교방송에서 〈월호 스님의 행불아카데미〉를 인기리에 진행하고 있으며, 월호 스님의 법공양 〈줄탁동시〉와 월호 스님의 게송명상 〈관찰자를 관찰하라〉를 통해 대중과 매일 스마트폰에서 만나, 미디어 전법에도 힘쓰고 있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9



▶한줄요약

어느 날부터인가 금어스님은 부처님을 그리지 않고 칼만 그리기 시작했다. 암자에 불이 나고 그날 금어는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스리나가르로 떠났다. 과연 그날 암자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조실스님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암자에 불 나던 날, 과연 무슨 일이…

뉴델리에서 며칠 ①

-부처님을 그리지 않고 칼만 그린다고 하여 아들이 설마 제 아비가 들어 있는 암자에 불을 질렀겠소.

그렇지요? 하는 말이 나오려다가 꿀꺽 넘어갔다.

-사실 누구에게 이런 말도 못 한다오. 칼이나 그리는 금어를 우리들의 시주로 받들었느냐고 할까 봐….

-그럼 종정 예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다시 묻는 내게 조실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드렸다오. 요즘 들어 이지안 금어가 이상하다고. 그리라는 부처님은 그리지 않고 칼만 그리고 있다고.

-그때 스리나가르에 있는 성물을 그린다고 말씀드렸나요?

-그렇소. 그런 것 같다고 했었소.

역시 싶었다. 종정 예하의 꿈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분명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조실을 향해 물었다.

-그때 이지안 금어스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고개를 들어보니 심 작가였다.

-아마 예순 여덟아홉은 되었을 게요. 이곳에 계실 때 신도님들과 농담하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렇군요. 그럼 고향은요?

이번에는 눈을 빛내고 있던 오오스마 기자가 물었다. 사원을 들락거리면서도 정작은 그의 고향조차 물어보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그러고 보니 올 때마다 박대당했거나 성실히 답을 해주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나서니까 얼씨구나 하고 달라붙은 것이 분명하다.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그를 앞장세워왔으니….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조실스님의 말을 기다렸다.

-고향은 모르오. 절간의 문화가 그렇지 않소. 세간에서 어떻게 살았든 그게 무슨 소용이오. 더욱이 그 양반은 기회가 있어도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는 원체 말이 없던 사람이었다오. 본시 지금의 종정 예하의 시봉이었는데 뒤늦게 심기일전하여 불화를 그리는 금어로서 일가를 이루었다고 알고 있소.

-그들이 머물던 곳에 양식을 가져다주곤 하셨다는데 그 전에 뭐 이상스러운 것을 발견했거나 느끼신 것은 없는가요?

말이 길어질 것 같아 내가 잘라 물었다.

-글쎄? 아, 그러고 보니 생각이 나는구먼. 언젠가 한 번 가보니 이곳에 한때 주석한 적이 있는 정우 스님의 딸이 올라와 있었소. 그 양반이 있는 방을 기웃거리는 게 영 느낌이 좋지 않았소. 그땐 한밤중이었고 그 양반은 그림에 몰입해 있었는데 열린 문틈으로 방 안을 쳐다보고 있는 처자의 눈빛이 마음에 걸리긴 했다오. 그날 그곳에서 묵고 다음 날 나오면서 제가 왜 돌아가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공양주가 사가에 두고 온 딸이라면서 가라고 해도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하더만요. 그때 알았지. 정우 스님과 공양주 사이에 난 딸이라는 걸.

-방금 딸이라고 했는데 그럼 공양주와 함께 들어왔겠군요?

-아니요. 정우 스님이란 분이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온 처자였소. 본시 조계 비구였는데 공양주와 눈이 맞은 모양이오. 공양주가 기르던 중 딸이 아비라고 찾은 모양인데 그래서 그 딸 데리고 이곳으로 나온 거 같소. 이곳에 데리고 있기가 뭐해 마을에 방을 얻어 주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소.

-왜 금어스님의 방을 기웃거렸을까요?

-지안 스님이 하도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하던 양반이라 관심이 있었을 테지.

-지안 스님의 방을 기웃거린 건 금어스님의 아들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문득 금어스님의 아들이 생각났는지 송 서화가가 말했다. 조실스님이 그것도 그렇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눈을 감았다. 그뿐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실스님은 더 이상 입을 열 기색이 아니었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목 밑에 좀 전부터 걸려 있는 말을 내뱉었다.

-이지안 금어스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날의 상황을 듣다 보면 아들이 아버지가 든 암자에 불을 질렀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물었다. 조실은 눈을 감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입을 열었다.

-물론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오.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소.

그렇게 말하고 조실은 그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정리해 보면 이런 말이었다.

그날 조실은 시자를 데리고 언제나처럼 이지안 금어가 있는 암자로 올랐다. 시내에 갔다 오는 길이었다. 천추사원을 짓기 위해 이 암자를 먼저 지었다. 머물 곳이 마땅찮았기 때문이었다. 사원을 지으려면 창고가 필요할 테고 일꾼들 숙소와 밥 먹을 곳이 필요할 터인데 마땅한 곳이 없었다. 천추사원을 짓기로 발원할 때부터 이지안 금어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므로 그의 작업실 또한 필요할 것이었다. 타국이다 보니 뭐 하나 수월한 것이 없었다. 먼저 인도로 들어온 이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암자를 먼저 짓고 사원을 짓는 데만 두 해가 걸렸다. 사원 건축은 일반 건축과는 다르다. 초석 하나를 놓아도 격식과 규칙이 있다. 전문적인 인력이 인도에 있을 리가 없다. 더욱이 조선식 사원 건축의 장인이 있을 리 없다. 한국에서 모셔 와야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었다.



어렵게 사원을 지었다. 이지안 금어는 아들과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곳에 들어와 있었는데 자신이 거처할 암자를 거의 손수 짓다시피 했다. 그래서일까? 탱화 작업이나 단청 작업이 끝났는데도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다른 사원의 단청작업이라도 맡아 하는 것도 아니었다. 천추사원의 단청작업까지 끝내고는 그때부터 들어앉아 이상한 그림이나 그려대었다. 여권의 연장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그저 고개만 주억거렸다. 그때마다 답답해 일어서 버리곤 했는데 그래서 한동안 뜸했었다. 아랫사람을 시켜 양식과 용돈을 보내곤 했었는데 이쯤해서 들여다보고 결판을 내야 할 것 같았다.

한동안 보지 않았던 길옆 가로수들 잎에도 물이 올랐다. 처음 이 터를 보러 올 때는 길도 없는 버려진 땅이었다. 잡풀이 무성했고 돌멩이 밭이었다. 채소 한 줌 키워먹을 수도 없는 땅이었다. 그 땅을 구해 일구었다. 텐트 하나 쳐놓고 눈만 뜨면 곡괭이와 삽을 들고 나섰다. 터를 개간하는 데 꼬박 반년이 걸렸다. 서울 본사에서 윗분들이 와 보고는 될 것으로 보이지 않았는지 성지 구경 타령이나 하다가 돌아가 버렸다.

그래도 신심을 잃지 않았다. 여기에다 수행의 쌍수(雙修), 합일(合一)을 이루어낼 전당을 짓고 말 것이었다. 어떤 종파든 이곳으로 와 하나가 되는 세상을 만들 것이었다. 아버지는 본시 전매청 직원이었다. 결혼하고 난 뒤 출가했다. 독실한 불자였던 어머니 때문이기도 했다. 둘째 아들이 열한 살에 급사했는데 어머니는 그때부터 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절에 살다시피 했다. 신앙은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이었다.

어머니의 신심에 감동한 아버지도 절에 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출가하고 말았다. 설마 남편이 출가하겠느냐고 생각했던 어머니는 그 후 아버지의 장애(障礙)가 되고 말았다.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아버지는 너무 맑고 깨끗한 모습이었다.

그는 어쩌다 집에 오면 예전의 아버지답지 않았다. 몸이 약해 병치레를 자주 하긴 했지만 털털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완전히 결벽증 환자로 변해 있었다. 먼지 한 톨을 보지 못했다. 감나무가 마당에 있었는데 잎이 떨어지면 그때마다 비를 들었다. 부정한 것을 보지도 않으려 했고 어머니와 한방에 들지도 않았으며 농도 하지 않았고 손도 잡지 않았다.

도대체 절간 생활이 어떠했기에 사람이 저렇게 변했을까 싶었다. 하긴 늦은 출가이긴 했다. 올깨기도 아니고 늦깨기다 보니 절 생활이 힘들었을 것이었다, 더욱이 큰스님을 모셨다고 했으니 절간의 엄격한 규율에 시달렸을 것이고 청정함이 몸에 뱄을 것이었다.

그렇다고 스님 된 것이 무슨 높다우한 벼슬이나 한 것처럼 군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스님이면 당연히 그래야지 하는 표정이었지만 아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느 날 보았다. 불 꺼진 방에서 홀로 울고 있던 어머니를. 아버지가 내민 이혼장. 그동안 아버지가 왜 집 출입했는지 비로소 알 것 같았다. 어머니는 그날 온전한 비구가 되고 싶어 하는 아버지와의 이혼장에 도장을 찍어 주고 울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아버지는 한 번도 집을 찾지 않았다.

나중에 깊이 생각할 나이가 되자 참 어설프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구가 비정(非情)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깨닫기 위해 출가를 했기 때문이다. 조상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그렇게 사가의 일체를 버리고 떠난 몸이다.

하지만 그가 어설픈 비구가 아니라면 어머니 손 한 번 따뜻하게 잡아주면 어디가 덧나는가. 부처님도 깨달은 뒤에는 고국으로 돌아와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다는데 규칙이 그렇다고 해도 그렇다. 비구가 못 되면 비구가 아닌가? 아니라고 하면 그 또한 굴레에 갇힌 것이 아닌가? 그렇게 비정하게 굴 것이 무엇인가? 그가 위없는 큰스님이 되었다고 한들 싶었다. 사랑하는 이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구하겠다? 세상을 구할 깨달음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얻어지는 것일까? 그렇게 얻은 깨달음으로 누구부터 구해야 하는가? 나와 너라는 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부처는 물 건너간 것일 터이다.

결국 세상을 위한다고 하지만 저 좋자고 하는 독각(獨覺)이 아니고 무엇인가. 진정한 보살을 내가 깨닫기 전에 지옥 중생이 있다면 그부터 구해야 한다. 그것이 구경(究竟)이다. 보살의 구경이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핵심이 아닌가?

그때 사랑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사랑과 자비가 어떻게 다른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것이 반목이었다. 비구의 비정은 사랑의 극치다. 사랑하기 위해 비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속적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보낸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래, 싶었다. 내가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저 무지다 싶었다. 모르기에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수행하다 위장병이 나 죽었다고 하자 어머니는 기일 때마다 수행하면서 못 먹은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지라 차려 올렸다. 스님이 된 후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주지도 않은 어설픈 비구가 뭐 이쁘다고 그러나 싶었다. 그래 바로 저것이 사랑의 본모습이지. 깨달음이란 병에 걸려 어설픈 비구 짓이나 하다 죽은 아버지. 그 아버지를 위한 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

나중에야 알았다. 그 맹목적인 사랑이 깨달음의 요체라는 것을. 그러므로 그것은 비구라는 굴레에 갇혀 사랑을 모르는 아버지의 무지를 덮었다. 〈계속〉





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❺ 공간 상징 下



▶한줄요약
모든 의례는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기에 본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의례 질서 또한 무너지게 된다.

근원〈體〉과 작용〈用〉은 새의 양 날개와 같아

'좌체우용'의 이치

'성인이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본다.' 이러한 배북향남(背北向南)의 방위는 동양문화권에서 공간을 인식하는 상징적 기준이다. 따라서 주존의 자리에서 봤을 때 좌는 동쪽이고 우는 서쪽이 해당하여, 이를 '좌체우용설(左體右用說)·체용설(體用說)'이라 부른다. 좌측(동)은 근본이 되고 우측(서)은 작용을 나타낸다는 뜻으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러한 원리를 살펴보자.

'영산회상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주변에 10대 제자를 그린다. 그 가운데 가섭존자와 아난존자가 짝을 이루어 배치되게 마련이다. 이때 부처님의 좌측에는 늘 가섭존자가, 우측에는 아난존자가 자리함을 알 수 있다. 두타제일(頭陀第一)의 가섭존자는 이심전심으로 부처님의 선법(禪法)을 전수하고, 법을 이어 교단의 우두머리가 된 제자이다. 따라서 체(體)에 해당하니 좌동(左東)에 노인의 모습으로 그렸다.

다문제일(多聞第一)의 아난존자는 부처님 곁에서 시봉하며 설법을 모두 기억해 교법(敎法)을 전수한 제자이다. 이에 젊은 모습으로 용(用)에 해당하는 우서(右西)에 자리하는 것이다. 가섭의 상징은 '근원'에 해당하여 동쪽에 두었다면, 아난의 상징은 '작용'의 의미를 지녀 서쪽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석가모니불과 양쪽 협시보살을 모신 '석가삼존' 또한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좌측에 오고, 실행을 상징하는 보현보살은 우측에 오게 된다. 문수보살이 상징하는 '지혜'는 양(陽)의 정신적 영역에 속하여 동쪽이고, 보현보살이 상징하는 '실행'은 음(陰)의 육체적 영역에 속하여 서쪽인 것이다.

가람배치에서도 이러한 구도가 잘 드러난다. 불국사에는 중문인 자하문 좌우로 연결되는 회랑 모서리에 각각 경루(經樓)와 종루(鐘樓)가 세워져 있다. 이때 경전을 모신 경루는 좌동에, 사물(四物)을 갖춘 종루는 우서에 배치하였다. 이에 대해 서치상 교수는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은 체(體)에 해당하고 중생에게 법음을 전하는 법구는 용(用)에 해당하여, '좌체우용'이 조영 원리로 작용한 것이라 보았다. 그 위치가 일정하니 이를 '좌경루 우종루'라 일컫는다는 것이다.

경루나 장경각이 있는 사찰은 많지 않지만, 범종각은 대부분의 큰절에 갖추고 있다. 각 사찰의 범종각 위치를 살펴보면 본전을 중심으로 우측인 서쪽에 자리하여, 체를 드러내는 용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동서 개념에서 자칫 동쪽을 우위로 여길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한쪽만으로 날 수 없는 새의 양 날개에 우열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보자면 머리와 가슴에 머무는 이상보다 발을 내딛는 실행이 더 중요할 수 있고, 때로 우선하는 의미에 따라 동서가 바뀌기도 한다.

부엌의 위치, 대방의 자리

사찰의 공양간은 민가의 부엌과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구조와 기능은 거의 같다. 그러나 출가 수행자들이 모여 대중생활을 하는 사찰의 특성에 따라, 일반 부엌과 다른 원리가 작동하기도 한다.

민가에서는 부엌을 여성의 공간이라 하여, 음(陰)에 해당하는 집의 서쪽에 두었다. 우리나라 부엌에 대한 초기기록으로 3세기경 『삼국지』「한전(韓傳)」·「변진전(弁辰傳)」에 '부뚜막[竈]은 대체로 서쪽에 위치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풍습은 이어져 『증보산림경제』에 "부엌을 서남쪽에 두면 좋지만, 서북쪽에 두면 나쁘다"고 하였다. 특히 부엌을 서쪽에 둘 경우,

동서·좌우 공간상징 살피는 건
전통·고전 질서 이해하기 위함
모든 의례 의미 부여하는 행위
본래 약속 잊으면 의례 무너져



사십구재에서 불단을 향한 '남동여서'의 자리

쌀을 일거나 밥을 풀 때 조리질·주걱질이 자연히 집 안쪽을 향하기에 복과 재물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담론도 전한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사찰의 부엌은 이와 반대의 방위를 취한다. '서승당 동고원'이라 하여, 선종 사찰에서는 남북축을 중심으로 스님들이 참선과 숙식을 하는 승당(僧堂)은 서쪽에 두고, 음식을 만드는 고원(庫院)은 동쪽에 둔 것이다. 그 이유는 서쪽은 손님의 자리이고, 동쪽은 주인의 자리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승당은 선방을 뜻한다. 선방 스님들을 '선객(禪客)'이라 부르듯이, 전국의 선객들이 찾아와서 석 달간 참선 수행하다가 안거를 마치면 모두 흩어진다.

이에 비해 사찰을 지키며 수행과 포교를 이어가는 본채 스님들은, 안거 때면 선방 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들어 뒷바라지하게 된다. 따라서 부엌은 곧 주인이 머무는 영역에 해당한다. 아궁이에 부뚜막을 설치하고 솥을 거는 것은 터전을 잡겠다는 뜻이다. 그 영역을 동쪽이라 보았으니, '동(東)이 곧 근원'이라는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부처님 좌우에 자리한 가섭존자와 아난존자 / 영산회상도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대방의 '청산'과 '백운' / 울산 석남사

당송시대 선원에서 총림의 직제를 동서(東序)와 서서(西序)로 나누면서, 서서의 소임은 방부를 들인 선객이 맡고 동서는 본채 대중이 맡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늘날 사찰 공양간의 방위는 절의 입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본채 스님들이 선방 스님들을 뒷바라지하는 구도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동서 관념의 적용은 대방의 자리 배치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진다. 발우공양을 할 때는 좌차(座次)라 하여, 법랍에 따라 앉는 순서를 엄격하게 지키게 된다. 대부분 한국사찰의 대방에는 불단을 마련하여 부처님을 모셔두고 있다. 따라서 불단을 북쪽으로 하여 맞은편에 사찰의 가장 어른인 조실(祖室)이 앉게 된다. 조실스님의 자리인 어간(御間)의 좌우에 법랍 순서대로 앉게 되는데, 이때 동쪽을 '청산(靑山)'이라 하고 서쪽을 '백운(白雲)'이라 부른다.

오행에 따르면 동쪽은 청색, 서쪽은 백색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찰에 상주하는 스님들을 '산처럼 자리를 지킨다'는 뜻으로 청산이라 하고, 동쪽에 앉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철 참선을 위해 찾아온 선방 스님들은 '구름처럼 머묾이 없다' 하여 백운이라 하고, 서쪽에 앉는다.

아울러 청산·백운을 중심으로 삼함·입승·지전·오관 등 여러 소임의 자리를 정하고, 이를 한지에 먹으로 써서 대방의 벽 아래쪽에 붙이게 된다. 이 가운데 '삼함(三緘)'은 총무·교무·재무의 삼직을 말한다. '봉할 함(緘)'자를 쓰는 것은, 행정과 관련된 일을 맡다 보면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 항상 몸과 입과 뜻[身口意]을 삼가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삼함 또한 본채 승려들이 앉는 청산 쪽에 오게 된다.

선방과 부엌, 산과 구름은 주인과 객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동과 서를 각각 '고정'과 '유동'으로 여기는 관념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남과 여, 생과 사

마지막으로 공간 상징에서 빠질 수 없는 남녀·생사의 방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남녀의 방위는 음양의 이치에 따라 남자는 양이니 동쪽에 오고, 여자는 음이니 서쪽에 온다고 하여 이를 '남동여서(男東女西)'라 부른다. 혼례에서 남녀의 위치는 북쪽의 주례를 중심으로 볼 때 남자가 좌측, 여자가 우측이 되니 이를 '남좌여우(男左女右)'라 한다. 따라서 남동여서는 남좌여우와 같은 말이다. 전통혼례에서는 주례를 따로 두지 않기에, 병풍을 두른 곳이 북쪽에 해당한다.

서양의 혼례에서 남녀의 방위는 이와 반대이다. 현대식 혼례는 서양의 풍습에 따라 행하여 신랑·신부의 자리 또한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 서양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왼쪽에 서는 것이 풍습이라 하는데, 복식과 의례공간이 바뀌었다고 하여 남녀의 위치까지 바꿀 이유는 없을 듯하다. 제사를 지내거나 어른에게 절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이다. 남녀가 나란히 서서 조상신이나 어른에게 절을 할 때는 남자가 동쪽에 오고, 여자가 서쪽에 오게 된다.

그런데 죽은 자의 세계는 이와 반대이다. 부부 양위를 함께 제사 지낼 때 남자의 신위(神位)는 서쪽, 여자는 동쪽에 모시게 된다. 묘에 합장(合葬)하거나 나란히 묘를 쓸 때도, 생시와는 달리 '여동남서·여좌남우'로 바뀌는 것이다.

이는 생과 사를 구분하는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음계(陰界)는 양계(陽界)와 다른 원리가 작동한다고 여겨, 비일상을 적용함으로써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금줄을 칠 때 일상의 전도(顚倒)를 나타내기 위해 오른쪽으로 꼰 평시의 새끼줄을 쓰지 않고 '왼새끼'를 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금줄을 쳐서 제의를 치르는 동안에는 일상에서 벗어난 신성한 시공간이 되어, 삿된 기운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조상신의 자리에서 볼 때 메(밥)와 갱(국)의 위치도 바뀌게 된다. 국을 좌측에, 밥을 우측에 놓음으로써 생전과 거꾸로이다. 예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에서는 대개 이러한 법도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메와 갱의 위치뿐만 아니라, 수저 또한 맨 좌측에 진설함으로써 이승과의 차별을 극대화하였다. 이러한 형태가 실제 관행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 주변에서 더러 본 적이 있다.

지금까지 동서·좌우 등의 공간 상징을 살펴본 것은 전통과 고전을 이해하기 위함이며, 오늘날의 우리 또한 이러한 질서 속에서 크고 작은 의례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의례는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기에, 본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의례의 질서 또한 무너지게 된다. 공간의 구조화는 의례의 거시적인 틀에 해당하니, 의례의 시공간에 독자적인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라 할 만하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❺ 존재를 보는 요령–삼신의 원리 (1)



▶한줄요약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대승경전 불신관의 시작이다. 대승경전과 관련 불교미술들은 법신의 자리를 기본으로 한다.

불교경전·미술 관통하는 기본, '三身의 원리'

〈법신(法身)→보신(報身)→화신(化身)〉

'물고기는 물을 아는가?' 즉, '물고기는 자신이 바다라는 공간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가' 라는 물음이다. 답은 '모른다' 이다. 단, 깨달은 물고기는 '안다.' 이는 '사람은 자신이 허공(또는 공간)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가' 라는 물음과 같다. 답은 '모른다' 이다. 단, 깨달은 사람은 '안다' 이겠다. 우리는 허공이라는 바탕 공간과 그 안의 기체(공기)를 매양 인식하고 살지는 않는다.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죽듯이, 사람도 공기가 없으면 죽는다. 하지만, 물의 바탕 공간, 공기의 바탕 공간을 일상에서 자각하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눈(육안)은 피사체(대상이 되는 물체)만 보기 때문이다. 그 피사체가 '존재할 수 있는 바탕' 은 보지 못한다.

존재의 바탕 자리 '법신'

비유하자면, 영상과 스크린의 관계이다. 우리는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피사체인 '영상' 만 보지, 그 영상이 비춰지는 바탕인 '스크린' 은 보지 못한다. 우리 스스로의 존재도 평생 그렇게만 봐왔다. '나' 라는 피사체만 보이고, 그것에만 평생 몰두돼 있다. '개체의 감옥' 에 갇혀 있는 것이다. 마음은 몸에 갇혀있고, 또 반대로 몸은 마음에 갇혀있는 상태이다. 맞물린 조건들의 작용과 압박에 갇혀 있다. 옥죄여오는 조건들의 억압을 우리는 팔자 또는 운명이라 부른다. 그래서 자유로운 바탕 공간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바탕 공간' 의 중요성에 대해 운운하는 이유는 '법신' 을 말하고자 함이다. 법신에 대한 깨달음은 '존재' 라는 것을 비로소 제대로 보게 한다. 〈반야심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글귀인 '전도몽상(轉倒夢想)'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이다. '전도' 는 바르게 또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뒤집어 보는 것을 말하고, '몽상' 은 헛것을 현실로 착각한다는 말이다. 여태껏 개체의식(또는 자의식)에 갇혀서 전도몽상으로 세상을 보았다. 즉, '나' 라는 '개체' 에서 '주변' 을 보았는데, 이제는 '전체' 라는 주변에서 '개체' 를 보는 방식으로 대적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법신과 하나 되면, 이윽고 우리는 기나긴 전도몽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평생토록 맹렬하게 헛발질한 고단함을 멈출 수 있다.

허공에 가득한 그저 '아는 마음'

사마타 수행의 결과로서 일경성(일경성에 대해서는 〈깨달음의 미학〉 연재 1, 2회 참조)을 체험하면, 바탕 자리에 눈을 뜨게 된다. 원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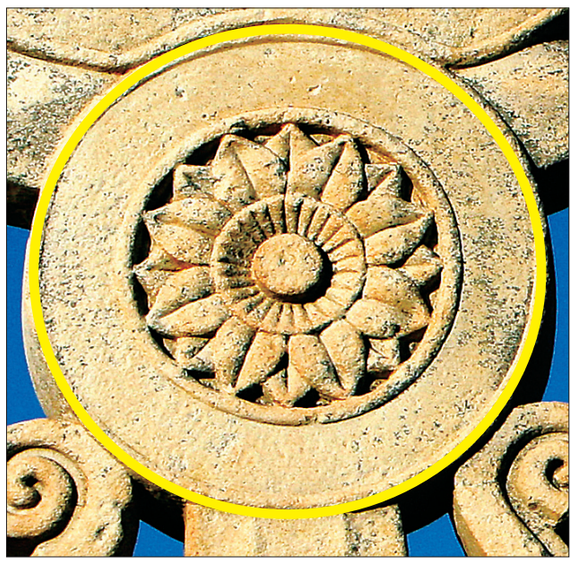
특정 대상(사마타 주제)에 집중→ 대상이 (솜구름처럼) 희뿌옇게 퍼진다(니밋따가 나타난다) → 대상이 투명해짐 또는 무량한 빛으로 변함 → 대상의 사라짐 → 대상에 붙어 있던 인식(나)도 사라짐 → 나와 대상(주체와 객체)이 모두 사라지면서 → 바탕자리와 하나 됨 또는 바탕자리가 드러남.



도판① '법신→보신→응신' 삼신의 원리가 적용된 초기 불교미술. 산치 제1탑 중 북쪽 탑문의 부분. 기원전 3세기 인도서 조성됐다.



도판② '법신' 은 탑문의 일원상으로 표현된다.



도판③ '보신' 의 모습은 연꽃으로 묘사된다.

처음에는 집중하는 나(주체)가 있고, 집중의 대상(객체)이 따로 분리돼 있다. 사마타 수행의 특징은 '나와 대상' 이 하나가 되게 집중을 몰아가면, 결국 주객이 모두 사라져 버린다는 것.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나' 라는 개체의식(자의식)에서 벗어나게 되고, '바탕의식' 으로 전환이 온다. '나' 라는 몸과 마음에 갇혀있던 의식이 광활한 바탕으로 풀려나게 된다. 위에 '바탕 공간' 또는 '바탕 자리' 등의 용어를 썼는데, 여기서부터는 '바탕 의식' 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한다. 그 이유는 바탕 자리의 성질 또는 성품이 '아는 마음' 이라는 '의식' 이기 때문이다. 대승불교에서는 이를 '법신' 이라 한다.

아름다운 해방, 진정한 휴식

드넓은 바탕을 인식하는 순간, '나' 라는 감옥에서 벗어난다. 바탕 의식으로 전환하면, 개체의식(자의식)은 먹통이 된다. 끊임없이 파도치던 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대승 佛身觀 시작
불교미술서 '법신'은 '일원상'으로 표현돼
초기 불교미술 산치대탑도 일원상들 조형
대승경전, 미술들 모두 '법신'의 자리 기본

온은 멈추고, 마침내 쉴 수 있다. 그 이유는 바탕 의식에서 보면 '내가 객관화' 되기 때문이다. 바탕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든든한 친구를 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언제든 바탕에 기대어 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바탕 의식(또는 법신)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그것은 '여여(如如)하다' '고요하다' '순수하다' '청정하다' '반응하지 않는다' '부동(不動)이다' 등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불교 신자라면 '여여하다' 라는 표현을 자주 들어 보았을 것이다. '여여' 는 '있는 그대로' 라는 뜻이다. 즉,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일체 분별하지 않는다. 분별하면 반응하고, 반응하면 흔들린다. 분별함이 없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를 '부동지(동요되지 않는 경지)' 라고도 부른다. 여여하게 보이기에 세상은 그저 평등할 뿐이다. 어떤 판단도 어떤 개념도 들어가지 않는다. 모든 것이 그냥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바탕의식을 '반응 없이 아는 마음' 이라고도 부른다. 일체 반응하지 않기에 오염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신 앞에는 '청정(淸淨)' 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어, '청정법신' 이라고 한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순수 의식' 이라고도 부른다.

중생의 마음(탐진치貪瞋癡)은 좋고 싫음의 분별과 반응으로 오염 일로이다. 반면, 법신의 마음은 무분별과 청정함으로 충만하다. 반응하지 않기에 오염되지 않는 이러한 성품은 '물방울과 연잎' 에 비유된다. 연잎 위의 물방울은 또르르 구른다. 연잎 위에서 퍼지거나 스미거나 섞이지 못하고 본래의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며 굴러다닌다. 물방울은 연잎의 돌기 위에 떠 있기에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 물방울이 연잎을 더럽히지 못하듯, 온갖 사물들이 바탕의식을 더럽히지 못한다. 하지만, 온갖 사물들은 바탕의식 속에 있고, 바탕의식은 이들을 고요한 적멸 속에서 그저 여여하게 알고 있을 뿐이다.

'나'와 '불교미술'을 보는 요령

이러한 바탕의식을 근본불인 '청정법신 비로자나' 로 설정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불신관(佛身觀)의 시작이다. 가장 오래된 대승경전인 〈8천송 반야경(Aṣṭa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에는 '법신(Dharmakāya)' 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다.

"(반야바라밀다는) 실로 여래들의 진정한 사리이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불타세존들은 법신이다. 하지만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결코 눈에 보이는 육신을 진신(眞身)으로 여기면 안 된다. 너희들은 나를 법신의 완성체로 볼 것이다.' 그래서 여래들은 반야바라밀다라는 궁극의 실재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세존께서는 진리의 완성인 '반야바라밀다' 를 '법신' 으로 규정하고, 본인도 '궁극의 실재로서의 법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불교미술에서 '궁극의 실재로서의 법신' 은 '일원상' 으로 표현된다. 초기 불교미술을 대표하는 산치대탑의 탑문 한 가운데에는 '법신' 의 '일원상' 이 조형돼 있다.(도판①) 코끼리가 등에 텅 빈 일원상을 떠 바치고 있다.(도판②) 일원상 안쪽으로 작은 돌기들이 둘러있기에 법륜이라고도 추정되지만, 법륜 역시 일원상의 '원(圓)' 을 기본으로 한다. 법신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청정한 에너지를 보신이라 한다. '보신' 은 불교미술에서 '연꽃' 으로 조형된다.(도판③) 그리고 연꽃에서, 중생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응신' 이 일어난다.(도판①)

종합하면, 삼라만상이 존재하려면 우선 바탕 공간이 있어야 한다. 바탕 공간에는 바탕 의식이 있다. 바탕 의식을 법신이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나를 보면(자의식에서 바탕 의식으로 전환이 일어나) 내가 객관화되어 보인다. 그 결과 호흡은 자연호흡으로 돌아오고, 초연한 평화가 온다. 모든 대승경전은 법신의 관점에서 쓰여 있다. 그리고 모든 불교미술도 법신의 자리가 기본이다. 그래서 이러한 바탕 자리를 깨닫게 된다면, 경전이든 미술이든 그 원리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불교경전과 불교미술의 참으로 방대하고 유구한 전통을 관통하는 것은 '법신→보신→응신' 의 삼신(三身)의 원리이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종 합 향 : 130.000원
• 선 향 : 80.000원
• 불 향 : 10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 가루향(도향) : 90.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3개월 속성 교육 (제68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개강일시 : 2023년 4월 6일 (목요일) 오후 3시 (목탁, 필기구 지참)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영상녹음 이메일자료 발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문자 접수 가능)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net FAX : 02)737-5305

이안의 Media In Buddha ⑪ 미얀마 영화 〈법복〉



▶한줄요약
웨 라 아웅 감독의 〈법복〉은 이미 2016년에 미얀마에서는 군부에 의한 지금의 폭력적 탄압을 내다보고 경고한 영화다.

진정한 求道 의미를 묻다

지난 2월 1일은 미얀마 신군부 쿠데타 2년 되는 날이었다. 지금까지도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가 지속되면서 폭력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미얀마에서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도시는 확실히 군부가 장악했지만 국토의 35% 정도, 도시에 사는 인구는 95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18%에 불과한 미얀마 특성상 완전한 군부의 지배도, 완전한 쿠데타 진압도 이뤄지지 않고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 지역 말고 나머지 산악이나 변방 지역에서는 군부와 민주진영 간 교전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기간에 이미 심하게 사회 전체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발생한 쿠데타의 여파로 환율 및 유가, 물가가 모두 두 배 이상 뛰게 되었고,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범죄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미얀마 국민들은 삶은 바닥 모를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부의 탄압을 피해 국경이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늘어만 가자 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는 여권발급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한 민간인 수는 2950여명, 그리고 구금된 민간인은 1만38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숫자가 이 정도이고, 여전히 교전 중인 지역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습과 탄압이 지속 중이기 때문에 실제 희생자는 발표된 숫자보다 많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얀마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 지속적으로 중립외교정책을 표방해왔으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침공을 공식 지지하면서 현재 러시아로부터 군수 물자 및 석유와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군부 체제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이후 UN 및 국제사회가 보인 행동이라고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핑계로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수준 정도가 고작이었다.

사실 미얀마가 이토록 어려워진 것은 국제사회가 저지른 잘못 때문이다. 전체 인구의 90%, 그러니까 열에 아홉은 불교도인 나라 미얀마는 국토면적이 대한민국의 6.5배로 매우 넓고 인구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5400만 명 정도이지만 국토의 불균형 발전으로 최빈국으로 지정된 나라다. 원래 가난해서가 아니라 제국주의 시대에 벌어진 침략 때문에.

1885년 영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나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발전해 오던 불교국가 미얀마는 인도의 일개 주로 전락했다. 영국은 불교를 미얀마의 국교로 계속 인정할 것을 거부하면서 미얀마인의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1937년 영국이 미얀마를 인도에서 분리시켰지만,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일본에 점령당했으며, 1948년 초까지 다시 영국의 통치를 받아야 했다. 미얀마의 혹독한 현재는 근현대사 인류가 저지른 전쟁과 침략의 업이 쌓인 죄과인 것이다.



웨 라 아웅 감독의 〈법복〉의 한 장면. 평화 시위에 대한 군부의 폭력적 진압을 피하기 위해 숨어든 집에서 이슬람 여인에게 보살핌을 받는 스님의 모습.

2년 전,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특별한 영화가 특별한 자리에서 상영됐다. 〈법복〉이라는 미얀마 영화가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영화제 위원장들이 모인 기자회견 자리에서 상영된 것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던 그 시기, 대부분의 영화제들이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치러졌다. 전주국제영화제 역시 상영행사를 치르기는 했으나 일반 관객의 참여를 제한하고 관계자들만 모여 극장에서 무관중으로 상영하면서 일반 관객들 대상으로는 온라인 상영 플랫폼을 열어 어렵게 초청한 영화들을 소개했다. 이런 힘겨운 상황에서 미리 초청된 인사들과 보도 신청을 해서 사전에 명단에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개막식에는 모처럼 레드 카펫도 깔렸다. 그러나 전주국제영화제 들머리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된 건 영화계 유력 인사나 스타가 아니라 '미얀마'였다.

2020년 전주국제영화제가 미얀마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정당한 저항을 지지하는 한국 영화계의 뜻을 모아 영화제 기간 중에 발표하려고 준비를 한다는 소식에 현장을 찾은 미얀마 사람들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연대에 대한 호소와 한국영화계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피켓과 현수막에 새겨 들고 개막식이 열리는 소리문화의 전당 앞에 서있었다.

부산 · 전주국제영화제서 상영된 〈법복〉
미얀마 군부 폭력 진압에 피신한 승려
이슬람 복장 입어야 상황서 화두 던져
"현 미얀마서 불교는 어떤 의미인가"
오늘의 미얀마 민주화 위해 기도하자

눈을 마주치게 되면 마음도 마주치게 되는 법. 미얀마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는 행사장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 간절한 마음을 담고 영화제를 시작하는 이상 한국영화계는 그저 연대 성명서 발표나 연명한 영화인들의 이름을 밝히는 것 이상의 무거운 책임감을 전주국제영화제라는 자리를 통해 함께 감당하고자 준비했다.

그 자리가 바로 개막 바로 다음날인 30일에 열린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기자회견이었다. 미리 연대 성명을 준비한 국제영화제 위원장들 가운데 소모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가 함께 했다. 국제영화제들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영화계 주요 단체는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해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이와 같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시민들의 무차별 학살을 규탄한다. 특히 사실을 알리려는 영화인들을 탄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군부는 지금까지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를 위한 바람을 끔찍하게 짓밟고 있다. 미얀마 시민은 군부 폭력과 살상 속에서 다양하고 창조적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으며 이길 때까지 싸우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영화를 통해 대안적,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해 문화예술의 자율성 연대 기구를 만들겠다.'

선언문 낭독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소모뚜 공동대표는 "미얀마의 미래가 밝다.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다. 한국 언론이 지속적으로 보도해줘서 고맙다. 지금은 힘들고 아프지만 앞으로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주화 운동을 계속해 나갈 미얀마 사람들의 입장을 전했다.

기자회견의 진짜 주인공은 '영화'였다. 바로 미얀마 영화 〈법복〉과 〈버마의 봄〉이 상영된 것이다. 〈법복〉은 극영화고 〈버마의 봄〉은 다큐멘터리 영화다. 18분짜리 극영화 〈법복〉은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미 상영된 적이 있고 5분짜리 다큐멘터리 〈버마의 봄〉은 누구나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공개된 최신 영상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은 성명서와 인터뷰 사이사이 이 영화들을 보면서 뉴스로 보는 것보다 진한 미얀마의 현실을 아프게 느꼈다.

특히 웨 라 아웅 감독의 〈법복〉은 이미 2016년에 미얀마에서는 군부에 의한 지금의 폭력적 탄압을 내다보고 경고한 영화였다. 영화의 배경인 시기는 2007년, 가사를 두른 승려들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함께 행진하며 거리에 모여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한다. 이들은 군부 정권의 에너지 보급 감축에 항의하기 위해 나선 길이다. 아마도 시민들은 승려들이 나섰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도 있었으리라. 그리고 승려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그들을 에워싸고 함께 행진했으리라.

그런데 군대는, 군대를 앞세운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폭력으로 답한다. 최루탄을 쏘고 곤봉으로 후려치는 군인들에 쫓긴 승려와 시민들이 피 흘리며 흩어져 주변 집들의 문을 두드린다. 그러나 겁에 질린 사람들은 문을 쉽게 열어주지 않는다. 이들을 따라온 군인들에게 하나둘 잡혀가는 다급한 상황에서 한 젊은 승려에게 한 집에서 문을 열어준다. 그런데 문을 열어준 사람은 젊은 여자, 그것도 이슬람 복장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다. 서로 당황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잠시 갈등하던 젊은 집주인 여자가 승려를 집으로 들인다.

집에 들어갔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법복인 가사를 입고 있는 승려는 뒤쫓아와 집집마다 수색하는 군인들이 들이닥치는 순간 바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순간 젊은 여성이 승려에게 이슬람 복장을 내주며 갈아입으라고 한다. 그러나 승려는 거부한다. 승려는 여성에게 당신도 자신의 종교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지 않느냐면서 법의는 자신의 목숨과도 같기에 벗을 수 없다고 거절한다. 그러자 여성이 단호하게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두건을 벗어 보인다.

곧 군인들이 그 집에도 들이닥치지만 옷을 갈아입은 승려는 무사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슬람 종교 행사에 참여하러 나갔던 여성의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에 승려는 그 집을 떠나야 한다. 이슬람 복장을 하고 나선 승려는 무사히 군인들의 검문을 벗어나 다시 법복으로 갈아입는다. 그러나 곧 통행금지로 군인들만 돌아다는 거리에서 한 군인에게 발각되고 눈이 마주친다. 법복은 옷인가, 존재인가, 믿음인가? 법복을 입은 승려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현재 미얀마에서 불교가 어떤 상황인지를,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 미얀마가 어떤 상황인지를 묻는다.

이슬람 옷을 벗어들고 법복으로 갈아입은 승려가 뚜벅뚜벅 돌아가는 밤길이 안전하기를, 그 안전함이 미얀마 국민들 모두에게 미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법복〉과 함께 상영된 〈버마의 봄〉을 영화제에 참석한 사람들 뿐 아니라 대중들 모두가 2년 전 약속한 지지와 연대를 잊지 말고 한 번씩 다시 찾아보기를, 오늘의 미얀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청한다.

〈영화평론가〉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0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문화사업단	구광국	T 02-2004-8213	H 010-3048-400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삼매 속에서는 모두가 공화다

〈空華〉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⑩ 삼매의 언어

〈원문〉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고하셨다.

"시방의 여래와 그리고 큰 보살들이 머무는 삼마지 가운데서는 견(見)과 견연(見緣)과 아울러 생각하는 상(相)이 허공의 꽃(空華)과 같아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 견(見)과 연(緣)이 원래 보리의 미묘하고 청정하고 밝은 본체이니 어찌 이 가운데서 옳은 것(是) 그른 것(非)이 있겠느냐? 문수여, 내가 지금 너에게 묻노니 네가 문수인데 다시 문수라 할 문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예 세존이시여, 제가 참 문수이면 그만이지 문수라 할 문수가 따로 없나이다. 왜냐하면 문수라 할 문수가 있다면 두 문수가 되겠나이다. 그러나 오늘 문수가 없는 것 아니오니, 이 가운데 옳은 문수, 틀린 문수라 할 시(是)와 비(非)가 없나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이 미묘하고 밝은 견(見)과 허공과 진(塵)도 그러하여 미묘하고 밝은 위없는 보리의 깨끗하고 원만한 참 마음이니라."

〈강해〉 부처님의 말씀을 삼매의 언어라고 말한다. 지혜의 말씀, 자비의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는 듣는 중생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 설법하는 부처님은 언제나 삼매의 경지에서 법을 설하므로 삼매의 언어라 하는 것이다. 문수보살에게 일러주는 부처님 말씀에 '불보살이 머무는 삼마지 가운데서는 견(見)과 견연(見緣)과 생각하는 상이 허공의 꽃(空華)과 같다' 고 하였다. 삼마지는 삼매이고 견(見)은 정견(精見)이며 견연(見緣)은 색진(色塵) 등 육진경계(六塵境界)이다. 생각하는 상(相)이란 육식(六識)과 육근(六根)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분별 시비가 일어나는 주관과 객관의 두 영역인 십팔계(十八界)의 경계와 식정원명(識精元明)까지도 눈병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공화(空華)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진(眞) 과 망(妄)이 모두 헛것이라는 것이다. 깨달은 경지에서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는 말처럼 선정 가운데서는 능소(能所)의 상대가 없다는 말이다. 보리의 청정한 본체에는 시(是)도 없고 비(非)도 없다고 한 것은 차별이 없는 절대의 경계를 드러내는 말이다. 허공의 꽃은 본래 없는 것이지만 눈의 착각에 의해서 보이는 것처럼 주객이 나눠진 일체의 분별은 참 마음을 모르는 망심(妄心)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진(眞)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망(妄)을 부정하지만 진(眞)이 있으니 망(妄)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깨달음(悟)이 있기 때문에 미혹(迷)이 있는 것이다. '색불이공 공불이색(色不異空 空不異色)' 에서 색을 부정하여 공으로 보다가 다시 공에서 색을 찾아내는 논리와 같다. 공관(空觀)과 가관(假觀)을 상통(相通)시켜야 중관(中觀)이 되는 것이다. 중관이 곧 중도(中道)다.

〈원각경〉에서는 '환으로써 환을 닦는다(以幻修幻)' 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의 뜻은 부처의 경지에서는 부처라는 것도 허깨비(幻) 같은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견(見)과 견연(見緣)이 허망한 허공 꽃이지만 동시에 진실한 보리 그 자체라 하여 망(妄)을 진(眞)으로 전환시켜 놓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 대목의 결론이다. 문수를 불러 놓고 네가 문수인데 다시 네게 시(是)문수 비(非)문수라 할 게 있느냐는 뜻으로 물었다. 문수 하나를 놓고 이건 진짜 문수 저건 가짜 문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 이렇게 물은 것은 본래 진(眞)과 망(妄)이 따로 없다는 뜻에서이다. 진망이 나눠지는 것은 미혹에 의해서라는 것이다.

불교는 이 세상을 부처의 세계로 보자는 주장을 내세운다. 〈화엄경〉 대의에서도 '두두(頭頭)가 비로(毘盧)요 물물(物物)이 화장(華藏)이다' 는 말이 있고 유심정토를 내세우는 말에도 '이 세상이 극락이다' 는 말도 있다. 비록 중생의 세계가 미혹의 세계이고 망(妄)의 세계이지만 이것은 중생의 미혹에서 나온 결과라는 것이다.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 부처의 세계요, 진여의 세계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무학대사와 이성계 사이에 있었다는 말인 '부처의 눈에는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로 보인다' 는 농담 같은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지 않은가.

〈반야불교연구원장〉

장부 순화는 중심 세우는 것부터…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⑩ 육장의 순화

선정의 단계마다 몸의 제도를 이루는 범위와 방법이 서로 달라진다. 초선정에서는 육장의 순화를 행한다. 2선정에서는 육장의 순화와 척추뼈 순화를 행한다. 선천 원기를 각성시킨다. 3선정에서는 반신 소주천과 갈비뼈 순화를 행한다. 4선정부터는 밝은성품을 운용하면서 몸을 제도한다. 육부 순화와 꼬리뼈 순화를 행하고 반신 소주천을 완성시킨다. 밝은성품과 선천기, 후천기를 하나로 합쳐서 밝은성품의 자연적 성향을 제도한다. 5선정에서는 말초신경을 순화한다. 생식호르몬을 제도하고 환정보뇌(還精補腦)를 이룬다. 공무변처정에서 행해지는 자기 제도이다. 6선정에서는 머리뼈 순화와 중추신경을 제도한다. 식무변처정에서 행해지는 자기 제도이다. 선정에서는 세포 제도를 행한다. 이 과정에서는 사륜삼매(四輪三昧)를 활용한다. 사륜이란 풍륜, 지륜, 수륜, 화륜을 말한다, 세포 생명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성분이 바로 사륜이다. 지, 수, 화, 풍 사대와 교류하면서 세포 제도를 행한다.

육장의 순화

장부 순화는 중심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명치 위 1㎝, 속으로 5㎝ 정도 들어간 자리에 의지를 두고 그 자리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이 자리가 중심이다. 중심은 오장의 상태가 반영되는 자리이다. 또한, 머릿속 시상과 공명하는 자리이다. 중심은 마음 거울로 쓰인다. 중심을 통해 장부를 순화한다. 장부는 6장 6부로 이루어져 있다. 6장은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삼초이다. 생명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이면서 감정이 내재되어 있다. 6부는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심포이다. 생명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이다. 식의 상태에 따라서 6장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진다. 6식의 상태에서는 감정이 생겨나고 생명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7식의 상태에서는 6장에 내재되어 있던 각각의 주체 의식들이 깨어난다. 6장의 하나인 삼초는 뇌의 신경 영역이다. 시상핵과 대뇌변연계, 대뇌연합령을 연결하는 파페츠회로가 삼초의 영역이다. 7식의 상태에서 시상으로 들어가면 6개의 주체 의식이 합쳐지는 장소가 있다. 이 자리는 몸의 5장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5장을 이루고 있는 다섯 개의 주체 의식과 머리를 이루고 있는 한 개의 주체 의식이 이 자리에서 합쳐지면 생각이 일어난다. 오장의 의식을 전5식이라 하고 생각을 후6식이라 한다. 전5식이 합쳐져서 후6식이 생긴다. 시상에서 생겨난 생각이 파페츠회로를 타고 돌면서 사유가 행해진다. 6식의 상태에서는 내가 한 사람이다. 7식으로 들어가면 내가 여섯 사람이다. 6식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장부 순화가 있고 7식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장부 순화가 있다. 6식의 장부 순화는 초선정에서 행해지고 7식의 장부 순화는 2선정에서 행해진다. 6식의 상태에서 행해지는 장부 순화는 표면적 순화이다. 장부순화는 장부간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7식에서는 6장에 내재된 각각의 주체의식을 제도의 대상으로 삼는다. 6장의 주체 의식을 제도하려면 먼저 각각의 주체 의식을 일깨워야 한다. 6식의 상태에서 장부를 순화하는 방법으로 옴자 발성법이 활용된다. 옴자 발성을 통해 장부를 순화하고 중심을 세워준다. 장부는 감정과 의식 상태에 따라 본래의 고유성이 훼손되어 있다. 장부의 균형을 깨뜨리는 요인이 음기(陰氣)이다. 음기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부정적 의식이다. 음기가 정도 이상 누적되면 신경 간의 교류가 과도하게 이루어진다. 의식과 의식이 무작위로 교류되는 것이 번뇌이다.

번뇌가 많은 사람은 수련에 집중할 수 없다. 율적인 수련을 위해서는 몸 안에 누적된 음기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어야 한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스님의 〈능가경〉 강설

⑩ 대승보살의 수행 방법

수행, 결과 아닌 원인소멸이 목적

수행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대승보살의 수행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대승경전에서 대승보살이라 말하는 대상은, 가르침을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의 가르침으로 무리지어 수행하는 사람을 지칭하여 대승보살의 수행이라 말한다. 그러면 왜 대혜대사는 대승보살의 수행 방법을 부처님에게 물어보는가.

대혜대사는 미래의 수행자들은 하나의 가르침으로 모이지 않고 각자의 견해와 관념이 다양한 대중이 모여서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부처님께 여쭈어 그것을 남겨 두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계실 때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의 수행 방법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은 대부분 홀로 떨어져 가르침을 새기다가, 그 새김이 올바른지를 부처님께 다시 묻는 방법으로 수행의 기본을 삼았다. 그러므로 수행자 대부분은 나무 밑에서 홀로 수행하게 되고, 공동으로 해야 하는 일은 극히 드물어 서로를 제한해야 하는 일이 많지 않았다. 그리고 홀로 수행하다 보니 일어나는 번민은 대부분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와 관념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것을 불필요하게 따로 말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하나의 가르침이 훼손되고, 조건이 다른 대중들이 모이고, 그런 대중이 함께해야 하는 일이 생겨나고, 견해와 관념이 다른 대중들의 부딪힘이 생겨나면서, 수행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기 전에 외부 경계에 나타난 상황에 정신을 집중함으로써, 하나의 가르침으로 새김 되어야 하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혼란을 겪게 된다.

"만법이 모두 자기 마음이 드러난 것임을 잘 아는 것이고, 바깥 사물과 외부 경계에 모두 자성이 없음을 잘 관찰하고, 생겨나고 머물며 소멸하는 견지를 잘 벗어나는 것이고, 자각성지를 얻는 즐거움이네."

이런 만연한 인식으로 인해 마음의 경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그때는 움직임을 멈추고 고요히 하여, 마음이 무엇으로 춤을 추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물질이 움직인다는 것은 분명 외부의 자극이 생겨야 움직이는 것은 맞지만, 물질이 움직인다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마음 안에 두 가지 이상의 견해가 나타난 것인데, 마음 안에 어떻게 두 가지 견해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만약 마음에 두 견해가 나타났다고 가정하면, 하나는 허상이고, 하나는 실상이어야 하지만 허상은 모양이 될 수 없으니 나타날 수 없고, 실상은 보는 그대로이니 이미지화하여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에 상이 나타나는 것은 모두 허상인 것이다. 마음에 나타난 상이 허상이라면 일어난 상황에서 옳고 그름으로 분별할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로 나타난 동일한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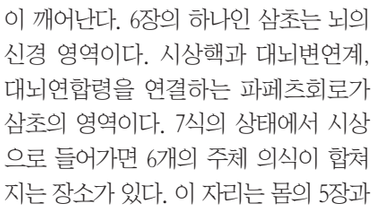
삶과 수행은 이 두 가지를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삶은 인과성의 의미에서 보면 결과를 중요시한다. 왜냐하면 삶은 반복을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주고받음이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수행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소멸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바르게 알고 원인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놓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모든 일에 모름을 두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리고 수행은 일어난 일에 막연한 인식으로 분별하는 마음을 경계하여야 하고, 그때 분별하는 마음은 견해와 관념에 묶인 상태로 대상을 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그 대상은 자신의 마음속에 비친 허상을 꺼내어 보고 있는 것이지, 실상을 그대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생주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시공간을 통해 마음이 만들어 놓은 허상임을 알고, 그 현상에서 자성을 찾아 헤매는 일은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찾지 않는 것이 가장 잘 벗어난 지혜이고, 다시는 모양과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얻지 않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때 바르게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게 되면서 수행의 즐거움을 향유하게 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염불시설은 아무나 하나?!

염불시설로 반생을 보내며 사찰소리 연구 전문시설인의 견본과 귀 사찰의 법당시설과 양손의 마이크로 스님 자신이 염불을 해 보신 후 장난감 같이 소리차이를 확인 후 염불시설상담!!

2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했지만 고장없음, 만일 고장이 난다면 입소문 때문에 장사를 고만 두어야 함, 시설비 190만원부터 ~ 수 천만원까지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소리비교비용은 커피한잔!)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4개, 본품들은 시중에 없음

원톱 시스템 다목적 방생용
한번에 최고의 성능을 구입하시면 절약
속에 후회가 없다는 뜻!
충전식 / 출력 300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4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시중에 없음
염불시 마이크와 2m
멀리서도 소리 월등
스탠드 분리형


시중에 없음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가격 65만원
▣ 한국사찰 각종 "재" 전문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MASS MICROPHONES
Concert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공희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27호 | 17 | 전면광고

어떤 사람이 게으르다가도
스스로 마음을 거두어 잡으면
구름 걷혀 나타나는 달과 같이
세간을 밝게 비추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1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매가 : 20억
- 위치 : 경기 • 부지 : 150평 • 건평 : 약 100평 • 산 밑 주차 가능 • 매가 : 15억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받습니다.
※사찰 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 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344~43번지
- 대 지 : 500평
- 법 당 : 30평
- 요사채 : 20평
- 가 액 : 5억

010-3640-312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 대지 : 약 250평 법당, 요사채, 주차장 70평
- 공찰소임 관계로 급매 / 시설 완비
- 가액 : 2억 5천만원

054-536-258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내외로 11번길 3-19 (3-4층 복층 73평)
- 3층 : 법당 20평=고급 재질, 완벽한 시설, 스님방 1개, 넓은 주방, 화장실, 샤워장
  4층 : 아주 큰방 1개, 작은방 2개(살림 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 1천 5백만원, 집기 일체 무료
- 스님 노환으로 승직을 탈퇴합니다.
- 사용 중인 가전 전자제품 무료 제공

010-5458-2955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 대지 : 약 600평,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스님 노환으로 급매
- 집기류는 그냥 주고 갑니다.
  꼭 하실 분만 연락
  가액은 상담 후 결정

010-2366-2821

부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온천장 시장 바로 인근
- 2층 약 50평(방, 친견실)
- 시설비 3천 2백만원(2개월 전 완전수리)
- 보증금 2천만원, 월7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010-3582-8975
010-5511-7000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 600평, 대웅전(53평)
- 부속 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 3억 8천만원

010-8957-8089

사 찰 안 내

-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733, 3층 심령암
- 평수 25평, 방 2개, 주방 1개, 욕실 1개
- 보증금 300만원, 월 45만원, 비품비 별도

010-6449-134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상리면 사찰
- 대지 : 120평, 건물 외 부속건물
- 가액 : 1억 2천만원

010-5436-5801

사 찰 안 내

경기도 가평군 중미산 자락에 위치한 절입니다. 남향으로 전망 좋고, 법당도 넓고 깨끗하여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 1층 82.53㎡ (방 3개, 부엌, 거실), 2층 82.53㎡ (법당, 방, 베란다)
- 보증금 3천 월세 80만원, 권리금 없이 모든 시설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직접 보실 수 있음)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160

010-2551-3752

사찰 (급) 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
- 대지 200평, 임대부지 약 300평, 법당 10평, 산신각 2평 용왕각 6평, 요사채 20평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일억 오천(조정 가능) 와서 보시고 결정하세요.

010-3757-369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10억

010-6325-5112

사찰(급)안내

김해시 안동 6거리
창건 30년, 도량 270평,
매일 재개발로 들썩들썩
가액 11억
보상은 후임자의 몫으로

010-6898-9114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북 청주시 오창읍
- 대 지 : 1,787평, 극락전 : 30평, 미륵전 : 40평, 살림집 : 30평, 공양간 : 30평, 연못 50평 등
  야산 밑으로 공기 좋고, 햇볕도 잘들고 풍광이 아주 좋습니다.
- 매매 26억

010-4455-715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 8백평
- 건물: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10억

010-4547-0023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대지 143평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당일 법회 가능, 현재 운영중입니다. 노스님 몸이 약하신 관계로 양도 법사님, 보살님도 인연 맺습니다.

010-4180-178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건천읍
- 평수 : 총 426평 대지110평, 전316평(포도밭) (건물조성 담장 가능)
- 인법당 : 18평 1동 (법당 1칸, 공양간 1칸, 스님 침실(화장실 포함 1칸)
- 매매가 : 1억 5천 충분한 의견 조율 및 절충가능
- 주위가 펜션조성지

010-9031-357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의 아담한 암자
- 대지 : 약 50평
- 건물 3동
- 뒤에 대밭이 있음
- 가액 : 6천 5백만원 (100년된 용왕당 있음)

010-7506-8604

암 자 안 내

- 위 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4길 23
- 대지 102평, 2층 법당 15평, 1층 생활관 34평
- 가액 : 9천5백만원

010-4156-3779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 위치, 양쪽 계곡, 앞쪽으로 전망 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허가 득
- 가액 12억

010-5421-1536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시내권 등산로 입구, 공원 입구
- 건물 : 상가 2층 건물 중, 2층 약 40평(옥상 단독 사용)
- 구조 : 방 3개, 법당, 주방, 욕실 주차장 : 4대 단독 사용
- 현재 포교당 겸 철학상담, 기치료
- 보증금 : 2천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협의)

010-2727-4684

포교원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시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4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건 물 안 내

- 청주 시청 앞 9층 건물
- 대지 141평, 건평 1,000평 대출 15억, 매매 15억
- 지하 1-2층 각 층 100평씩

1층 : 로비, 차고, 사무실 / 2층 : 연잎 한정식 식당
3층 : 생광석 찜질방 / 4층 : 식당 / 5층 : 사무실 임대
6층 : 불교 대학 / 7층 : 대웅전 법당
8층 : 사무실, 방송실 / 9층 : 아파트식 주택

최고의 인테리어 시설

010-5883-2255, 010-8569-6643

암 자 안 내

- 주소 : 경남 통영시 정량동
- 대지 : 106평(텃밭 포함)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가액 : 1억 8천만원

오시면 바로 법회 가능합니다.

010-3344-6667

토 굴 안 내

황토집 토굴
충남 신원사 부근

- 건평 20평
- 가 액 : 2500만원 (1년 도지세 : 10만원)

010-3549-3570

토 굴 안 내

전망 좋은 토굴 안내

- 120평, 법당 삼존불 공양간, 산신각, 텃밭
- 매매가 8천 만원, 전세 5백 30만원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연명 422-9

010-8643-5235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남 금산 추부
- 대 지 : 280평, 임야 : 50평, 총 330평
- 삼성각 : 7평, 전통 기와 목조건물
- 법 당 : 22평, 경량골 철골
- 요사채 : 슬레이트 지붕, 블록, 방 5개, 거실, 주방, 화장실
- 대전 옥천 15분 이내(교통 편리)
- 뒤는 산, 앞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경치 좋은 곳
- 가 액 : 2억 5천만원, 대출 5천만원

010-3875-6305

사 찰 안 내

청정 바다가 보이는
명당 절터 150평

- 전기, 물, 토목공사 완료
- 매매 9천 만원

통영시 광도면 용호리 528번지

010-8643-5235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 218쪽 |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 292쪽 |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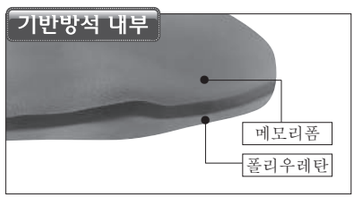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27호 | 18 | 전면광고

겸허하게 지내고 스스로를 낮추며
만족을 알고 은혜를 생각하며
때때로 법을 듣는 것,
이것이 최상의 좋은 일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영산범음집 3판 증보판

A4 320페이지 특수용지 2중 배접

1. 의식편-천도의식, 종사영반, 상용영반 관음시식, 구병시식
1. 해설편-의식문 자체가 한자로 되어있는바 전문(全門) 한글로 해석
2. 악보편-옹호게, 거불성, 산화락 등 바라춤, 각종진언 사물장단 수록

※※영산범음집 한 권으로 상용 재의식을 집전할 수 있으며 시종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게 되어있음
책의 마지막엔 지금까지 보시하신 스님과 사찰명단 수록

정가 50,000원 유튜브 '영산범음집'검색 전 과정 동영상 제공

010-3842-1040 범패연구소



정재(淨財)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발원 하옵니다.
신실한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생활할 공동체 마을을 조성 중인데 자금이 부족하여 **좋은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담보 제공과 이자를 드리겠으며 시주와 기부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신도 5계에 저촉되는 업과 관련 있는 재화는 받지 않습니다.

해월산 在禪居士 합장 010-7572-5358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부전스님 공양주 모십니다.

010-2078-9595

우리 다 함께 불교를 살리는데 동참합시다

- 전국 시 · 군 · 단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포교활동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기본급 월 3백만원 외 활동 범위와 능력에 따라서 배당금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불교를 위해서 무언가 공덕을 짓고자하는 불자님들은 망설임 없이 연락 바랍니다.

010-8459-1472, 043-642-941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결혼상담소

나라님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인연만나 행복을

010-5624-1365
02-306-7988

범음·범패 학인 모집

각단의식, 천수바라, 오공양작법, 법고, 송주북, 정근북 및 개인지도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 륜 사
전화 010-7579-8200

구합니다

60대 비구입니다.
남은여생, 수행 정진할
조용한 암자를 구합니다.

010-5929-3217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포교원할 분

서울 강서 목동 사거리
시장 옆 2층, 30평 남향(가액 절충)
부전, 공양주 무속보살 상담

- 50억 내 주상건물 매매 전문
- 결혼정보(결혼할 여성 찾음)

010-5381-1419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 · 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영험약수"로 힐링(치유)가능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33-366-2309 / 010-4804-2309
대구종무소 : 010-4009-2388(강법사)
※ 몸 아프신 분들 천도재 해드립니다.
※ 땅 양도 안되시는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고찰터 중창주, 지장보궁 정진도량 산내암자

노승이 비구나 비구니를 2~3명 중 주지자리를 물려주고 평생 보장함,
큰 암자 도량이니 2~3명의 조계종 스님을 찾고 있습니다.

소백산 지장보궁 경북예천
054-653-1180, 010-6353-118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합장주·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효민의
서도로 새기는 경구

⑤ 가피



‘나’보다 ‘너’먼저 생각할 때

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하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일이 자신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먼저 생각해준다면 결국 모두가 이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결국 모두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자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가피’가 있습니다. 모두 부처님의 가피 받고 싶어 절에 가지요. 부처님 가피 받아 바라는 일 다 이루어지길 바라며 부처님 전에 기도 올리죠.

‘加被’라는 글을 쓰면서 생각해봅니다. 나 아닌 누군가에게 가피가 있기를 먼저 바란다면 우리 모두가 좀 더 깊고 진한 가피를 받지 않을까요.

〈서예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㉘ 박 준의 ‘연화석재’

우리 모두 잠에서 깨어날 때

연화석재/ 박 준

저녁이면 벽제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는다

석재상에서 일하는
외국인 석공들은 오후 늦게 일어나
울음을 길게 내놓는 행렬들을 구경하다

밤이면
와불(臥佛)의 발을 만든다

아무도 기다려본 적이 없거나
아무도 기다리게 하지 않은 것처럼
깨끗한 돌의 발

나란히 놓인 것은
열반이고

어슷하게 놓인 것은
잠깐 잠이 들었다는 뜻이다

얼마 후면
돌의 발 앞에서

손을 모으는 사람도
먼저 죽은 이의 이름을 적는 사람도
촛불을 켜고 갱엿을 붙여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돌도 부처님처럼
오래 살아갈 것이다

–박 준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문학동네, 2012–

그(박 준)의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처럼, 그의 이 시(연화석재)를 읽는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나는, 달라졌다. 그러고 싶었다. 우선, 벽제의 밤이 달라졌다. 그동안 나는 벽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검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를 읽고 밤의 벽제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알았다. 이른 아침부터 주검들이 쉴 새 없이 죽지만[화장(火葬)], 저녁이 되면 주검들이 죽음을 딱 멈추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아침이면 주검들은 또다시 일제히 죽기 시작하는 것이다. “저녁이면 벽제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는다”, 벽제의 비애를, 벽제의 낮과 밤을 단 두 줄의 시행(詩行)으로 이렇게 잘 묘사한 시가 또 있을까. 단 두 줄의 시행으로 벽제의 시공(時空)을 이토록 정밀하게 서술한 시가 또 있을까.

그런데, “석재상에서 일하는/ 외국인 석공들은” 왜 “오후 늦게 일어”날까. “오후 늦게 일어”나 “울음을 길게 내놓는 행렬들을 구경하다” “밤이면/ 와불(臥佛)의 발을 만”들까. 왜 그래야만 할까. 그런데, 이 시를 읽으면 또, 꼭, 그래야만 할 것 같다. 그래야만 될 것 같다. ‘누워 있는 부처님’ [와불(臥佛)]의 발바닥은 너무도 깨끗해서, 낮이면 죽어야 할 주검들이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서, 밤에만 은밀히 연꽃을 피게 하는 것이다. 연화(蓮花)를 연화(蓮華)하게 하는 것이다. “아무도 기다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화장을 하는 동안) “아무도 기다리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박 준 시인의 천재적 인식은 5, 6연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나란히 놓인 것은/ 열반이고// 어슷하게 놓인 것은/ 잠깐 잠이 들었다는 뜻이다”가 그것이다. 그런데, “나란히 놓인 것은” 왜 “열반이고”, “어슷하게(한쪽으로 조금 비뚤어지게) 놓인 것은 잠깐 잠이 들었다는 뜻”일까. 여기서 생각나는 부처님의 열반상. 이미 열반에 든 석가모니 부처님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자신의 입멸 모습을 보지 못해 더욱 슬퍼하는 가섭에게 법통(法統)을 전하기 위해 관 밖으로 연화문이 찍힌 두 발바닥을 불쑥 내밀었다. 이름하여 ‘곽시쌍부’ (槨示雙趺).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를 통해 우리 중생들의 고단한 인생살이(길 찾기)를 암시하신 것이다. 실제로 우리 중생들도 ‘길 찾기를 끝내면’ (죽으면) 두 발을 가지런히 모은다. 인생살이의 고단한 길 찾기를 끝냈다는 뜻이다. 그러나 잠깐 잠자는 사람들은 두 발바닥을 아무리 가지런히 모으고 자려해도 이내 비뚤어지고 만다. 아무리 바르게 잘 잔다고 해도, 삶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은 것이다. “돌의 발”에 불과한 “발 앞에서” 우리가 “(두) 손을 모으는” 것도, “먼저 죽은 이의 이름을 적는” 것도, “촛불을 켜고 갱엿을 붙여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도 부처처럼/ 오래 살아갈 것이”라는 것. 부처님의 발바닥이 새겨진 돌[연화석(蓮花石)]은 이제 더 이상 돌이 아니다. 속(俗)이 아니다. 성(聖)이다. 우리는 흔히, ‘길 위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을 ‘도인’ (道人)이라 한다.

그러고 보면, 종교와 종파를 떠나, 우리는 모두 도인이다. ‘길 위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이다. 인생살이 자체가 고단한 길 위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평생을 길 위에서 사시다 길 위에서 죽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서른셋의 짧은 나이지만, 평생을 길 위에서 사람들과 함께 길을 만들고 길을 걷다가 자신의 죽음(십자가)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고단하게 올라가 고단하게 죽었다. 때문에 박 준 시인의 ‘연화석재’는 이제 불교와 부처님과 불자들만의 ‘연화석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보편적 ‘연화석재’로 부피를 넓혔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는 다른) 불교의 ‘보편성’이다. 연화석재라는 석재공장[생(生)]과 벽제[죽음(死)]라는 두 객관적 상관물을 불교적 사유를 통해 보편적 일상으로 끌어올린 박 준 시인의 시적 해석과 분석에 감탄의 박수를 보낸다.

벽제의 밤만큼 적멸한 밤, 박 준의 ‘연화석재’ 만큼 필자의 마음도 고요하고 정갈해진다. 이제 벽제는 주검이 시공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걸어야 할, 그리고 찾아야 할 생의 시공이다. “깨끗한 돌의 발”로 “열반”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시간이다. 이 시를 읽고, 모두 잠에서 깨어나자.

〈불교문학연구소장〉

일일시호일

추락으로 턱뼈·대퇴골
골절되며 꿈도 무너져

몇 차례 수술로 뼈에 철심 박고 입안에도 나사못 8개 심어
회사·네팔 스님 배려에도 1300만원 병원비 남아 귀국도 못해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김병전 대표의 지금, 명상의 시간 ⑮ 챗GPT와 함께 나눈 명상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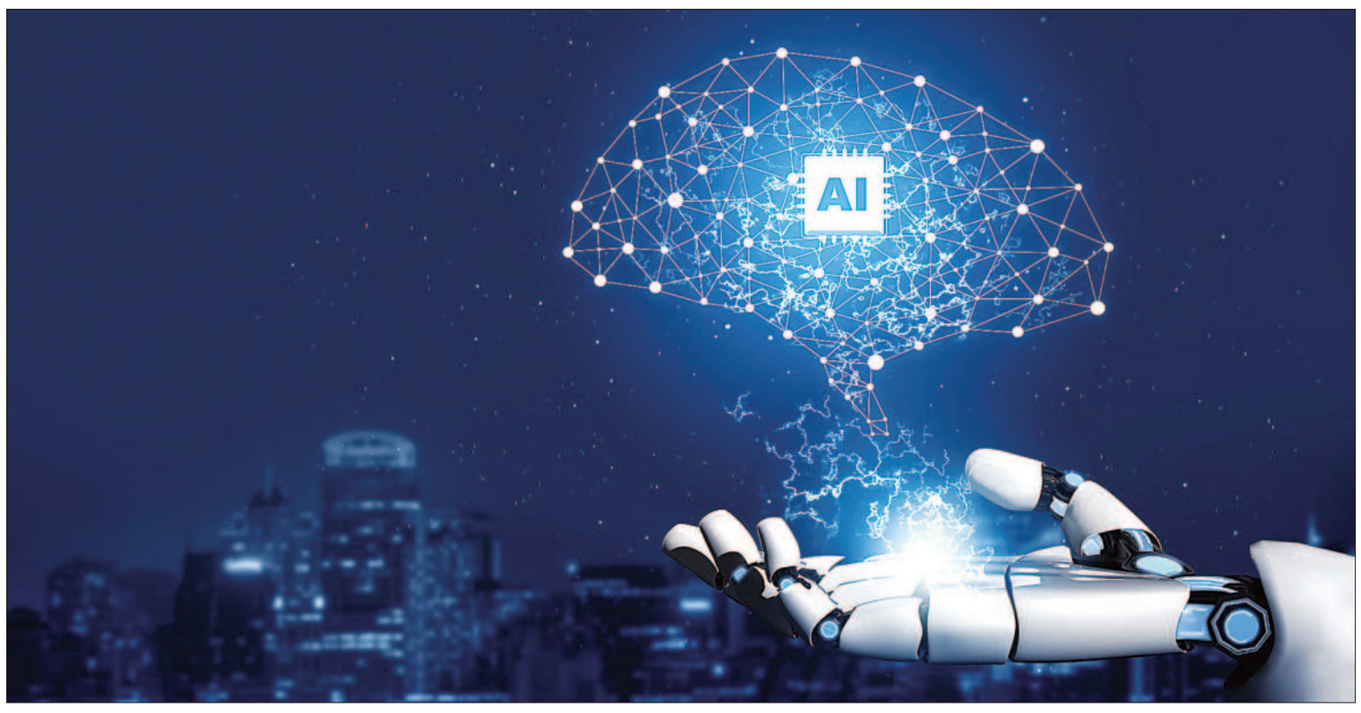
▶한줄요약
작년 12월 1일에 공개되여 이제 막 3개월이 지나고 있는 챗GPT는 이미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단계에 진입한 듯 보인다.

AI와 인간 협력 통해 명상 효과 향상 가능

화가나서 미쳐버릴 것 같을 때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먼저 이렇게 해보라.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과 마음을 집중시켜 본다. 4초동안 들이쉬고, 4초동안 참고, 6초동안 내쉬는 '4-4-6 호흡법' 호흡법 활용을 추천한다. 또는 화가 난 곳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과 대화하거나 일기에 감정을 적어보는 등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마음의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시도해보면 좋다. 취미 활동이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등 자신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것도 마음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명상이나 요가 등 마음과 몸을 집중시키는 방법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배워보는 것도 추천한다. 이런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더 좋은 여러 방법들을 다시 추천한다. 화가 나는 감정을 느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감정을 조절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긴장을 풀어주는 신체적 활동도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운동이나 춤추기, 걷기, 자전거 타기 등 긴장을 풀어주는 활동을 시도해보라. 그리고 화가 난 이유를 자기반성을 통해 돌아보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족, 친구, 연인 등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화가 나는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감정을 안정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계속 느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화가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방법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필자 의견으로는 다양하고 좋은 방법들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핵심적인 방법들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필자가 제시한 방법이 아니다. 챗GPT가 제시한 방법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AI의 답변인 것이다. 필자는 답변을 읽으면서 챗GPT의 답변이 필자보다 더 구체이면서도 친절하다는 생각때문에 놀라움과 더불어 왠지모를 싸늘한 무서움도 느꼈다.

지난해 12월 10일에 'AI 시대의 Mindfulness'라는 주제로 개최된 한국명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필자는 'AI 시대 명상앱'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었다. 당시 글로벌 명상앱들은 이미 머신러닝을 장착한 후 초기 단계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세계 사용자 정보가 누적되면 이제 조만간 왠만한 명상 지도자보다 신뢰로운 AI 기반 명상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수행하지 않고 실력이 없는 명상가가 설 땅이 점차 좁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했었다. 그런데 작년 12월 1일에 공개되여 이제 막 3개월이 지나고 있는 챗GPT는 이미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단계에 진입한 듯 보인다. 불과 몇 개월만에 명상의 영역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특이점, 즉 싱귤래러티(Singularity)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챗 GPT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보았다. AI는 명상가(인간)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지? AI가 인간보다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인간이 AI보다 잘하는 것은 무엇일지? 그리고 인간과 AI는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먼저 "AI는 명상가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챗GPT는 "AI는 명상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 이유는 명상은 인간의 내면과 연결된 정신적인 경험으로 그 깊이와 의미는 인간에게 특유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인간의 내면과 연결된 정신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AI는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 알고리즘을 따라 작동하며, 이는 인간의 내면과 연결된 경험과는 다르다. 명상은 인간이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로서 인간은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며 삶의 목적을 찾는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는데, 이러한 경험은 AI로 대체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인간의 내면과 연결된 정신적인 경험은 AI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좋은 답변이다.

그러면 "명상 영역에서 AI가 인간보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AI는 명상 영역에서 인간보다 몇 가지 측면에서 뛰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우선 AI는 정확한 초점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명상을 하면서 인간은 종종 자신의 생각이나 주변의 환경에 쉽게 산만해질 수 있지만, AI는 정확한 초점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명상의 효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AI는 개인화된 명상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명상 가이드는 개인의 요구와 선호에 따라 맞춤화될 수 있지만,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AI는 개인화된 명상 가이드를 상대적으로 쉽게 제공할 수 있다. 즉, AI는 사용자의 명상 실천 기록을 분석하고, 개인의 요구와 선호에 따라 맞춤화된 명상 가이드를 제공하는데 인간보다 탁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AI는 다양한 명상 기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명상은 다양한 기술과 기법을 사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명상 기법은 인간의 경험과 전문 지식이 필요로 한다. 하지만 AI는 이러한 다양한 명상 기법을 학습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데 경쟁력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AI의 장점들은 인간이 가진 능력과 경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AI와 인간의 협력을 통해 명상의 효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명상서 AI가 인간보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한 초점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
개인화된 명상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명상의 기법을 제공할 수 있다

반대로 "명상을 안내하는데 AI보다 인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챗GPT는 다음과 같이 답변 했다. 첫째, 인간은 동료감과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 명상을 실천하면서 어려움이나 갈등을 겪을 때, 명상 안내자가 동료감과 공감 능력을 통해 사용자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 이는 AI가 갖지 못한 다분히 인간적인 접근 방식이다. 둘째, 인간은 감성적 지능과 상호작용 능력이 있다. 명상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명상 안내자는 사용자의 상태와 감정을 감지하고, 그에 맞는 명상 기법과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명상 안내자는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 신뢰와 안정감을 유지하고, 참여자가 더 집중하고, 효과적으로 명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감성적 지능과 상호작용 능력은 AI가 아직 제공하기 어려운 요소이다. 셋째, 인간은 창조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 명상은 참여자의 감정, 상황, 문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적합한 명상 기법과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조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인간 명상 안내자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창조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명상 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명상을 안내하는데는 인간이 가진 감성적인 지능과 상호작용 능력, 동료감과 공감 능력, 창조적인 접근 방식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간적인 요소는 AI가 아직 제공하기 어렵다.

최근에 인공지능이 명상서비스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이 갖고 있는 직관적인 판단력, 감성, 지식, 경험 등은 인공지능이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단계이다. 현 상황은 인공지능과 인간이 서로 협력하여, 인공지능이 가진 강점과 인간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결합하면 더 나은 명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각한다.

명상을 안내하기 위해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가장 좋은 방법 3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사용자 맞춤형 명상 안내를 위해 협업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사용자의 생체신호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명상 집중도, 심박수, 호흡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생체신호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명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파악하고, 사용자에게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언은 객관적이며 개인의 경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인공지능이 수집한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사용자의 개인적인 명상 요구와 목적에 맞게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맞춤형 명상 콘텐츠를 협업하여 개발할 수 있다. 명상은 사용자마다 경험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사용자의 선호도와 목적에 맞는 맞춤형 명상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사용자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을 할 때 사용자의 선호하는 음악, 목소리, 명상 시간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셋째,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다. 명상은 사용자의 심리적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훈련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경험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공지능은 사용자가 명상 훈련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사용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은 사용자가 명상을 할 때 사용자의 집중력을 측정하고, 사용자가 집중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줄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명상 경험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 협업방안 3가지 역시 챗GPT가 제시한 방안이다.

실제 챗GPT에게 다양한 상황에 필요한 명상 스크립트를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았다. 일례로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에 여러 사람들고 함께할 수 있는 야외 산책명상 가이드" "재정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명상"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는 긍정확언 명상" "깊은 수면에 들기 위한 이완 명상" "담당 업무 실적이 안좋을 때 할 수 있는 마음관리법" 등. 필자는 '하루명상' 앱을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황별, 기분별로 수 많은 명상 콘텐츠를 개발해왔다. 그 때마다 관련 서적을 찾고 고민하면서 스크립트를 개발했었다. 하지만 챗GPT는 수 초만에 아주 훌륭한 수준의 스크립트를 제시했다. 추가적인 주문을 하면 더 개선된 내용을 만들어주기까지 한다. 필자는 글을 쓰면서 정말 놀랍고 확실한 경험을 했다. 명상 영역도 AI와 협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겠다는 것을.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부심

BTN 불교TV 신규프로그램

더 알차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불법(佛法)유턴
매주 (월)12:00, 20:30
(토)19:30



죽음에서 배우는 삶
매주 (수)13:00, 20:30
(일)22:50



남을 위해 기도하라 – 자비도량참법
매주 (수)14:00, 22:30
(토)07:30



아름다운 사람들
매주 (수)09:30, 21:30



김지원의 스님, 계십니까
매주 (목)09:30, 21:30



구구절절 주련 이야기
매주 (화)15:30 / (목)14:30
(금)23:25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대행 스님

하나의 중심이 일체를 다 자동적으로 굴리고 있다

여러분을 아주 오래간만에 만난 듯합니다. 하지만 한 찰나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같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물론 같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전력을 내가 끌어 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하지 못하리만큼 그렇게 천차만별로 자꾸자꾸 화해서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끌어 쓰는 데 달려 있다 이 소립니다. 끌어 쓰는 그 자체가 묘한 도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큰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끌어서 먹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만유를 창조하여 나가는 그 인과 필연의 법칙. 우리의 몸과 생명, 정신 작용으로 인한 일상생활 그 자체가 바로 인연의 법칙에 따라서 운전되고 움죽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연의 법칙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발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불도 중생도 이 모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에 대해서 볼 때 아침 쇳송에 '오종대은명심불망' 이라고 있습니다. 오종대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오종대은이라는 뜻은 일체제불의 종지를, 즉 말하자면 모든 우리들의 생명의 씨, 불씨의 그 어마어마한 뜻을 알고 감사함을 느낄 줄 알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즉 말하자면 우리를 인솔해 나갈 수 있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의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못하든 잘하든, 예를 들어 우리 가정의 부모가 자식을 잘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지 어느 부모가 잘 이끌어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부모가 어딨겠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는 행입니다.

그와 같이 '그 뭐, 대통령에게 무슨 은혜가 있어?' 이러지만 잘하든 못하든, 못났든 잘났든 내 부모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각 나라의 임금과 임금이 접하듯이, 대통령과 대통령이 서로 회의를 할 때도 내 나라를 중요시하지 남의 나라를 중요시 안 합니다. 그리고 내 국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거든지 마다 안 하고 하는 그런 계기는 있다고 봅니다. 또 부모의 은혜, 낳고 길러 주고 가르치고 그랬건만 머리털이 세어서 죽을 때까지 내내 마음고생을 있는 대로 시키는 것이 바로 자식입니다.

그 은혜를 모른다면 아니 되기 때문에 국왕의 은혜, 부모의 은혜, 사장의 은혜, 국민의 은혜, 땅의 은혜, 불의 은혜, 바람 공기의 은혜, 물의 은혜, 모두가 감사함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둘 아닌 도리를 얼른 납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수차에 말을 해 왔지만 거기서부터라도 얘기합시다. 미생물에서부터 쫓고 쫓기면서 그 아픔을 당하면서 찌그러지고 일그러지면서 잡아먹히면서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진화돼서 인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올 동안에 남의 자식도 됐었고 남의 부모도 됐었고, 짐승의 부모도 됐었고 짐승의 자식도 됐었고, 사람의 부모도 됐었고 사람의 자식도 됐었고, 넓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도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좁게 보고 한 가정에서 요 한 철 나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사람이 쳇바퀴 돌아가듯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진화되고 화하는 도리를 안다면 아마도 네 부모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좋고, 내 부모니까 잘해야 되고 이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둘 아닌 도리를 확실히 증득할 겁니다. 그럼으로써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부드러운 행이 나오고, 진실한 구함이 생기고, 진실한 구함이 생김으로써 진실하게 나 아닌 나의, 참나의 소식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항상 말을 하지만 불교라는 그 자체가 생명의 근본이 불이요, 말과 말이 통하는 것이 교라 한다면, 하다못해 곤충에 이르기까지 무정물에 이르기까지 식물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존경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얽히고설키고 돌아가는 이 통함이 바로 교란 말입니다. 죽은 세상이나 산 세상에서 통하듯이 또는 저런 곤충에 이르기까지 서로 통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다못해 개미도 요만한 거 하나를 발견을 하면 물고 그냥 가지만 큰 과자를 하나 발견했을 때 보십시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금방 소식이 통해서 그냥 떼로 지어서 옵니다. 이건 무슨 까닭입니까? 얼마나 묘한 도리입니까? 말 없이 말을 전달하는 이 소식 말입니다. 개미뿐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체 만물만생에 의해서, 내 몸속에 있는 그 중생들이 화해서, 천백억화신으로 화해서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짐승들이나 모든 곤충들, 하다못해 무정물까지도, 목신까지도 원한다면 다 응해 주십니다. 응해 주시되 묘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뱀이 공부를 하면서 원하면 한 찰나에 드실 때 뱀으로 응하신다 이겁니다. 뱀으로 응하셔야 뱀이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습을 천태만상으로 나투시면서 응해 주십니다. 관세음보살을 관하면 관세음보살로 나투어 주시고, 지장을 염하면 지장으로 나투어 주시고, 약사를 염하면 약사로 나투어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여튼 아까 얘기했죠. 하다못해 풀포기 하나까지도, 곤충 하나까지도, 안 보이는 세상의 모두를,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또는 죽은 생각이나 산 생각이나, 생각이 없는 중생이나 생각이 있는 중생이나 다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거 하나를 생각할 때 우리 가정에서 무조건, 조건 없이 자식들에게 주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한테 모든 것을 베풀어 줄 때에 그 마음의 보시, 이것은 제일 으뜸 나는 무주상 보시입니다.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마음, 조건 없이. 물질을 주더라도 조건 없이 주는 보시, 조건이 조금이라도 붙었다 하면 그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오시면 '너는 죄가 얼마만큼 있고 너는 죄가 얼마만큼 있으니까 이것이 안 된다' 이럴 수가 없는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죄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작은 거든 큰 거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무조건 조건 없이 줄 수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말입니다, '나는 죄업이 많으니까 이렇게 받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 또 '나는 이런 거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업보가 다 녹아야 된다' 하는 조건, '나는 이러한 병이 걸렸는데 과거로부터 이 업보가 얼마나 많으면,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이럴까.' 하는 생각에서 그, 조건 없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도리를 배우고 아는 사람들은 조건 없이 줘야만이 마음으로도, 길을 지나가다가도, 하다못해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도 무명을 벗겨 줄 수 있고, 그 소의 의식을 바로 나한테로 넣는다면 즉시 그건 죽지도 않아서 벌써 환토를 한 거죠. 천도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명을 벗고 사람이 돼서, 굴려서 사람으로 환생을 할 때 그 소는 은혜를 생각해서 이 불법에서 떠나지 않게끔 됩니다.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끝 간 데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이 진리 속에서 우리들이 인연에 따라서 활짝 개이기도 하고 인연에 따라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대로 이끌리기도 하죠.

이 몸뚱이 속에는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 22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부처님 법을 한시라도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참선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대로 이끌어 주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대로 이끌어 주는 그런 수십억의 중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도 가끔 하죠. 팥죽을 쑤는데 끓어오르는 팥죽 방울을 보고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하고 주걱으로 쳤다는 얘기 잘들 아시죠. 그 주걱으로 죽 방울을 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뜻을, 그 속에 있는 뜻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또는 경을 달달 외워서 강의를 잘하고 이런 게 참선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해서 무지렁이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처님 법을 한 시라도 떠나지 않는다면 그게 참선이죠. 내가 먼저 나왔으니까 나로부터 화두요, 나 자체부터 알 양으로 노력하는 것은 불씨를 심어서 싹을 틔우는 거나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두가 이러한 관계상 인과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그것은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자동적인 법칙입니다. 모든 만남이, 교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발전을 하고 또는 '이것이 안 된다, 된다' 하고 법석이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거를 가만히 생각한다면 '아이고!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이거, 이거 뭐,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해서야 나라가 잘될 수 있어?' 이러지마는 부딪치지 않는다면 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하하.

이 모두가 상대적인 원리로써 이렇게 가는데, 부처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선(禪)이다' 그런다면 이거를 붙이고 안 붙이고를 떠나서, 인연에 따라서 딱 붙이면, 즉 전선 줄과 전선 줄을 한데 붙이면 불이 확 일어나서 불이 들어오는 그 광명을 바로 선이라고 하는 건데 양면의 이 줄을, 갖다 붙이는 줄을 가지고 '이게 틀리다 이게 옳다' 하니까 그래서 "놔라" 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놔라. 물질계와 정신계를 그냥 놔라. 놔야만이 이게 모두가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중심이 일체를 다 자동적으로 굴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하나는 움쭉도 안 합니다.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우주가 다 망가진다 하더라도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꿈쩍도 안 하는데, 그게 왜 꿈쩍도 안 하느냐. 은하계의 중심도 태양계의 중심도 이 우주의 중심도 이 인간의 중심도, 모두가 중심은 하나로 전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은하계에서 태양계로, 태양계에서 지구로, 허허, 모두 별성이나 혹성이나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에너지 광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뒷면에서 나오죠, 중심 뒷면에서.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마음의 샘터다 하는 것도 모두가 연관성이 있음으로써 이 마음의 샘터에 샘도 나올 수 있고, 그냥 누구나가 다 '아이고, 저 사람은 아예 쓸모가 없어.' 그러고 그냥 다 내치면 아예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산송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잘 가는 동안에 의욕이 생기고, 할 일이 생기고, 얼굴이 좋아지고, 다복해지고, 짜증도 안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조그만 것 하나로부터 큰 우주의 삼천대천세계를 집어먹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집어먹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나를 죽여서 내가 될 수 있어야만이 그렇다 이 소리입니다. 이 몇 마디 안 해 드리는 것을 잘 참작하셔서 행하세요.

스님네들은 신도들을, 법우님들을 만날 때 무조건이요, 이유가 없어야 하고 신도님들은 신도님들대로 믿음이 진실해야 하고 물러서지 말아야 하고, 또는 마음과 마음,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도리를 알아야 하고,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고 일체제불의 마음, 이 스님들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먹는 대로 한 찰나에 들고 한 찰나에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자1(남) 오늘도 법 자리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중에 어느 날 수행자 한 분이 "불경은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성경에는 삼십육천이 있고 불경에는 삼십삼천밖에 없으니까 우주를 다 간파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견해로 볼 때는 유의 법으로 보면 사람이 겨자씨만 하지만 영체 이탈 한 성인의 경계로 볼 때는 삼천대천세계가 공만 할 건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경에 차이가 나서 범부들이 헷갈리게 하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여쭙니다.

큰스님 하하하.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데 어느 스님 한 분이 아, 백지를 보고 있거든요. 백지 말입니다. 그거 옆에서 아무리 봐도 백지를 보고 앉았으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과거 보러 가는 사람이. 그래서 "아니, 노스님은 어째서 백지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도 볼 게 없는 백지를 왜 보십니까?" 하니까 그 노승이 있다 하시는 소리가 "자네도 백지를 볼 줄 알아야 과거를 볼 수 있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과거만 봐서뿐이 아닐세. 또 국민을 제도하는 데도 역시 백지를 볼 줄 알아야 제도를 할 수 있네."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수긍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도리가 없더랍니다. 정신계로부터 물질계로 나오는 이 사실을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깐 그날 저녁에 "자네는 내가 지금 아무리 말을 해 줘도 모르니 이따 보세." 아, 그러더랍니다. 밤에 자는데 꿈에 턱 나타나서 이러이러하다 하고 일러 주더랍니다. 그래서 과거를 봐서 박문수가 되었답니다. 하하하.

질문자1(남) 예. 감사합니다. 지구 사바세계를 중세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생이 체를 벗어나면 마음 따라 마음세계로 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리를 볼 때 이곳 사바세계처럼 색류의 체를 갖고 공심, 공생 하는 땅이 우주에 또 있는지 의문이 생겨서 여쭙고자 합니다.

큰스님 이거 보세요. 마음의 도리라는 것은 삼천대천세계를 집어먹어도 남음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있고 없고 그것을 생각 마시고 지금 몸속에 들어 있는 수십억 마리의 의식이나 한마음으로 모아서 내 말을 척척 들을 수 있게끔, 따라줄 수 있게끔만 하시면 이 우주 공간의 전부를 알게 될 겁니다, 아마.

질문자1(남) 예. 감사합니다. 부처님 제자는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의 세 가지 밝은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누진명은 용심으로 해석을 하여도 무방한가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그것도 다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천안, 천이, 타심, 숙명, 신족, 이 모두 이것이, 예전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죠. 야,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먹지 못하고 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 이것이 도가 아니니라. 아무 이름 없이, 오신통 이름 없이 그냥 물을 줄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참선이니라.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아닌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법이라 이것입니다.

질문자1(남)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보시, 업보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더 여쭙고 싶습니다. 누가 인도에 가서 거지에게 돈을 주니까 인도 거지가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하고 또 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돈을 줬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느냐 하니까 인도 거지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공덕 베푸는데 왜 내가 고맙다고 하느냐." 그래서 돌아서 갔더니 또 돈 달라고 해서 "조금 전에 줬지 않느냐." 하니까 "당신 복 지으라고 그러는데 뭣이 나쁘냐." 하고 오히려 반문을 하더랍니다.

요 경우와 누가 보면 절에 '오늘 얼마 갖다 줘야지.' 하고 나가다가 절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디 어디서 왔는데 오늘 요거만 냅니다.' 하고 돈을 주고 갑니다. 이런 경우에 보시의 과보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그거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줬으면 준 대로 그냥 받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닌 받는 것이지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갈 때에 돈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아, 내가 돈 준 거 생색내겠습니까? 그와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또 달라는 건 뭡니까? 굳이 달래서 주는 것은 공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요만한 것 하나를 시주를 한다 하더라도 내 주인공에, 이게 주인공과 더불어 일체제불의 마음이 한마음이기 때문에 나와 더불어 같이 한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다 할 때 내가 했다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갖다 내는 거지, 스님네들을 위해서 갖다 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생각들 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갖다 주는 게 있던가 없던가.

그러나 이 스님네들이 잘못 생각하고 '나는 스님이니깐 내게 갖다 줬겠지.' 한다면 이거 오산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쓰레기를 치워 달라고 갖다 주는데 내 이 고깃덩어리가 치울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체제불의 한마음, 즉 불바퀴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이도 없고 준 사이도 없이 보시를 하고, 누구한테 무엇을 건네주더라도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공덕입니다.

질문자1(남) 예. 감사합니다.

큰스님 아까 첫 번에 뭐라고 그랬죠?

질문자1(남) 성경에는 삼십육천 하늘이 있고 불경에는 삼십삼천 하늘이 있다.

큰스님 그 말을 묻는데 내가 그 대답한 것을 잘 이해를 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는 모두 이론이다 이겁니다.

질문자1(남) 예. 알겠습니다.

질문자2(남) 저는 학문적인 질문보다요, 사적인 부탁을 큰스님께 드리러 왔습니다. 사실 저의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현재까지 자리에 누워계시는데 여태까지 세 번의 뇌수술을 받고도 아직까지 쾌차함이 없이 오히려 지금은 증상이 더 악화되어서 말을 못 하십니다. 큰스님께 어떡하면 저의 어머니 건강이 완쾌될 수 있나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나는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가 아니지만 이 마음의 도리를 안다면 몸체의 중생들이, 의식들이 다 본인의 마음에 따라 주고 작용을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이든지 내가 하고자 한다면 아니 되는 게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병뿐이 아니라 일체 만법이 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알 수도 없고 가설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가설이 됐어야 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청년이 열심히 해서 어머니라는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주인공에다가 모든 거를 맡기고 열심히 '내 주인공만이 우리 어머니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져야죠. 또 환자가 먹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깐 보호자가 먹는 그 양식을 잘 보필함으로써 일은 제대로 벌어지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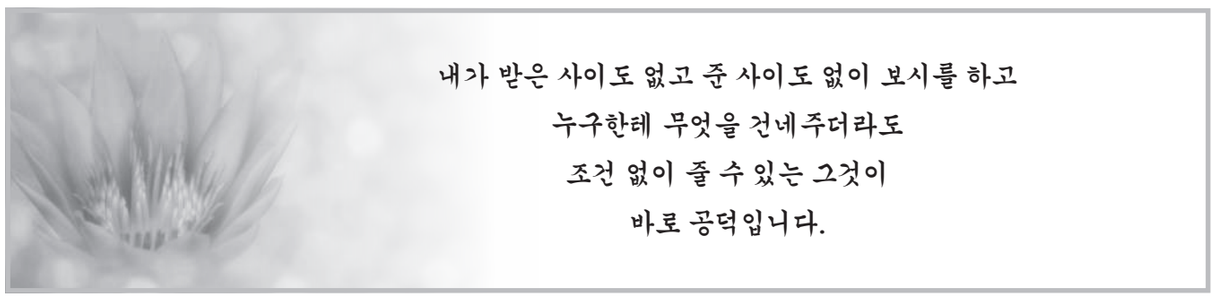
(중략)

사회자 질문이 많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오늘 이만큼 하고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여러분 마음은 체가 없어서 두루두루 돌아가도 돌아간 사이가 없이 한마음이 만공에 꽃핀다면, 그 꽃내음은 우주 전체를 두루 할 것이요, 또 그 열매가 열린다면 만 중생들 전체가 그 맛을 알고 만 가지 맛을 알게 되고, 그 열매 하나를 중생이 다 먹고도 그 열매는 되남을 것입니다.

지금 산 분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죽은 분들도 여기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쯤 아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공부니만큼, 환상을 자기로 알지 마시고, 나중에 형상이 형상 아님을 또 알 때까지 공부 열심히들 하십시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3월 15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 품 구 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 품 구 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 품 구 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불논단

민주시민이 바로 '전륜성왕'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학과
명예교수

붓다도 한 때 전륜성왕의 길 고민해
중생 구제 방편으로 정치 역할 인정
민주 정치 공동체 구현이 '정법정치'

한국 정치판서 '정치 공동체' 붕괴돼
극단 · 배척 · 닫힌 정치, 판치는 상황

붓다 고민한 전륜성왕이 필요한 시대
연기의 지혜로서 민주시민이 되는 것
이 시대 전륜성왕, 행동하는 민주시민

오늘날의 한국 정치의 현실에 대해 '정치 공동체'가 붕괴되었다는 개탄의 소리가 매우 높다. 정치와 공동체라는 단어는 서로 짝이 될 수 없는 기름과 물의 관계처럼 보이기도 한다.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냉소적인 평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다. 미국 작가 맥켄(H.L. Macken)은 미국 정치인들에 대해 "선한 정치가란 정직한 도적만큼이나 생각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

이를 어쩌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치를 폐기하지 않고 용인하고, 나아가 정치에 흥미를 느끼고 정치가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정치는 공동생활의 불가피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욕망, 이익 그리고 가치관을 실현할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라고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붓다도 한때 정치인의 길을 고뇌했다. 초기 경전 〈쌍윳다니카야〉의 내용을 인용해 본다.

어느 때 붓다는 코살라국 설산 지방 어느 숲속 암자에 머물러 계셨다. 붓다는 혼자 조용히 명상하고 계실 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왕이 되어 남을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도 없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빼앗김을 당하는 일도 없고, 남을 슬프게 할 일도 없고 스스로 슬플 일도 없도록, 한결같이 법대로 행하고 법이 아닌 것은 행하지 않는 통치를 하면 어떨까?"

붓다가 이런 생각을 하자 악마는 기뻐하며 전륜성왕이 되기를 유혹했지만, 사람의 욕심을 다 채우기 어렵다며 그 유혹을 뿌리쳤다. 자비와 비폭력에 대한 붓다의 마음에는 정치 방편에 대한 고뇌가 서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붓다는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는 방편으로 정치의 역할을 크게 인정하였다. 또한 정치권력의 타락과 통치자의 위험성을 잘 파악하고 여러 왕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였다.

붓다는 중생구제의 길에 전륜성왕의 역할, 바로 정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전륜성왕은 붓다 탄생 시 이미 깊은 인연을 맺었고 수많은 불전에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불교가 현세 지향적, 실천 지향적 성격이 강한 종교라는 것을 나타낸다. 붓다는 유의법(有爲法)으로서 세속제(世俗諦)로서 정치의 역할을 중시했다. 이것은 바로 민주적인 정치공동체를 구현하는 정법정치에서 구현되는 것일 것이다. 정법 정치의 핵심은 연기론적 세계관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여기서 중도의 정치, 관용의 정치, 열린 정치가 나온다. 지금 한국 정치는 극단의 정치, 배척의 정치, 닫힌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연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둠 속에서 밝음을 보고, 선을 보면서 악을 본다. 극단을 피하고 집착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양극단을 동시에 함께 보는 것이다. 즉, '잠자리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순수한 상대성에서 진정한 절대성이 나온다. 이러한 지혜에서 전륜성왕의 길이 나올 것이다.

붓다가 주저한 전륜성왕의 길을 이제 한국 불자가 실천해 보자. 그것은 연기의 지혜로서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다. 이제 전륜성왕은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깨어남으로 행동하는 민주시민이다. 사족 하나. 한국정치 마당의 용어가 하도 심해 〈천수경〉의 '정구업진언'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社 說

캠퍼스에 부는 새로운 불교 바람 기대

따뜻한 봄 햇살이 내려앉은 3월의 대학 캠퍼스.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들 사이로 은은한 목탁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새학기를 맞아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가 마련한 대불련 홍보부스에서다.

대불련이 젊음의 활기가 넘치고 있는 대학 캠퍼스에서 새내기 회원 모집에 돌입했다. 동자승 탈을 쓰고 동아리 홍보물을 전달하는가 하면 부스에서는 연꽃 만들기, 목탁체험 활동이 펼쳐진다.

생경한 목탁소리에 이끌려 부스를 찾은 새내기들이 대불련 선배들로부터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 템플스테이, 봉사활동, 정기법회 등 청년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듣고 나면 불교 동아리에 대한 큰 관심을 표한다는 게 현장에서의 진언이다.

대불련은 불교의 신앙과 신행활동을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청년 포교의 핵심 동력이다. 특히 지역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각종 봉사와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서의 신행활동에 근간이 되곤 한다.

젊은 시절 종교는 한사람의 인생과 세계관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순수한 열정과 희망, 때로는 고뇌로 가득 찬 시절 택한 종교는 그만큼 깊다. 삶의 철학을 배우고 가치관을 공유하는 이들이 만나 도반으로 함께 성장하면서 불교적 실천을 이끌어가는 구도자도 탄생할 수 있다. 탈종교화 등 위기상황에서도 대학생 포교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대불련은 3월 한 달간 종립학교 동국대를 비롯해 서울대, 경희대, 전남대, 대전대 등 전국 20여 학교에서 불교 동아리 홍보에 나선다. 한국불교의 미래 주역인 대불련의 적극적인 행보로 캠퍼스에 새로운 불교 바람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승가결사체 지속 발전 기대한다

2023년도 조계종 승가결사체 인증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2018년 시작 이래 인증단체에 대한 인증서 전달식은 꾸준히 진행됐지만, 올해 전달식을 조금 특별했다. 교육원과 단체 간 소통을 위해 간담회 형태로 열려서다. 조계종 교육원 3월 2일부터 8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개별 일정으로 불참한 4개 단체를 제외하고 총 24개 단체에게 인증서가 전달됐다.

간담회에서는 단체 간 활동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포교와 출가 진흥을 위한 다양한 논의도 이어졌다. 스님들은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포교를 위해 계층별 전국 연합 템플스테이를 종단 차원에 개최하는 등의 포교 아이디어를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교육원은 승가결사체 활동 분야로 '출가장려'를 추가한다는 계획을 소개하기도 했다.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사업'은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전법 · 호스피스 · 해외구호 · 무료급식 · 환경사업 등을 진행하는 스님들의 모임을 연수인증 단체로 선정 ·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계종 교육원이 승가결사체 구성을 독려하고 연수 인증에 지원금까지 수여하는 것은 모두 스님들의 전법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출가장려 분야를 추가해 출가자 확대를 추진한다는 게 교육원의 복안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비종교인이 종교인보다 많은 '탈종교사회'에 접어들었다. 또한 가족 간 종교 일치율이 늘어나며 개종률은 낮아지고 있다. 이는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새로운 신자들의 유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스님들이 펼치는 승가결사체의 전법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승가결사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⑫ 영화 '아바타: 물의 길'

소아적 가족주의로 퇴행한 속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 물의 길'은 주제적인 측면에서 다소 실망스럽다.

SF의 새 장을 연 '아바타' 발표 이후 13년 만에 발표된 후속작인 이 영화는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 부부의 가족이 지구인들의 공격에 저항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편이 숲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후속작은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아바타의 전작이 놀라웠던 것은 SF의 신기술을 보여줬던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심원한 주제를 긴장감 있는 서사에 잘 용해했기 때문이다.

전작의 서사는 미국의 형성 과정에서 이뤄진 원주민들에 대한 학살을 기초로 하고 있다. 영화 속에서 총포로 무장한 백인들은 지구인으로, 활과 칼로 맞서 싸운 원주민들은 나비족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전의 할리우드 영화와 달리 이 영화는 지구인이 아닌 나비족 입장에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진 원주민 학살에 대한 일종의 참회로도 읽힌다.

특히, 나비족의 삶의 터전인 숲은 낱낱의 생명체들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불교의 연기론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자연을 개발의 도구로만 봤던 근대적 시작의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작은 주체와 객체를 분류하는 소아적인 인간의 사고가 아닌 주체와 객체를 통합하는 대아적인 자연의 사고를 보여줬다.

반면 후속작은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 부부의 입장에서 서사가 전개되다 보니 소아적 가족주의로 퇴행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아바타: 물의 길'은 지구인들이 판도라 행성에서 다시 침범하면서 시작된다. 그런데 숲의 마을의 지도자격인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 부부가 자신들의 가족만 살기 위해서 숲을 떠나서 바다로 향한다. 바다마을로 망명한 뒤 이 가족이 '물의 길'을 깨달아가는 과정은 숭고하다. "물의 길은 시작도 끝도 없다. 물의 길은 모든 걸 잇는다. 바다는 주고 바다는 취한다"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물의 길'은 생명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할 수 있다.

'물의 길'을 담은 카메라 워크는 그야말로 판타스틱하고, 지구인들의 툴쿤 사냥장면은 인간들의 고래사냥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하나야. 그것이 강점이자 약점이지"라는 대사가 대변하듯 이 영화의 강점이자 약점은 가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것만은 변치 않아.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가족이 요새야"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 부부의 가족은 가족이라는 요새 안에서 똘똘 뭉쳤고, "아빠는 지킨다. 그것이 존재 이유다"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제이크 설리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심지어 가족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혈연이 아니라는 이유로 네이티리는 쿼리치의 아바타와 싸우는 과정에서 스파이더를 인질로 잡고 칼로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키리를 인질로 삼은 쿼리치 아바타에게 네이티리가 스파이더의 목에 칼을 겨누면서 하는 말은 "아들에는 아들로 갚는다"는 것이다. 스파이더는 아버지의 기억을 갖고 있는 쿼리치 아바타의 손길을 뿌리치고 설리 가족에게 돌아가지만 설리 가족 중 누구도 스파이더의 안부를 묻지 않는다.

어쩌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간과한 것은 아닐까? '물의 길'에서는 가족이라는 요새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소설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그레이블랙

그레이화이트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배송비 포함)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배송비 포함)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New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 아제여행사와 함께 하면 다릅니다

현대불교문화사업단
2023 불교국가 투어

행복지수가 높은 히말라야 부탄 순례 7일
화엄경을 재현한 보로부두르 대탑과 발리섬 7일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문화탐방과 휴양 8일
초원의 나라 몽골 5일

희망찬 새해 기운을
부처님 품안에서 느끼시길 바랍니다



히말라야 부탄 순례 7일

출 발 : 4월 9일~15일
동참금 : 4,390,000원

주요일정
파드마 삼바바 수행동굴 탁상사원 참배
3대쫑(파로,팀푸, 푸나카) 방문
민속공연 관람, 링포체 친견



보로부두르 대탑과 발리섬 7일

출 발 : 4월 29일
동참금 : 2,690,000원

주요일정
자카르타 국립박물관 방문
보로부두르 대탑 참배
자바섬 주요 불교사원 참배
신들의 섬 발리 휴식



스리랑카 문화탐방과 휴양 8일

출 발 : 3월 23일
동참금 : 2,690,000원

주요일정
입상·좌상·와상의 길비하라 폴론나누와 참배
세계8대불가사의 바위위의 궁전 시기리아락 방문
스리랑카 아프리카 코끼리 사파리 투어
홍차의 메카 누와라엘리아 체험



초원의나라 몽골 5일

출 발 : 6월 15일
동참금 : 1,390,000원

주요일정
아름다운 국립공원 테를지 관람
목초지 트래킹 밤하늘 별빛 감상
울란바타르 간덴사원 몽골불교체험
몽골전통공연 관람

현대불교문화사업단 02)2004-8213, 730-4008 (주)케이투어 아제여행 불교성지순례&특수지역전문 ajetour.co.kr